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지 않고
남을 모함하지 않으며
항상 중도에 있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3월 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41호 2017년 3월 29일 수요일

청소년 인성교육, 불교명상이 '대세'

조계종 청소년 마음등불 만족 '으뜸', 참가자 '급증'

청소년 자살률 OECD 1위, 학업스트레스와 학교폭력 등에 시달리는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이다. 이런 청소년들의 심성 치유에 조계종이 시행하는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선 지도자들은 향후 인성교육을 주도하기 위해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3월 22일 '2016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에서 설문 응답자의 93%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은 2015년 인성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불교계 대표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이다. 이번 만족도 설문에는 프로그램 참가자 737명 중 651명이 응답을 했으며 이 중 53%인 345명이 '매우 만족'을 40%인 261명이 '만족' 의사를 표했다.

조계종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은 가톨릭 민족화해위원회의 'DMZ평화의길'이나 YMCA의 '생명평화의 바람꽃', 같은 불교계인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의 '참나를 찾아가는 여행' 등 종교계의 18개 인성프로그램과 차이점이 있다.

바로 '조계종 인증' 시스템이다.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은 '명상' '심리상담' 등 마음치유를 주제로 조계종 포교원이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과 사찰, 불교단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함께 심사, 인증해 운영한다. 2015년 9월 '인성교육 개발, 인증위원회'를 출범시킨 조계종 포교원은 금강선원과 한마음과학원, 한국명상상담학회, 행불선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 총 12개 프로그램을 인증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사찰과 명상센터 17곳에서 11개 프로그램이 36차례 펼쳐져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소금만다라 오감체험, 호흡명상, 한나무인성교육, 10분 집중명상 등 프로그램은 다양했다.

이 같은 장점으로 인해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은 2016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뢰를 받아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가 실시한 '청소년 인성교육 18개 단체 대상 평가'에서 최우수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당시 평가를 진행한 성해영 서울대 교수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으로 교육현장서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프로그램 진행 및 인증관리 뿐만 아니라 명상기법을 종교적 색채 없이 적용시켰고, 이를 수강한 청소년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임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안팎의 높은 평가 속에 참가자는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에는 중 · 고등학생 556명이, 2016년에는 737명이 참여했다.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도 2015년 5900만원에서 올해 1억 2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달기 포교원 주임은 "2017년 현재 17개 사찰 및 명상센터가 프로그램 진행을 신청한 상태로 총 40여회 진행시 올해 참가자는 820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인증' 시스템이 장점
매년 참가자 · 정부 지원 증가
교육공동체 구성 필요성 나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입 초기 시기를 벗어나면 인성교육계에도 곧 주도권 경쟁이 펼쳐질 것이란 진단이다. 가톨릭계를 비롯해 다른 종교계도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각급 학교에 인성교육 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인성교육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은 "인성교육 지도자들의 양성이 각 단체마다 다르다. 자칫 사교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공교육과 함께 교육공동체로 사업이 진행돼야 하며 불교계 내 인성교육을 담당 전문인력 양성과 네트워크 구축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은 "이제는 보급도 중요한 시점이기에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일선학교에 마음등불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연꽃지화 더하니 축제 분위기 '후끈'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연꽃 지화를 부처님 전에 올린다. 몇날 며칠 꼬박 만들었지만 부처님을 생각하며 만든 탓에 힘들단 생각보단 가슴속에 환희심이 가득 차오른다. 3월 23~26일 2017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첫날인 23일 박람회장 한편서 진행된 '불교지화 런웨이'로 축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사진은 불교지화 명인 정명 스님이 가르치는 조계사 · 봉은사 수강생들이 연꽃지화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글 · 사진=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수좌회 "직선제는 청정승가 구현 방편"

3월 23일 기자회견… 현행 선거제 문제점 비판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종단 안팎에서 여론이 높아지는 직선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국선원수좌회(대표 의정)는 3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로선림위원장 적명 스님을 비롯한 1200여 수좌회 대중의 의견을 모아 종단지도부가 직선제 입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수좌회는 성명을 통해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에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오직 청정승가의 확립과 청정한 지도자 선출"이라며 "직선제는 이를 위한 방편이다. 종도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라야 산적한 적폐를 일소하고 청정승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좌회는 이어 △종단 역량 결집해 청정승가 구현 △자승 총무원장 재임공약(직선제) 이행 △중앙종회 종도 여망 수용해 직선제 관철 △재정 투명화로 수계부터 다비까지 복지 시행 △총무원장 피선거권 제약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후 기자들과 1시간가량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장로선림위원 12인의 동의를

적명 스님 등 원로급 대거 동참
1200여 수좌 의견 모아 발표
"간선제 폐단 극심, 극복 의지 있나"

묻는 질문에 수좌회 대표 의정 스님은 "전부 직접 찾아뵙고 의사를 확인했다. 2분은 종단 혼란을 염려해 사태를 지켜보고 동참하겠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지난 총무원장선거 당시 자승 스님의 재임을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펼쳤지만 얼마 못 가 해산한 것에 대해 수좌회 의장 월암 스님은 "당시 어설프게 물러났다고 비난을 받았다. 수좌회 전체 의견이 통일되지 못해 중도포기 했다. 이후로 반성을 많이 했다"면서 "이번엔 장로스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더불어 수좌의견을 모은 것이다.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타나냈다. 출가자 · 불자 감소 문제에서 수좌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는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산중을 벗어나 이 자리까지 온 것"이라고 답했다.

스님은 또 피선거권 개정 요청에 대해 "현행 총무원장 후보자격 제한을 문제삼는 것이다. 일반사회로 따지면 도지사나 장관만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며 "수좌들이 총무원장이 되려 한다는 정치적 야욕이 있는 건 전혀 아니다. 직선제 시행되면 당연히 개정돼야할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끝으로 직선제로 인해 예상되는 폐단을 감안하고 나선 것이냐는 질문에는 "폐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폐단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종교 양심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간선제라도 공명정대하게 관리됐다면 문제가 있었겠나. 그만큼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종단집행부를 비판했다.

의정 스님은 향후 계획에 대해 "직선제를 향한 비구니스님들의 열망이 더 크다. 4월 비구니선원장 회의가 끝난 뒤 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종단지도부 노력 여하에 따라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대표 의정 스님을 비롯한 30여 수좌회 스님들이 참석했으며, 성명에는 장로선림위원장 적명 스님과 부위원장 무여 스님을 비롯해 고우 · 대원 · 혜국 · 현기 · 성우 · 지선 · 원각 · 인각 · 지환 · 정찬 스님 등 원로급 스님들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Fact Check Q&A -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간선 병폐 대안인가 A5면

청정승가 구현을 위하여 자승 총무원장은 직선제 공약을 이행하라!!!

모름지기 수행자가 도에 게을러지면 삶이 향기롭지 못하고, 출가사문이 명리를 탐하게 되면 수행자로서의 생명이 단절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조계의 후학들이 수행과 교화에 철저하지 못하여 청정승풍과 요익중생의 본분을 망각하고, 명리승이나 호구승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방선원의 납자들은 청정승풍이 무너진 종단의 현실에 수행자로서 참회를 올리고, 파사현정의 심정으로 청정승가 구현의 한 방편으로 총무원장 직선제를 주장하는 바이다. 율장에 의거하면, 현전승가에서 백이갈마를 통해 소임자를 선출하듯이, 종단의 최고 소임자인 총무원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전체 종도의 갈마를 통한 직선선출이 마땅할 것이다.

기본과 상식과 공의가 통하는 지도자, 율 · 교 · 선에 여법한 수행자가 종단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선원수좌회는 청정승가와 종도화합의 역량을 결집시키고자 철저한 검증과 공개토론을 통해 인격과 수행력을 갖춘 종사가 후보가 되어야 하며, 공영제에 의한 직선제를 시행하여 종단의 수장이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수좌들은 현 종단 총무원장과 총무원집행부와 중앙종회를 향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요구를 하고자 한다.

다 음

하나. 종단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청정승가를 구현하여야 한다.
하나. 자승 총무원장은 직선제를 시행함으로써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재임 공약을 이행하라.
하나. 중앙종회는 100인 대중공사의 61%, 종회 주관 여론조사 81%라는 종도들의 여망을 즉각 수용하여 직선특위를 가동하여 직선제를 관철하라.
하나. 재정의 투명화로 수계에서 다비까지의 전면 복지를 시행하라.
하나. 총무원장 피선거권의 제약을 규정한 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장로선림 위 원 장 : 적명(봉암사 수좌)
부위원장 : 무여(축서사 선원장)

장로선림위원 : 고우(원로위원), 대원(원로위원), 혜국(석종사 선원장), 현기(상무주암 선덕), 성우(용화사 선덕), 지선(백양사 방장), 원각(해인사 방장), 인각(범어사 수좌), 지환(동화사 유나), 정찬(대흥사 유나) - 무순

선 림 위 원 : 영진(백담사 유나), 원타(봉암사 전주지), 일수(백양사 유나), 함현(봉암사 전주지), 원광(봉암사 주지), 원인(수도암 선원장), 영일(통도사 유나), 무공(백양사 선원장), 수원(봉암사 한주), 문석(신흥사 선원장), 선법(전 수좌회 부의장), 동진(서운암 선원장), 대전(기본선원장), 정진(직지사 선원장), 효담(해인사 선원장), 노옹(칠불사 선원장), 황노(보광사 선원장), 성묵(남국선원 선원장), 원유(전 수좌회 부의장), 원근(전 봉암사 도감), 덕원(심적사 선감), 수웅, 견명, 보설, 성모, 성륜, 청암, 공마, 덕문, 정견, 능혜, 성하 외 한주 40명 - 무순

수좌회 공동대표 : 현묵(송광사 유나), 의정(상원사 선원장)
의 장 : 월암(한산사 선원장)
부 의 장 : 능광(동화사 선원장), 정과(봉암사 한주)
분과위원장 : 원상(총무), 강설(복지), 범허(교육), 효각(섭외)
사무처장 : 인선 외

수좌회 대중 1,200여명 일동

화엄사 주지후보 덕문 스님 당선

161표 중 100표 얻어, 영관 스님 56표 그쳐



박빙일 것으로 예상됐던 구례 화엄사 주지후보 선거서 덕문 스님〈사진〉이 큰 표차로 영관 스님을 따돌리고 당선됐다.

화엄사는 3월 22일 경내 화엄원서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덕문 스님을 주지후보로 선출했다. 선거인단 178명 중 161명이 투표한 선거서 덕문 스님은 100표를 얻었다. 영관 스님 56표, 무효 5표.

덕문 스님은 당선 소감을 통해 "시대가 변해 많은 문도스님들이 변화를 갈망하는 것 같다. 앞으로 승려복지문제와 농촌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겠다"면서 "앞으로 산중문제는 대중공의를 모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화엄사 발전을 위해 4년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이날 당선증을 받고 5월 8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덕문 스님은 이례적으로 종책자료집 제작해 △교구 원융화합 △본말사 상생실현 △노후 수행환경 마련 △세대 · 지역별 포교전략 수립 △불교문화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수행문화공동체 실현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출가에서 열반까지 교구에서 책임지겠다'는 복지종책은 노후 수행거주도량 조성하고, 중증질환 치료비를 본사서 지원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다비장인 연화장의 규모를 확대해 모든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덕문 스님은 종열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5년과 1990년 범어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화엄사 재정국장, 제13~15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호법부장, 불교중앙박물관장, 대구 동화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감사를 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 창업선포

3년 내 보유자본 50억 · 총매출 300억원 목표

2022년까지 3단계 추진전략
디자인사업 · 유통사업부 조직
종단 기여 15억원까지 확대
자승 스님 "복지 책임져주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서 열린 도반HC 창업선포식. 대표이사 자승 스님이 종단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조계종단 재정 확충을 위해 다방면으로 사업을 전개할 사업지주회사 '도반HC(Holding Company)'가 공식 창업선포를 했다.

㈜도반HC(사장 김용환)는 3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서 '창업 선포식 및 사옥 개소식'을 거행하고, 창업 3년 내에 보유자본 50억원 · 총매출 300억원 이상의 성과를 낼 것을 천명했다.

도반HC는 '종단 재정 확충과 불교계 경제생활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운영된다.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종단역량에 따른 대사회 경제활동 기반 구축이 목표다. 이를 위해 도반HC는 △1단계-불자 경제생활공동체 구축 · 종단 신규경제 기반 확장(~2020년) △2단계-종단 재정확보 본격 추진 · 대사회 경제활동 본격화(2020~2022년) △3단계-종단 재정안정화 기여 · 대사회 경제활동 모델 정착(2022~)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구체적 사업방향으로 기존 사업분야 체계 및 역량을 재정비했다. 도서출판 · 총판 · 전문서점을 출판사업부로 통합하고, 디자인사업부를 신설했다. 또 유통사업부를 재설치해 중앙종무기관 · 교구 · 사찰 신규 재정확충에 나선다. 아울러 종단 내부자원을 조직화해 신행생활 필요물품을 제작 · 보급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인수합병 등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협력업체를 조직화하면서 불교계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향후에는 일반기업과의 OEM · 매칭 · 런칭 등 연계사업과 불교계 특유 프랜차이즈사업을 추진하며, 기업 펀딩을 통해 영화 · 드라마 등의 문화콘텐츠 사업도 모색한다.

도반HC는 △도서출판 도소매업 △기획물 제작 및 대행업 △미디어사업 △오디오 제작 판매업 △행사기획 △유통사업 △프랜차이즈사업 △집합투자 및 투자중개 △부동산 중개 및 임대 △전자상거래 등 10가지 분야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3년 내 현재 5억원 규모의 순익을 30억원으로 높이고 4~5개의 직접사업을 운영하며, 분야별 자회사를 10개 이상 갖춘다는 목표다. 3억원 내외인 종단기여 역시 15억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표이사 자승 스님은 선포식에서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자 종단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반석"이라며 "도반HC는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종단의 튼튼한 버팀목이자 모두에게 선선한 그늘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치하했다. 특히 스님은 이어진 사옥 개소식에서 임직원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승가복지를 책임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반HC 출범으로 관련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비판에 조계종 사업부 관계자는 "10개 사업 중 절반이 기존 사업인데다 프랜차이즈 · 집합투자 등은 영세업자와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동산 중개 및 임대 또한 공인중개사무소 역할이 아니라 종단 소유 토지를 활용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규모보다 대규모사업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반HC는 서울 견지동 두산위브파빌리온 B230~232호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02-733-6390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흥룡사 채무 변제 긍정적, 특위 해산키로

봉선사, 2020년까지 교구차원 특별기금 배정

막대한 채무로 인한 강제경매 위기에 처했던 포천 흥룡사가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어려움을 벗어난 데 이어 교구차원 노력 덕분에 정상화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흥룡사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덕조)'는 3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진행경과 보고를 받고 위원회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서 흥룡사 본사인 봉선사 재무국장 법일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2015~2020년까지 공찰과 사설사암을 비롯한 총 82개 말사에 약 19억2500만원을 특별분담금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기채현황은 3차례 총 16억2700만원이며, 현재까지 3억5000만원을 상환한 상태다.

또한 20여 건에 달했던 각종 소송이 대부분 종료돼 3건의 소송만 남았고, 신규소송이 없는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흥룡사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흥룡사 관련 소송사건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흥룡사와 ㈜대유개발 · 세옹주택 · 진산레저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확정판결에 따른 흥룡사측 변제금원은 약 4억5900만원이었지만 당시 소임자 부주의로 변제하지 않아 2015년 강제경매 절차가 예고됐다. 이는 1980년대 흥룡사 주변이 '백운계곡관광지'로 지정되면서 흥룡사 주지 스님과 개발업자들이 종단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불법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개발 주체가 변경되고, 채권이 양수되는 등 복잡한 소유권 문제가 불거져 구체적 현황 파악도 최근에야 이뤄졌다. 다행히 흥룡사는 2016년 10월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토지강제 경매 문제가 해소됐다.

이날 회의서 특위 위원들은 "주지스님을 비롯한 대중이 잘 화합해서 진행한 결과 원만하게 마무리돼가는 듯하다"며 25교구의 단합된 노력을 치하했다. 다만 2020년까지 이어지는 사안이므로 본사주지가 변경되더라도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기 쉽게 세부적인 경과를 정리해줄 것을 봉선사 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특위는 흥룡사 정상화를 위한 25교구 의지를 재확인하고, 교구에 부담되지 않도록 중앙종회 본회의에 특위 해산의 건을 발의키로 했다.

윤호섭 기자

불교계 '기본소득' 논의 시작
"모든 스님에 월 50만원씩"

유승무 교수, 녹색불교포럼서 '기본소득제 시론' 발표



불교계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스님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키 위한 '승가형 기본소득제'를 확립해야한단 주장이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사진〉는 3월 20일 불교환경연대가 주최한 제4회 녹색불교포럼 '기본소득과 불교'서 '승가형 기본소득제 시론(試論)'을 주제로 발제했다. 유 교수는 이날 탁발제도가 철폐된 한국불교서 이를 대신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승가형 기본소득제 '기초 수행지원 보시금'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승가의 '흑수저'에겐 생존의 요구가 더 시급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또 비구계를 받은 후엔 각종 기능적 업무에 시달리며 반야의 꿈은 물론 그 꿈을 꾼 것조차 잊어버리기 일쑤"라며 "이러한 사태는 삼보정재의 사유화 경향, 승가불평등 심화 및 일부 출가자의 빈곤, 출가자 감소, 세속화 및 사사화 경향, 각종 범계 발생, 신도 수 감소 등 악순환 고리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이러한 불교의 폐단을 승가형 기본소득 보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기초 수행지원 보시금'에 따라 모든 출가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무조건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조계종단 출가자수를 1만 명으로 가정하고 약 600억의 예산을 산정했다.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 △'사찰 점유비'를 세금 형식으로 걷을 것 △직영사찰 종수입 약 760억 중 25%이상 확보 △전국 모든 사찰 종무소에 '기초 수행지원 보시함(또는 승보공양 복전함)' 설치 △관광사찰 입장료의 정당성 근거로 '문화재관람' 항목 외에 '기초수행지원금' 항목 설정, 관광사찰 입장료 일부를 기초수행지원금으로 편입 △일부 출가자의 재보시 등을 제안했다.

유 교수의 주장은 승가복지와 관련 불교계서 첫 논의되는 기본소득안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다만 출가자 수 증감에 따른 재원 마련 방법, 청빈의 삶을 표방하는 승가에 대한 기본소득 제공이 적합한지 여부, 승가형 기본소득제가 △삼보정재 사유화 △승가불평등 △출가자 감소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은 과제로 남았다.

박아름 기자

BBS제주FM 개국 허가
'전국 법음포교' 착수

방송통신위 3월 21일 최종 허가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이 3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BBS제주FM 방송국 개국을 허가받았다.

이에 BBS불교방송은 2018년 부처님오신날 즈음 주파수 94.9MHz, 출력 1KW로 개국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 불음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BBS불교방송은 1990년 5월 1일 개국해 부산, 광주, 대구, 청주, 춘천, 울산 등 주요지역에 지방국을 설립한 한편, 인천, 창원, 진주, 광양, 포항, 안동, 속초, 양양, 강릉, 대관령 등에 중계소를 설치한 바 있다.

BBS불교방송 측은 "제주도엔 이웃종교 방송국은 있었지만 BBS불교방송은 개국되지 않아 부처님 법음과 불법 홍포를 염원하는 제주도민들의 안타까움이 컸다"며 "이번 허가로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불자들의 오랜 숙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 제3기 범음 범패 학인 모집

세계전법과 중생제도에 이바지 하는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이 진리와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행으로 세계인류평화와 불교중흥에 기여할
유능한 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3기 범음범패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목
① 초급 : 예경의식 (도량석부터 ~)
② 중급 : 상용의식 (불공 및 제반의식)
③ 고급 : 전통의식 (시련 ~ 49재 회향까지)
특별의식 (점안식 外 기타의식)
작법 : 바라무, 나비무
※ 특강 : 전통극락무, 법고(무), 연주 모듬북 등..

■ 교육과정 (1년 수료, 2년 졸업)
- 개 강 : 2017년 양력 4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일붕선원
- 교육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4시
- 교육대상 : 승려, 법사, 재가불자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증명사진 1매
- 접수기간 : 2017년 4월 10일까지
- 수 강 료 : 입학금 및 교재비 포함 15만원(수강료 별도)
※ 특혜 : 졸업 후 재가불자 법사, 포교사 자격부여(본종단)



■ 문 의 : 02)991-8175 교무처 / 010-8514-7468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신영동 93-1) 일붕선원 교무처

국제결혼·스승과의 일화… '오감만족' 불교박람회

2017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이모저모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2017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334개 업체서 490개 부스를 운영하며 지난해 280개 업체 431개 부스에 비해 월등한 성장 규모를 나타냈다. 특히 네팔, 일본 등 8개국서 60개 부스가 참여해 국제박람회로서 위용을 자랑했다. 3월 23~26일 나흘 간 약 7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일상이 빛나는 순간, 수행'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한국불교 명상을 한 자리서 만나볼 수 있는 명상대제전을 비롯해 붓다아트페스티벌, 사찰음식존 등 한국불교문화의 자랑거리가 한 데 모여 관람객들의 큰 만족을 얻었다.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서 관람객들로 가장 붐빈 곳은 '무대법문'이 펼쳐지는 3관 무대였다. 스님들의 법문을 가까이서 듣고자 모인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혜자 스님, 미산 스님, 마가 스님, 월호 스님 등 힐링멘토 스님들이 대거 참여해 불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3일 무대법문의 첫 문을 연 정념 스님은 '그리운 스승 한암 스님'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자리에 모인 300여 불자는 정념 스님이 들려주는 한암 스님의 생

490개 부스 운영, 역대 최대 규모

네팔·일본 등 8개국 참여 돋보여

정념 스님 '그리운 스승 한암 스님'

무대법문에 300여 불자 감동 물결

상가레·박꽃별 씨 국제결혼도

전 업적에 귀를 기울이며, 한암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정념 스님은 "1925년 일제강점기 때 한암 스님은 전통이 무너지는 한국불교를 보며 '이렇게 가서는 한국불교가 쇄신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시며 지팡이 하나 들고 오대산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남기신 말씀이 '내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춘삼월 말 잘하는 앵무새는 되지 않겠다'였다"며 "이후 스님은 27년 동안 동구불출(洞口不出)하시며 계정혜를 두루 갖춘 선지식이 되셨다"고 술회했다.





3월 23일 개막식 후 '그리운 스승 한암 스님'을 주제로 무대법문을 펼치고 있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사진 왼쪽). 오른쪽은 아마두 마마두 상가레 군과 박꽃별 양의 화혼예식.

그러면서 정념 스님은 한암 스님이 당시 오대산으로 들어가 초대 종정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불교의 지도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종정을 역임하면서도 큰 일념으로 산문 밖을 벗어나지 않고 오대산중에서 주석했기 때문에 일제치하서도 한국불교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단 의미다.

또한 정념 스님은 한암 스님이 이미 35~36세 때 확철대오(廓撤大悟)의 경지를 경험했다면서 현 시대 불자들도 그 깨달음을 이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념 스님은 "온 우주의 인연, 만상은 본래 서로 부딪히거나 부서짐이 없다. 온전한 그대로 자유와 해탈, 열반의 모습을 다 구족하고 있다"며 "이 이치를 알면 세상을 환희롭게 바라보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어머, 진짜 결혼하나봐! 신랑이 외국인이네! 축하해요~"

박람회장 한편에선 이색 풍경이 펼쳐졌다. 말리 출신 아마두 마마두 상가레 군과 박꽃별 양의 화혼예식이 거행된 것. 불교식 혼례인 화혼예식을 단순히 재현하는 모습인줄 알았던 관람객들의 발길이 '진짜 결혼'이란 소리에 멈춰 섰다.

불교지화 명인 정명 스님의 '불교전통지화 특별전' 개막식서 진행된 특별 순서였다. 이날 정명 스님의 꽃꽂이 제자 백련화 보살의 딸 박꽃별 씨와 아프리카에서 온 아마두 마마두 상가레 씨가 불교식 혼례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합장이 어색하지만 부처님 앞에 공손히 예를 표한 마마두 상가레 씨와 그 모습이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는 박꽃별 씨 모습에 지켜보는 이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주례를 맡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붓다나라템플 주지 선각 스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며 행복한 삶을 가꿔 나가길 바란다"며 신랑 신부의 앞날을 기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가족 찾아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 3월 22일 팽목항서 기자회견

"햇수로 4년, 일수로는 1072일. 누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못 찾고 있는 가족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3월 22일 오전 10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시험인양을 시작하며 이후 본인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온전한 인양을 기도하며 국민들에게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다.

시험인양을 앞두고 팽목항에 나가있는 미수습자 가족 일동은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국민들의 기도를 간절히 호소했다.〈사진〉



미수습자 가족 일동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은화·다윤·현철·영인·양승진·고창석 선생님·권재근·권혁규·이영숙 님을 가족 품에 보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앞에 섰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어제 팽목항 앞바다가 파도치고, 바람 부는 가운데 인양작업 한단 연락을 기다리며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며 "사고 당일 망연자실했던 많은 국민 여러분.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던 그 마음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바다가 잠잠하길, 작업자들의 안전과 공정이 순조롭게 이뤄져서 세월호 인양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시면 인양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미수습자 가족 일동은 "가족을 찾아서 집에 가고 싶다. 차가운 바다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얼마나 돌아오고 싶을까"라면서 "두 번 다시 세월호 같은 아픔이 대한민국서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마무리되고,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되는 세상이길 원한다"고 염원했다.

한편 미수습자 가족일동은 이날 기자회견 후 시험인양이 진행되는 사고 해역으로 나갔다. 이 자리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과 김한나 주임이 동행했다. 박아름 기자

전통 살린 10.27법난기념관 들어선다

성역화추진위, 마스터플랜 수립

성역화 조화 중점, 총 2동으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와 함께 추진되는 10.27법난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이 공개됐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가 3월 22일 공개한 '10.27 법난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마치고, 전통건축방식을 도입한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사전계획단계 마지막 절차로 2014년 조계종이 수립한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서'와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연구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 서울시의 계획방향 및 법적 규제 등 각종 개발여건을 고려했다.

먼저 법난기념관은 1동과 2동으로 구분된다. 1동은 현재 전법회관 일대로 전시동과 추모광장, 사무동 등이 들어서며, 2동은 조계사 내에 법난피해자 스님들을 위한 치유공간으로 활용된다. 사무동을 제외한 건물은 모두 지상 2층 규모의 전통목구조로 건립된다. 1동은 대지면적 3573㎡에 건축면적 1594㎡이며, 2동은 대지면적 926㎡에 건축면적 276㎡다.



10.27법난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조감도. 사진 오른편 현재 전법회관 위치가 기념관 부지다.

추진위에 따르면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은 견지동 45번지 일대 마스터플랜의 일부로써 진행된다. 즉 전통문화 보존과 발전을 기본정신으로 서울시와 추진 중인 '견지동 역사문화관광 조성사업' 취지에 부합하고자 한 것이다. 계획 수립에는 도시계획·고건축·현대건축·조경·전시·자료열람실·치유·인테리어 분야 등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가 참여했다.

추진위는 경복궁·광화문·북촌·인사동과 연계해 전통문화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유교와 불교문화를 동일 권역서 향유할 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자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건축물을 보존안'은 △주차장 진출입구 설치 불가 △지하층 개발 한계 △확정된 시설면적 확보 불가 등으로 인해 논의 과정서 제외됐다.

추진위 총도감 지현 스님은 "1차적으로 부지 매입을 2019년까지 마칠 계획"이라며 "현재 2022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향후 실시설계 아이디어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사찰·성보, 화재보험 가입 보다 쉬워진다

조계종·삼성화재, 공제사업 협약

화재 등 재해에 취약함에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사찰과 성보문화재에 대한 보험 가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사업부와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삼성화재)은 3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목조건축물인 불교 사찰과 문화재들은 화재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화재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성보문화재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계종과 삼성화재는 종단 현실에 맞는 공제사업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조계종 소속 사찰과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화재 및 재해 등 각종 위험관리를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보급한다는 것이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스님과 종무원 등 종단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는 개산조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시고 금강계단을 쌓아 戒를 설하신 戒律의 근본도량입니다.

정유년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세세생생의 불연으로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기를 발원합니다.

보살계 일정

입재 2017년 4월 1일 (음.3.5) 토요일

회향 2017년 4월 3일 (음.3.7) 월요일

● 통 참 금 5만원(새마을금고 6269-09-005031-0 예금주 통도사)
● 차량안내 부산 온천장 지하철 1번출구 앞 - 오전 8시~9시
● 접 수 처 화엄전 055)381-1288 팩스 055)372-7010
● 문 의 처 종무소 055)382-7182

영축총림 통도사

일 주 문



출판기념 토크콘서트

종연 인천 수미정사 회주 스님은 4월 21일 오후 6시 30분 인천 씨앤케이웨딩 컨벤션서 '출판기념 자비나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국제선센터 특별강연

탄웅 서울 국제선센터 센터장은 4월 1일 국제선센터 대각전에서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성효 스님 초청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 추가 모집

가섭 불교상담개발원장 스님은 3월 31일까지 2017학년도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 신입생을 추가모집 한다. (02)737-7378



조계종 성역화불사 기부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은 3월 22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한불련, 제15회 포교사 품수식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회장 인경)는 3월 19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제15회 교육능력평가(포교사) 고시 합격자 연수 및 품수식을 실시했다. 1부에서는 前 정각원장 법산 스님의 법문과 포교사증 수여 및 품수식이 있었으며 2부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원장의 '마음테라피' 특강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부고 **진각종 무외정사 별세**



진각종 종의회 부의장 무외정사가 3월 23일 별세했다.세수 59세, 법랍 33년. 무외 정사는 1984년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인도 델리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장례식장은 영남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25일 오전 6시 대구교구장으로 식이 진행됐다.

화촉 양선호 조계종 교육원 주임은 4월 15일 피에스타귀족 강남 1층 노블리티홀에서 정은혜 양과 화촉을 밝힌다.(02)501-7000



"국난극복·화합 위해 광화문서 모이자"

Interview

4월 5일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여는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불교는 국난 위기에서 대장경 조판과 팔관회 개최 등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탄핵 이후 일고 있는 갈등을 봉합하고 한국 고유의 전통이 다시금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이번 문화대축전을 마련했습니다."

4월 5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2017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을 앞두고 행사를 준비해 온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이번 축전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다.

이번 행복바라미 대축전은 특히 대선과 탄핵 갈등 속에서 국민화합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각당 대선 주자들에게 행사 참가 초청장을 보낸 상태이며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참여가 확정된 상태다. 행사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행사의 시작은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불 이운'으로 시작한다. 도선사가 네팔 룸비니에서 채화한 평화의불을 광화문 광장 봉화대에 점등하는 행사다. 점등은 스님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함께 진행하며 점등을 시작으로 2만 소원성취 촛불등이 점화된다. 이어 2만 불자들의 금강경 독송이 평화의 타종 등과 함께 진행되며 평화기원문 발표도 진행된다.

이에 앞서 광화문 광장에서는 오후 4시부터 불교연합합창단의 음성공양과 법고시연 등이 펼쳐진다. 광장 한복판에는 문화재인 내소사 괘불이 전시되며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부스도 마련된다.

금강경 독송 정진 등 진행

대선주자 평화의불 점화 예정

시민 참여 통한 국민축전 기대

이기흥 회장은 "국태민안을 염원하는 행사로 시민들이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며 "불교내부로 보면 불자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행 단체들 간 역량을 모으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축전을 시작으로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4월 7일부터 22일까지 나눔문화 캠페인과 지역문화제로 확대 전개된다. 나눔문화캠페인은 행복바라미 기부함을 설치한 전국 500여개 모금소에서 진행되며 지역문화제는 인천, 천안, 청주, 화성, 강릉, 전주, 대구, 부산, 광주, 울산에서 펼쳐진다.

이기흥 회장은 "5주년을 맞은 행복바라미는 출범 당시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한 상태"라며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불자들과 시민들이 기부한 금액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행사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동참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韓中日대회, 9월 서울 봉은사서 개최

종단협, 제주도서 제20차 대회 예비회의



한 · 중 · 일 불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제20차 한국대회가 오는 9월 서울 봉은사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3월 23일 제주 중문 롯데호텔서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회의를 개최하고, 9월 6~8일 서울 봉은사서 제20차 한국대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한 3국교류위원회의, 세계평화기원법회, 학술강연회 등을 진행키로 결의했다. 주제는 '3국 불교우호교류의 지속가능한 교류발전'으로 선정했으며, 발우공양과 대규모 전국불교합창단이 참여하는 '보현행원' 축하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예비회의에는 한국 측 종단협 사무총장 월도 스님과 상임이사, 중국 측 중국불교협회 수석부회장 명생 스님 등 10명, 일본 측 일중한 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타케카쿠쵸 스님 등 9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동양 역학, 과학적으로 입증할 터"

소재학 박사, 동국대에 FCA과정 개설



흔히 풍수지리하면 떠오르는 '배산임수'는 옛 조상들이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지혜의 산물이란 분석이 있다. 이처럼 풍수지리와 사주명리 등 한국 전통 역학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강좌가 열린다.

소재학 박사는 최근 동국대에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 과정'과 'FCA풍수지리최고지도자과정', 'FCA현대사주학 석하명리최고지도자과정' 등을 개설했다.

소재학 박사는 이를 통틀어 '동양미래예측학'이라고 설명했다. 소 박사는 "사주명리나 풍수지리 등에 숨겨진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맹신하다보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다"며 "과학적 이론체계에 따른 현대 역학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공부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 박사는 "작명과 선천성격분석, 인연법 등을 면밀히 살펴 꾸준히 공부하면 자신이 나갈 때와 물러날 때 등을 명확히 찾을 수 있다. 이 것이 바로 동양의 미래예측학"이라고 강조했다.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 과정 4기는 3월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40분 수업이 진행된다. 주임교수인 소재학 박사를 필두로 명리학자, 풍수지리학자, 관상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연에 나선다. 강좌는 영상으로도 제공된다. 2학기 과정 수료 후에는 무료 반복 수강이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IOC임원단, 월정사서 불교체험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와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3월 16일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을 비롯한 IOC집행위원들을 초청해 사찰음식 만찬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중앙(전국)신도회 회장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이희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IOC임원단은 월정사 탐방을 시작으로 사물놀이 관람, 강원도립 무용단 승무공연 등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



국내최대 도심 불교교육도량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3월 17일 대구큰절에서 2017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엔 올해 전국 10여개 도량에 입학하는 신입생 3,000여명이 자리했다. 신입생들은 앞으로 2년 간 불교기본교리와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 교육받게 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문화사업단 · 대전국제센터 MOU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과 대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송경헌)는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3월 21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 지역 거주외국인을 중심으로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활동 지원 등을 약속했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3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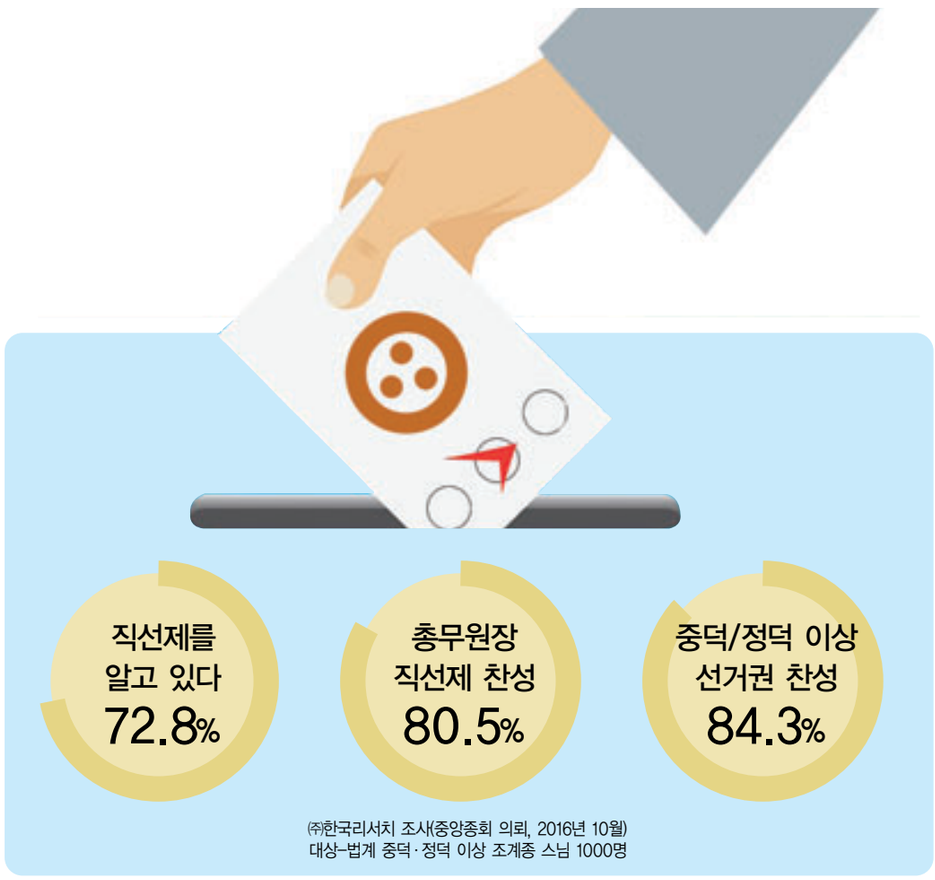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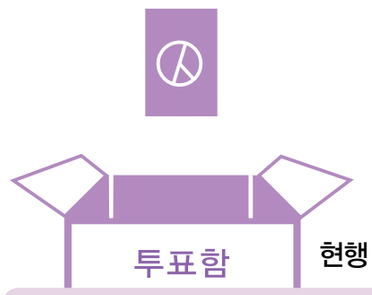
직선제를 알고 있다 72.8%

총무원장 직선제 찬성 80.5%

중덕/정덕 이상 선거권 찬성 84.3%

㈜한국리서치 조사(중앙종회 의뢰, 2016년 10월)
대상-법계 중덕·정덕 이상 조계종 스님 1000명

간선제-직선제 차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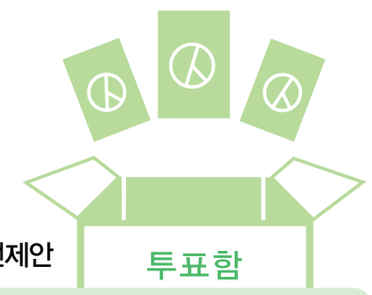


현행 간선제

321명 – 중앙종회의원+교구별 10명	선거인단
승랍 30년 · 연령 50세 · 법계 종덕 이상 비구 – 각급 기관장 또는 중앙종회의원 등 경력 필요	후보자격
1인 1표	투표방식
중앙선관위 선택사항	종책토론회

선거를 실시하기 용이하지만 대중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긴 어려움.

직선대중공사 직선제안



8500명 – 승랍 10년, 법계 중덕 · 정덕 이상	선거인단
승랍 25년 · 법계 종덕 이상 비구 – 선거권자 300명 추천 필요	후보자격
1인 1표, 후보 3인 이상일 때 1인 2표	투표방식
중앙선관위 강제사항	종책토론회

선거 제반비용이 높고, 선거관리가 어렵지만 민주주의에 적합함.

민주적이나 완벽할 순 없는 未完의 선거

Fact Check Q&A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간선 병폐 대안인가

오는 10월 열리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종단 안팎에서 직선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직선제는 현행 간선제의 병폐에 따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대중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낸다. 직선제는 과연 간선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에 현행제도와 문제점, 직선제 논의 과정, 현재 논의되는 직선제, 직선제의 장단점 등을 두루 살펴봤다.

Q1. 현행 선거제에 따른 병폐는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는 321명의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 81명과 24개 교구본사별로 교구종회를 통해 선출한 10명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간선제는 선거의 편의성이 높아 효율적이지만 선거인단이 적어 대중의 뜻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선거인단이 많지 않다보니 총무원장선거를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본사주지 선거에서도 금품선거 의혹은 늘 꼬리표처럼 붙었다. 그럼에도 선거법 위반사례로 적발된 일은 극히 드물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역시 지난해 3월 불광사서 열린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서 선거인단에 대한 금권선거와 과도한 선거열기 등을 현행 선거제도의 폐단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난 뒤 계파 또는 문중 파벌 등에 따른 논공행상을 거치며 승가화합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로 인해 선거인단 확대, 직선제의 필요성은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Q2. 종단 직선제 추진, 어디까지 왔나

제34대 집행부는 2014년 선거인단을 중앙종회의원과 법계 대덕 · 혜덕(승랍 20년) 이상 스님으로 확대하는 '종헌 및 선거법 개정안'을 중앙종회에 발의했지만 '졸속'이라는 비판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100인 대중공사서 총무원장 직선제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중앙종회가 직선제특위를 구성하면서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앙종회는 지난해 10월 전문리서치기관에 의뢰해 법계 중덕 · 정덕(승랍 10년) 이상 스님 1000명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80.5%가 직선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직선제 실시를 담은 종헌개정안을 성안했지만 중앙종회 본회의서 이월됐고, 직선제특위 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표류 중이다. 이에 특위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회의를 진행했지만 원점 재검토라는 잠정적 결론을 비롯해 최근에는 회의 성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동력을 잃은 상태다.

Q3. 최근 논의되는 직선제는

직선제 도입은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실현을 위한 대중공사(직선대중공사)'와 전국선원수좌회가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직선제는 '승랍 10년 이상 비구와 비구니'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직선대중공사 측에 따르면 직선제는 투표구를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및 각 교구본사 종무소에 둬 권역별 투표 또는 본사별로 포살하는 날 투표한다. 투표는 1인 1표가 원칙이지만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인 2표로 진행된다.

후보자격은 현재 본사주지자격과 같은 승랍 25년 이상 비구로 간소화했다. 단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선거권자 300인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각 후보 검증에 나선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방송매체 협조를 얻어 각 후보자가 참가하는 종책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이외에도 총무원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이나 중복 투표에 관여한 선거권자, 행위자, 이를 권유한 자는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

Q4. 직선제로 문제 해결될까

이 같은 직선제가 도입되면 유권자는 약 8500명으로 늘어난다. 현행 선거인단의 26배에 달하는 규모이기에 직선제 찬성 측은 금권선거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대중의 손으로 직접 지도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대중이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선출된 지도자 또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대중을 위해 일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비구니스님들도 선거에 평등하게 참여해 승가 내 성평등 인식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이런 직선제에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 단합이 잘 되는 비구니스님들이 '캐스팅보트'를 쥔다거나 규모가 큰 교구 및 문중서 지속적으로 총무원장이 선출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허정 스님(前불학연구소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숫자가 많은 곳이 유리한 건 정당하다. 또 금권선거만 아니라면 문중끼리 단합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다"며 "인구가 적은 강원도나 제주도 출신 사람들이 대통령 되기 어렵다고 직선제 하지 말자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1인 2표제를 하면 공약과 사람을 보고 소신에 따라 투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직선제는 구체적인 실행안이나 필요한 재정규모 파악, 복잡한 행정절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B스님은 "일반기업들은 작은 사업 하나를 승인받기 위해 구체적 실천방법과 소요재정, 변수 등을 최대한 꼼꼼하게 정리한다"며 "직선제에 찬성하지만 이런 과정도 없이 주요사안을 통과시키라는 건 억지에 가깝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Q5. 율장에 부합하는가

현행 간선제는 율장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변화를 촉구하는 대중은 최대한 율장에 부합되는 선거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직선제는 어떨까.

허정 스님은 "종헌종법이 실질적인 율장 노릇을 하고 있고, 종단 구성원이 한곳에 모여 갈마를 하기도 어렵다. 또 소임자 후보가 한 사람으로 통일되기도 어렵다"면서 "율장에는 이러한 사정 때문에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즉 직선제는 후보가 다수일 때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율장에서 보면 백이갈마(白二羯磨)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는 "전원출석과 만장일치라는 갈마의 원칙에는 화합과 여법이라는 승가 운영의 기본이념이 담겨 있다. 다수의 의견에 절대적 가치를 두는 직선제는 여법이라는 기준과도, 화합이라는 가치와도 거리가 멀다"며 "직선제가 민주주의적인 제도라며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민주주의와 갈마는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상반된 견해에 선거가 아닌 추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반대로 현실성을 문제 삼아 직선제가 그나마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건 제도가 아닌 사람, 승가 내 인식이 문제라는 점이다. 더불어 어떤 방식이 됐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위법적 행위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단기 4350 · 201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불기 2561년

빛고을관등회

2017년 4월 29일(토)
광주아시아문화전당 앞



- 전통문화한마당 (전통문화체험 및 아시아음식문화체험)
  4월 29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
- 어울림마당 (사찰 및 단체 연희단공연)
  4월 29일(토) 오후 5시
- 관등법회 (봉축법요식)
  4월 29일(토) 오후 6시 30분
- 제등행진 (1만개의 전통燈 행진)
  4월 29일(토) 오후 7시
  문화전당 – 광주천변 – 금남공원 – 문화전당 앞
- 대동한마당 (가수 박상철, 강강수월래)
  4월 29일(토) 오후 8시
- 봉축탑 점등식 (화엄사4사자삼층석탑 모형한지등)
  4월 14일(금) 오후 6시 30분
  문화전당 앞
- 전통燈 전시회
  4월 14일(금) ~ 5월 8일(월)
  광주공원 앞 광주천
- 전통燈 전시회 작은음악회
  4월 22일(토) / 4월 30일(일) 오후 6시 30분
  광주공원 앞 광주천





주최 빛고을관등회 봉행위원회 주관 광주불교연합회 빛고을나눔나무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문의 사무국 062.385.1311

각 대학 불교동아리 회원유치 이색전략 '눈길'

'명상' '봉사' 등 내걸고 전력투구
기존 회원 3배 넘는 신입 모집도

"사실 동아리 활동을 해야할 지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불교동아리에서 법회 외에도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명상 프로그램도 한다고 해서 가입하게 됐어요."(이성환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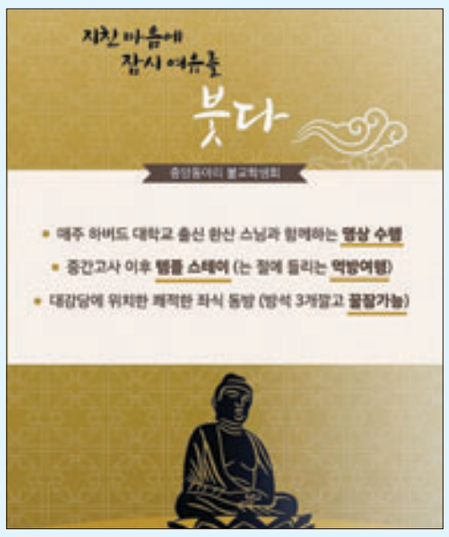
대학 입학시즌을 맞아 각 동아리들이 신입생 모집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기존 회원을 훌쩍 뛰어넘는 신입생을 유치한 불교동아리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취업난 속에 동아리 참여 감소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눈부신 활약이 돋보인다.

연세대 불교동아리(회장 조승제)는 이번 동아리 신입생 모집에서 25명의 신입생을 모집했다. 기존 회원이 8명인 점에 비하면 놀라운 성과다.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명상'이었다. 연세대 불교동아리는 현재 하버드 출신 환산 스님이 매주 월요일 참선 ·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 불교동아리는 3월 8일부터 9일까지 교정 내에서 열린 동아리박람회 신입생 모집에서 관련포스터도 따로 제작하는 등 이 명상 프로그램을 집중 홍보했다.

조승제 회장은 "요즘 학교에는 동아리 박람회식으로 동아리 홍보의 장이 열린다. 학생들의 종교 동아리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기독교계와 차별성을 둘 수 있는 명상과 템플스테이를 집중 홍보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불교동아리의 경우 동아리 내 다문화 학생들을 적극 활용했다. 고려대 불교동아리(회장 신보현)는 기존 20여 명의 회원과 비등한 15명의 신입회원을 받았다.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동아리 박람회동안 말레이시아와 중국 유학생들도 동아리에 대거 가입했다.


고려대 불교동아리 학생들과 대불련 지원학생들이 3월 15일 진행된 동아리 박람회에서 손하트를 하고 있다.



연세대 불교동아리의 신입생 모집 포스터.

'명상' '템플스테이'로 돌파구
'스펙 관심'에 '봉사'도 접목
홍보도 '친근' '유쾌'로 무장

신보현 회장은 "현재 회원 중 중국 등의 유학생이 6명이다. 타국에서 막 공부를 시작한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모국 선배들이 설명을 할 때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는 편이다.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한국학생들도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인연을 쌓을 수 있어 좋아한다"며 "선배 교우회가 활성화 돼 재학생들이 회비를 내지 않는 점도 다양한 신분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라고 말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동아리(회장 양희동)의 경우 '봉사'를 회원 모집의 돌파구로 삼았다. 기존 15명의 회원 규모에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했다.

양희동 회장은 "최근 취업활동에 있어 많은 기업들이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등 사회기여활동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경주캠 불교동아리는 법회 뿐만 아니라 사찰과 복지관 등 다양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다. 대학 생활에 가장 소중한 인연과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일종의 '스펙'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적극 어필했다"고 말했다.

각 불교동아리를 총괄하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측은 이런 노력 끝에 전반적인 신입회원 가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수 대불련 회장은 "현재 각 동아리 신입생 모집 현황을 집계하고 있지만 지난해에 비해 확실히 늘어난 상황"이라며 "각 지역 대학 불교동아리의 경우 서울 주요대학과는 달리 인력이 모자라는 등 상황이 다르다. 대불련 중앙 차원에서 이번에 이색포스터를 제작해 지원하고, 솜사탕 기계 등을 대여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학생들의 불교동아리 활동에 대한 요구도 단순히 법회가 아닌 문화체험이 크다. 대학생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대학 불교신행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종교구, JSA법당 3월 31일 낙성 법회 개최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3월 31일 금요일 오후 2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법당 무량수전 신축불사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낙성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주요부대 현역 군승, 1사단장 이종화 소장 등 부대관계자와 박정이 예비역불자연합회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불교계 주요인사, JSA 불자장병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군종교구는 조국평화통일의 염원으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고려 건축양식의 전통사찰 무량수전 법당 신축불사를 발원하고 지난해 3월 24일 기공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6일 상량식에 이어 오는 3월 31일 드디어 불사 회향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JSA 안보견학관 옆에 위치한 무량수전 신축법당은 법당 82.32㎡(24.9평), 종각 9㎡(2.72평)의 목조 건축물로 고려시대 수덕사 대웅전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을 본 떴다.

또 경내에 조국통일과 세계인류 평화의 발원을 담은 625관의 '평화의 종'이 조성됐다. 무량수전 내부에는 아미타 삼존불을 모시고 나라를 위하여 전사한 국군장병들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먼 타국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6개국 전사자의 위패가 봉안된다.

군종교구 측은 "판문점에 연간 16만명의 내 · 외국인 방문객들이 찾는다. JSA법당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국불교를 홍포하겠다"고 말했다. (060)700-0108

노덕현 기자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왜 폐지 돼야 하는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제53회 미래복지포럼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복지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4월 7일 오후 2시 영등포장애인복지관 대강당서 제53회 미래복지포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최한다. 이번 행사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왜 차별 금지법에 주목해야하고, 사회복지의 역할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다.

발제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은 무엇인가'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호 과제-부양의무제 폐지'로 이뤄진다. 사회복지 종사자 및 관심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02)723-5102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대한불교청년회, 4월 15일 고려 호기놀이 재현

고려시대 부처님오신날 전통놀이 문화인 '호기놀이'를 재현하는 행사가 열린다. 연등회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성권)는 4월 15일 오후 1시 서울 인사동에서 조계사 어린이법회 학생들과 함께 호기놀이를 개최한다.

호기놀이는 부처님오신날 즈음 아이들이 북을 두드리며 동네를 다니며 등불을 밝힐 재료를 살 쌀이나 돈을 구한데서 유래했다.

올해는 인사동과 우정국로 인근 상점을 방문해 연등회 취지를 알리고 권선으로 받은 모연금을 아름다운동행에 후원할 계획이다.

이종철 대불청 자원봉사센터장은 "호기놀이는 연등회가 불교행사를 넘어 한국전통문화이자 풍속임을 알려준다. 우리 전통에 대한 홍보와 나눔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 포교 우리가 희망이다"

조계종 예비 포교사들, 3월 18일부터 입재… 4월 9일까지 지역별 연수

조계종 포교사단(사단장 윤기중)은 3월 18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제22회 조계종 일반 포교사 고시 1차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작했다. 첫 연수에는 대구 경북과 호남, 강원지역 합격자들 200여 명이 동참했다.

입재식에서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포교사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여러분들의 원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포교사단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부산, 경남, 울산, 대전, 충청지역 연수를 개최한데 이어 4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제주 관음사에서 제주지역 연수를 실시한다. 또 4월 8일부터 9일까지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서울, 인천, 경기지역 연수를 연다.



노덕현 기자

혜량 스님과 함께 하는 행복명상 강좌 접수

근본불교연구회 지도법사 혜량 스님은 4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나루명상센터에서 행복한 명상강좌 '지계 나루'를 개최한다.

스님은 이번 명상 강좌에서 △명상의 이해 △호흡명상 △자애명상 △걷기명상 △차명상 △바디스캔 △감정명상 △대화명상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혜량 스님 명상 강좌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사과정 시간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02)353-5708 노덕현 기자

간절한 용맹결사 만이 '선풍진작' 지름길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

2월 26일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에서는 특별한 입제식이 있었다. 전국서 모인 수좌 24명이 산문을 닫고 외부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채 3년간 용맹정진에 들어가기로 굳게 서원한 날이었다. 이 자리에서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은 법어를 통해 "시설이 미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3년간 용맹정진하려고 큰 마음을 낸 수좌들을 보면서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안거철도 아닌데 수좌들이 '학림사 3년 결사' 대장정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을 통해 들어봤다.

공주 학림사=김주일 기자

▲올해는 특히 봉암사 결사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불교계 언론지상에 '결사'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는데요. 이번 학림사 오등선원도 3년 결사라 명명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봉암사 결사는 조계종의 위상을 확실히 세우고 쇄신과 개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결사였다면 이번 오등선원서 하는 결사는 깨달음의 눈푸른 납자를 배출하기 위한 용맹정진 3년 결사입니다. 용맹정진에는 1주일, 21일, 100일 용맹정진 등이 있습니다. 학림사 오등선원에서는 1년에 100일씩 안거때마다 11년간 꾸준히 해왔습니다. 100일 용맹정진도 전국서 우리 오등선원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용맹정진이란 100일 동안 잠안자고 장좌불와하면서 수행하는 것이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18시간씩 합니다. 세수하고 밥먹고, 예불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수행하는 셈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3년을 용맹 정진하는 것은 더군다나 조계종 역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24명 납자들이 용맹 정진에 들어갑니다. 이 것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학림사 결사가 수좌 스님들의 순수한 서원과 원력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겁니다.

▲3년 결사에 동참한 숫자가 현재 전국의 제방선원과 무문관 참여추세 비율로 견줘 볼 때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처음에는 20여명이 넘는 수좌들이 동참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결제 해제와 상관없이 3년간 바깥출입을 삼가며 정진하겠다는 결단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결사 소식이 제방선원에 알려지면서 30여 명 이상의 스님이 입방원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학림사 선원의 정진 공간이 협소하고 열악해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갈마를 통해 24명의 수좌들만 선별해 동참하게 됐습니다. 참 기특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이번에 용맹결사를 3년 동안 열게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으신가요?

-조계종은 선종이 가풍인데 선원이 많이 늘어났고, 예전에 비해서 선원 규모가 커졌지만 외형적인 발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정진 수행하는 납자들의 수도 예전보다는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질적인 향상이 안되다 보니 공부를 해서 안목이 열려 깨달은 인재의 배출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종단도 외형적으로는 괄목상대 했지만, 실질적인 수행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데 있어서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혼란이 가중되고, 분열돼 있을 수록 선지식들을 많이 배출해 사회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 즉 우리 불교가 해야할 막중한 사명감입니다. 또한 선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도 통감하기 때문에 이번에 3년 용맹 결사를 하게 됐습니다.

새롭게 간화선을 중흥하고 선풍 진작의 길을 많이 고민하다가 이번에 용맹결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결사를 통해 출격장부(出格丈夫)의 견고한 마음을 다잡고 정진해 눈 푸른 납자들이 많이 나오길 염원합니다.

▲발원하시는 큰 원력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지요.

-오등선원에 무문관을 짓는 것이 원력입니다. 과거에 무문관을 운영해 본적이 있는데 재정형편과 여러 상황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수행력을 갖춘 인재 배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선기가 뛰어난 수좌들을 선별해 무문관 수행을 통해 인재를 길러봐야 겠다고 오매불망 생각하지만, 재정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저 마음만 갖고 있지요.

그러던 중 구참 수좌 몇몇이 현재 간화선의 위기를 타파하고 후학과 선기 출중한 인물을 배출하려면 용맹결사라도 해야 한다고 적극 건의를 해왔습니다. 무문관 수행이 좋지만 현실적인 제반 여건이 안따르니 차선책을 제시한 거죠.

시설도 미비한 선방이지만 이 곳에서 결사를 하는 것도 뜻깊은 제안이라 생각해 그 순수한 뜻을 받아 들였습니다. 목숨 걸고 간절히 해야 깨침을 얻을 수 있다고 열심히 해보라 격려해 줬습니다.

▲수행자들에게 용맹정진이란 어떤 의미가 있으며, 효과는 어떤지 들려주시지요.

-옛날에 우리가 쉬지 않고 땀흘려 일하니까 경제 성장을 빨리 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수행공부하는 것도 적당히 쉬어가면서 하기 보다 열심히 하면 빨리 깨닫고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용맹 정진의 매력이지이요. 쉬지 않고 화두를 일념으로 깊이 참구하는 마음으로 오직 1백프로 마음을 집중하면서 전력투구하기 때문에 잠을 안자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 이외에 몸 아픈것, 일체 잡념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념을 참구하는 그 힘으로 수마 등도 항복 받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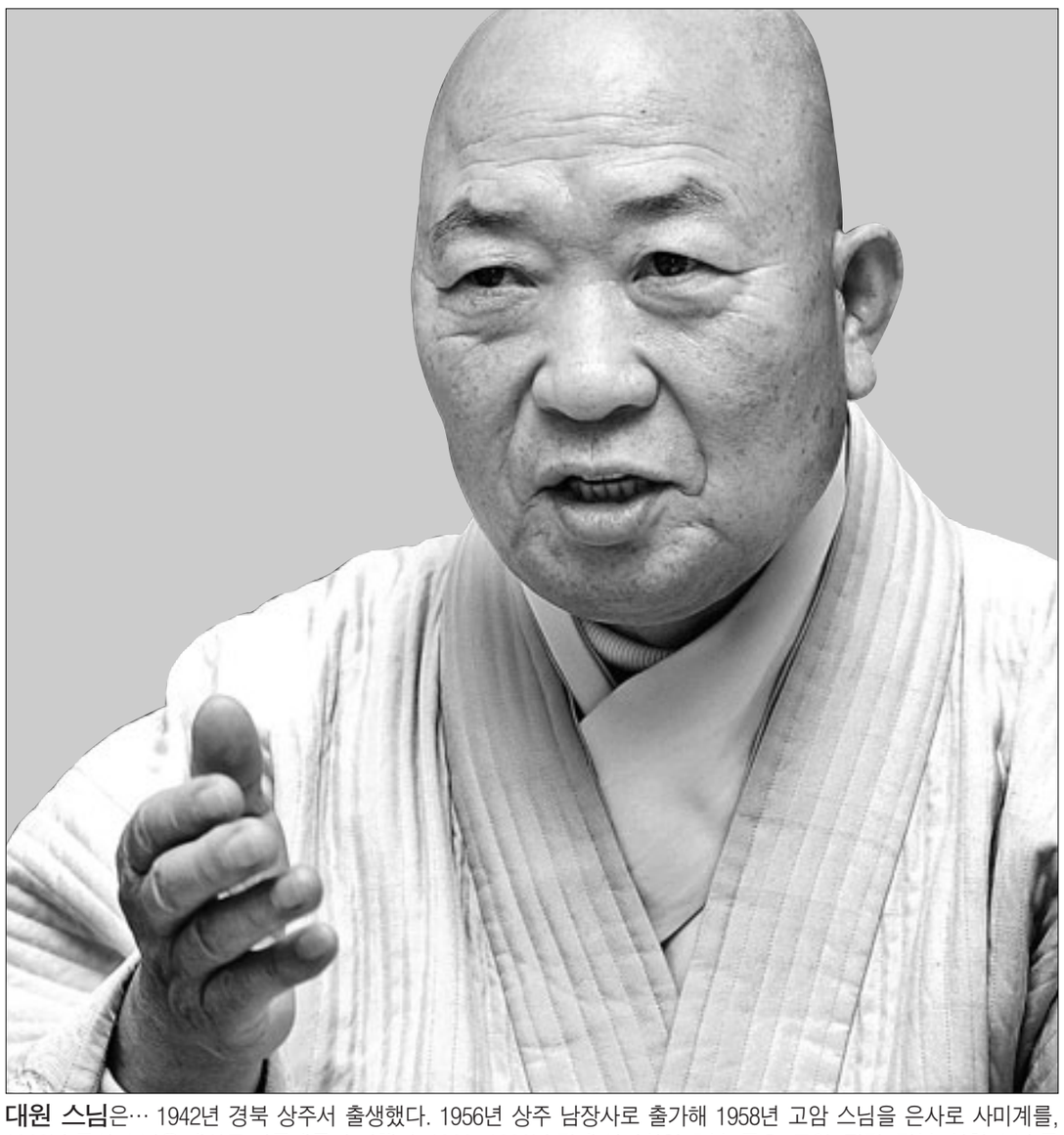
24명수좌 3년간 결사 입재해
선지식 많이 배출돼야 불교발전
"깨닫기 전에는 보살행 할 수없어"
봉사도 수행도 병행해야 큰 효과

▲한국불교가 현재 침체됐다고 하는데 이번 결사 같은 것이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용맹정진하는 것 자체가 불교를 새롭게 중흥시키는 것이고, 불교가 이 세상을 제도하는데 이득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교세도 확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쫓지말고, 한국불교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철저한 수행 밖에는 없습니다. 부처님처럼 나고 죽는 생사문제의 일대사를 해결하고, 내가 나를 바로 깨달아서 진면목을 알아야 부처님 뿐만 아니라 조사 스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합니다. 깨닫지 않고는 중생을 위해서 이익된 일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깨달아야 중생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보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마음을 낼 수 없습니다.

요즘 종단서 봉사 많이 하고 보살행을 한다고 해서 어디 교세가 발전됐습니까? 불자들이 늘어났습니까? 그건 수행을 병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 내 자신의 중생심을 무너뜨리고 내 자신을 찾아서 철저히 수행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항상 따릅니다. 수행과 병행하면 부처님처럼 무한대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이 생겨나지요 거기에는 어떤 시비도 불명예도 부작용도 절대 뒤따르지 않습니다. 해가 한번 떠오르면 온 세상을 비추듯이 한번 떠오른 깨달음의 광명의 빛은 일체 중생을 감싸기 때문에 진정으로 보살행을 낼 수 있습니다.



대원 스님은… 1942년 경북 상주서 출생했다. 1956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해 1958년 고암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62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6~1986년 당대 선지식인 효봉, 금오, 고암, 전강, 경봉, 성철 스님 등을 참방했으며, 40여년 간 정진 수행을 했다. 이어 스님은 용성 스님과 고암 스님의 법맥을 전수받았다. 1986년에는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창건했으며, 1995년에는 오등선원을 개원하고 조실로 추대됐다. 2001년엔 오등시민선원 개원, 선(禪)의 대중화에 진력했다. 2010년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수석대표를 역임 했으며, 2014년에는 종단의 최고 지위인 대종사 법계를 품서했다. 현재는 조계종 원로의원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로 주석중이다.

▲이번 결사에는 수좌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연유로 했는지 들려주시지요. 그리고 용맹 정진의 일정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요.

-스님들이 3년 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일반인들도 함께 하겠다고 나서더군요. 물론 스님들과 차등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생활인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일을 마치고 오등선원에 들어와 정진할 때 만큼은 철저히 스님들과 똑같이 장좌불와하면서 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울림들이 모여서 큰 반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승풍진작 운동에 종단 차원에서도 지원과 성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사는 하루 24시간 화두를 참구하되대중적으로는 18시간씩 좌선을 합니다. 오전 6~8시까지 행선 및 아침공양, 오전 11~오후 2시 사시마지 및 공양, 오후 5~6시 저녁공양을 제외하고는 계속 참선 수행을 이어갑니다.

▲학림사만의 기도 가풍이 있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세요.

-2월 초하루에서 1주일 간을 선방 스님들이 릴레이로 잠 안자고 계속 지장 기도로 천도를 합니다. 이 기간에는 1주일 동안 목탁소리가 멈추질 않죠. 신도들도 함께 뒤에서 따라 합니다. 신도들 얘기를 들으니 지장기도를 여법하게 하니까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해결된다고 해서 많이들 참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결사에 동참하는 수행자들에게 한마디 조언과 당부를 해주신다면요.

-이번 결사를 계기로 일대사(一大事)를 마치겠다는 마음으로 수좌들이 모였습니다. 아마도다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사에 참여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로지 이 일을 해결하겠다는 그 마음, 여기서 죽든지 끝내든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행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수좌들에게는 일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또한 맑은 거울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추어 주듯 언제나 자신을 선(善)의 세계로 이끌어 나쁜 마음 즉 거울에 때가 끼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바르게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깨달은 눈푸른 납자가 많이 배출되어서 한국불교가 새롭게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법당의 앰프, 스피커, 마이크 일부교체 및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진단, 설치하는 관계로 일주일에 사찰 3곳만 방문 가능하오니, 초파일을 앞두고 미리 상담, 출장 예약해 주십시오!)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대출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신상품 ● USB · MP3 PLAYER



보급가 : 145,000원(USB칩 포함)
앰프 스피커 포함 : 235,000원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자체에서 소리조절 오래된 엠프와도 잘 맞습니다.



가격 : 185,000원

● CD기기 (5개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등록번호 : 138-50-00260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인과응보’의 방편으로 중생 구하다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③ 지장보살 이야기 ㊦

사천왕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지장보살은 옛날 옛적부터 (중생구제라는) 큰 서원을 세웠는데도 어찌 제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거듭해서 큰 서원을 세워야 하는 겁니까?”

이에 부처님은 “지장보살은 죄 많은 중생들을 자비심으로 가여워하기 때문에 (계속 밀려드는 그들을 위해) 거듭해서 서원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장보살은 어떠한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할까요. 죄 많은 중생은 자신의 죄를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날 줄을 모릅니다.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중생에게는 조금은 센 처방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자신이) 한대로 받는다”라는 업보설입니다.

(지장보살은) 산목숨을 죽이는 자에게는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 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도둑질하는 자에게는 빈궁하여 고통 받는 과보를 말해주고, 사음하는 자에게는 비둘기 · 오리 · 원앙새로 태어나는 과보를 말해주고, 악담하는 자에게는 친족 간에 서로 이간질하며 싸우는 과보를 말해주고, 남을 헐뜯고 꾸짖는 자에게는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성내는 자에게는 얼굴이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탐내고 인색한 자에게는 바라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에게는 배고프고 목마르며 목병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준다. (중략)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에게는 다시 바꾸어 태어나 매 맞는 과보를, 절의 물건을 훔치거나 함부로 쓰는 자에게는 억겁을 지옥에서 맴도는 과보를,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자에게는 구하는 바가 막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과보를, 자만심이 높은 자는 하천하고 미천한 종이 되는 과보를 말해준다.

〈지장보살본원경〉 ‘염부제 중생들이 받는 업보’ 中

자신이 다른 생명을 해치면 다음 생에서는 본인의 생명이 짧아지고, 도둑질해서 남의 것을 훔치면 가난하게 태어나 고통을 받고, 악담으로 남을 못살게 굴면 스스로가 이간질을 당하여 다투게 되고, 욕심이 많고 인색하여 남이 원하는 대로 절대 해주는 일이 없으면 다음 생에는 거꾸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으며, 표독한 자만심으로 사람을 무시하면 다음 생에는 무시당하는 노비의 입장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명’이라 부르는 것

소위 우리가 ‘운명’이라 부르는 것을, 불교에서는 자신의 ‘업보’라고 말합니다. 〈지장경〉에는 이렇게 간략히 언급되어 있지만, 〈지장십륜경〉의 경우에는 나라님과 관리인, 승단과 속가 등에서 발생하는 온갖 다양하고도 은밀한 악업들이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옥천사 명부전 ‘지장탱(1744년, 마본채색)’ 부분. 지장보살의 지물인 여의주와 육환장을 잘 확인할 수 있다.

업보설로 중생 경각심 일깨워
참회가 수행이 기본인 이유는
업보 인과 넘어서야 하기 때문

〈해탈장엄론(감뽀빠 지음)〉의 ‘업과 그 과보에 대한 명상 수행’에는 불선업(不善業)을 크게 10가지로 분류해 놓았는데, 이는 살생 · 도둑질 · 성적인 부정행위 · 거짓말 · 이간질하는 말 · 거친말(욕설 등) · 한담(잡담) · 탐욕 · 유해한 생각 · 잘못된 견해(사견邪見)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업을 저지르면 그 업의 에너지가 약 3가지로 전개됩니다. 첫째는 이숙과(異熟果)로, 자신이 한 행위가 숙성되어 또 다른 형태의 결과로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등류과(等流果)로, 저지른 원인과 유사한 과보를 받게 되는데, 이는 앞서 〈지장경〉에서 언급한 대로 ‘자신이 행한 대로 받는다’에 속합니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가 됩니다. 셋째는 증상과(增上果)인데, 악업이 진행된 결과로서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힘으로 강탈한 탈취, 아무도 모르게 남의 것을 훔치는 은밀한 탈취, 물건의 길이나 무게 등을 속인 기만적 탈취 등으로 나뉩니다. 도둑질의 업은 3가지 과보로 자신에게 돌아오는데, 이숙과의 과보를 받으면 아귀로 태어나고, 등류과의 과보를 받으면 인간계에 태어나더라도 가난하여 고통을 받고, 증상과의 과보를 받으면 유달리 서리와 우박이 많은 곳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갖가지 업에 따라 다음 생에, 육도(六道: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인) 중에 어디에 떨어지는지, 또 인간계에 태어나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는지, 어떤 얼굴 모양새와 성품을 갖게 되고,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는지, 또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 등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불교의 연기설(緣起說)에 근거하는데, 유식(唯識)에서는 4연(緣)을 말합니다. 즉, 원인되는 인연(因緣), 그 대상이 되는 소연연(所緣緣), 부단히 흐르며 상속되는 등무간연(等無間緣), 일체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증상연(增上緣)입니다.

대비심(大悲心)을 일으킨 뒤에 다시 저 중생들을 관찰하니/ 여섯 갈래 속에서 윤회하면서/ 나고 죽음의 끝이 없네/ 그것은 거짓이고 견고하지 못하여 마치 파초 꿈 환영 같네/ 이어 한밤중에/ 깨끗한 하늘 눈(天眼)을 잇따라 얻어/ 일체 중생을 관찰하기를 거울 속 모양 보는 듯하니/ 중생의 삶과 나고 죽음, 귀천과 부귀는/ 청정업(淸淨業)과 청정하지 않은 업(不淨業) 그것에 따라 고통과 즐거움(苦樂)의 과보를 받네.

나쁜 업(惡業)을 지은 이 관찰할 때 반드시 나쁜 갈래(惡趣)에 태어나고 좋은 업(善業)을 닦아서 익힌 이 인간이나 천상(人天)에 태어난다. 만일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한량없는 갖가지 고통 받나니 (중략) 이런 지극한 고초를 받지만 업행(業行)은 그를 죽게 하지 않는다. -〈붓다차리타(佛所行讚)〉 ‘부처가되다(阿惟三菩提品)’ 제14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중생 세계를 관찰하니, 그 운영의 실체는 업(業)이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업의 에너지가 그 에너지의 형태 그대로 유전(流轉)하고 있었습니다.

業대로 체험하는 지옥 풍경

연기의 인과적 작용을 구체적인 업보의 형식으로 써놓은 〈지장경〉을 독송하면,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참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러한 일이 내게 왜 생기는 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 세세생생 전에라도 분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과법-업사상-참회기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참회가 왜 항상 수행의 시작이 되는지 이해가 가게 됩니다.

지장보살은 업의 과보를 말한 뒤, 그 업대로 떨어지게 되는 무시무시한 지옥을 설함으로서 중생들을 제도합니다. 그 종류를 보면, 고통이 끊이지 않아 한 순간도 쉴 수가 없는 무간지옥, 비명소리가 끊임없는 규환지옥, 구리물에 펄펄 끓는 확탕(또는 화탕)지옥, 칼날이 무수하게 거꾸로 박혀 있는 도산지옥, 얼음 속 추위의 한빙지옥, 혀를 뽑는 발설지옥, 창으로 찌르는 통창지옥, 목 자르는 도수지옥, 다리 태우는 소각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옥의 풍경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그린 것이 ‘지장시왕도’라는 장르의 불화입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 불교문화재학

알아두면 좋은 佛美 상식



미국 스미소니언갤러리 소장 ‘지장보살도’의 여의주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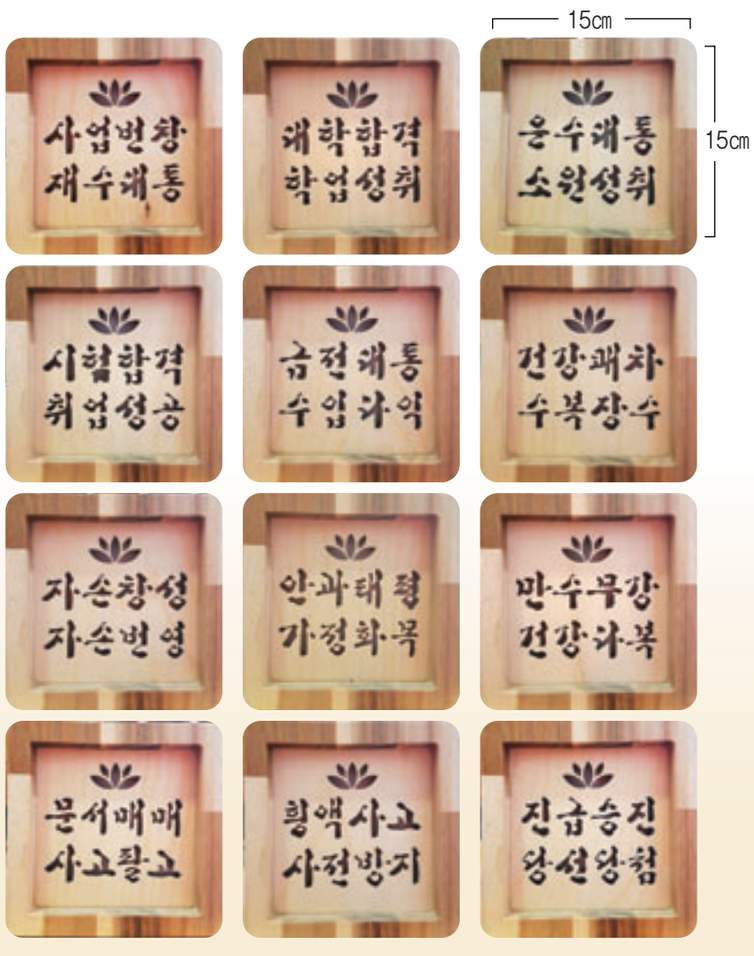
지장보살의 지물 ‘여의주 · 육환장’

지장보살은 여의주와 육환장을 지물(持物)로 들고 있다. 육환장은 부처님에게서 직접 수여받은 것으로 어느 누구도 열지 못한다는 지옥문을 열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 다른 한 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지혜의 빛을 비추어 무명을 타파한다. 그래서 지옥 속의 중생을 제도한다.

〈지장경〉에는 “자비스러운 인因으로 선근을 쌓아/ 맹세코 중생을 구제해내는 지장보살이/ 손가운데 가진 금석주장을 떨치면/ 지옥문이 스스로 열리고/ 손바닥 위에 밝은 구슬의 광명은/ 널리 대천세계를 비춘다”라고 쓰여 있다.

금석주장을 줄여서 석장이라고도 하는데, 여섯 개의 고리(六環)가 지팡이 꼭대기에 달려있는 것을 육환장이라 한다. 이 여섯 개의 고리는 지옥 · 아귀 · 축생 · 수라 · 사람 · 천의 육도(六道)를 상징한다. 지장보살의 지물인 육환장에는 ‘육도윤회에 떨어진 뭇 중생들을 모두 남김없이 구제 하겠다’는 크나큰 의지와 자비가 담겨있다.

여의주는 불교에서 ‘궁극의 깨달음’을 나타내는 도상이다. “하나하나의 여의주로부터 온갖 보배가 비 오듯 하고/ 또 온갖 광명이 비추는데/ 그 빛으로 인해 한 하나의 유정들이 모두 시방의 갠지스 강 모래알만큼 많은 부처님 세계를 보았다.” 여의주는 불성(佛性)을 상징한다.



가로×세로 15㎝, 1점당 희망가는 10만원이며, 계좌 입금 후 전화주십시오!
국민은행 638701-01-453575 (예금주 : 청담아트월드) ☎ 031-912-7112



우리가족의 보금자리에는 매일 성취 등을
밝히며 지장보살 · 관음보살을 뵙습니다!
本人이 원하는 바에 따라 약사여래불 ·
포대화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세련된 디자인과 심플한 모델의 친환경 목재로 완전 수작업으로 제작되며 실용시안특허를 받아 깎고 다듬고 못 하나 치지 않고 끼움 틀작업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혼을 불어 넣은 장인의 작품입니다!
평상시에는 本人이 원하는 등불을 켜두시고 기도시에는 별도카드에 부착된 관음보살, 지장보살, 약사여래불, 포대화상으로 교체한 후 염원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의 가피와 원력과 에너지를 듬뿍받아 소원성취하시고 부자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전기료는 月50원정도 LED부착)
부디 평생 꺼지지 않는 나만의 등불을 밝혀 강건하시고 소원성취를 이루십시오!
■ 친척, 친지, 윗분들, 자손들, 도반, 고마운분들, 생일, 생신, 축하선물로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 사업장, 영업장, 사무실, 집무실, 공부방, 침실, 안방, 거실, 병실에 필, 성취 등입니다!
■ 성취 등 뒷면에는 **띠별호신부(저작권소유)**를 부착해드립니다!

※ 제작과정을 직접보고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동영상을 신청하십시오!
(청담아트월드 총괄기획실장 서재명 010-5669-9572)



현재 전국에 있는 사찰에서는 기존의 인등을 철수하고
저희 회사의 소형목재 인등으로 교체 불사를 많이하고 계십니다!
관심 있는 스님께서는 동영상을 보신 후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사찰담당 상무 : 김수철 010-8881-0474



'월인석보, 훈민정음 읽기'

법련사 불일인문학 강좌

조계종 법련사(주지 진경)는 '월인석보, 훈민정음으로 읽다'를 주제로 한 제4차 불일인문학 강좌를 오는 4월 6일부터 개강한다.

〈월인석보〉는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과 세조가 지은 〈석보상절〉을 개정 · 합편한 책이다. 편찬은 세종 말엽에서 세조 초엽까지 13년동안 이뤄졌으며, 훈민정음 창제 이후 처음 나온 불경 언해서이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의 결정판이자. 당시의 글자나 말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어 한국어문학 역사에서도 매우 귀중한 문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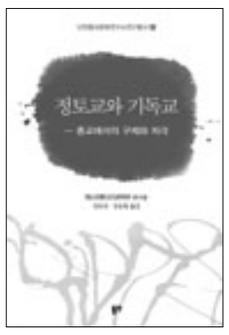
불일인문학 강좌에서는 〈월인석보〉의 내용과 어문학적 위치를 조명한다. 강의는 훈민정음 불경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진원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가 맡는다.

새 봄을 맞아 시작되는 불일인문학 강좌 수강료는 3개월 과정에 15만원이며, 4월 6일 개강 후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법련사 2층 불일문화회관에서 진행된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정토교 구 제 · 기독교 구 원 같음과 다름 사이서 길을 찾다

譯書〈정토교와 기독교〉 서평회 열려



대승불교의 정토교는 아미타불의 구제 원력을 믿고, 염불을 통해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신앙을 주축으로 한다. 기독교는 신에 대한 믿음과 회개를 통해 천국에 임할 수 있다는 구원론을 바탕에 둔다. 무엇인가에 의해 구제 · 구원된다는 점은 정토교와 기독교는 다른 듯 닮았다.

최근 발간된 〈정토교와 기독교〉는 두 종교의 구제 · 구원 개념을 비교 분석한 책이다. 일본 난잔종교문화연구소가 1989년 개최한 심포지엄의 전 기록을 정리 · 수록한 이 책은 김호성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와 김승철 난잔종교문화연구소장이 공동 번역했다. 당시 심포지엄에서 일본 정토종학자들 3인이 호넨과 신란 스님의 구제에 대해 짚어냈고, 일본 신학자들은 기독교에서 구원의 의미를 분석했다. 또한 이들은 종합토론을 통해 정토교와 기독교의 구제 · 구원의 관계점을 찾았다.

28년 전 다뤄진 주제지만, 주제와 내용은 어색하지 않다. 도리어 불교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더불어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발간에 맞춰 역자(譯者)들은 서평회를 개최했다는 점이다. 일반 학계에서 중요한 학술연구서가 나온 경우 종종 서평회가 열리지만, 불교계에서 학술서 서평회가 열리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3월 18일 서울 법련사에서 열린 서평회에서는 김호성 교수가 정토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총평과 서평위원 안경식 부산대 교수,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가 서평을 진행했다. 또한 공역자인 김승철 소장이 최종 인사말을 했다.

이날 김호성 교수는 불교를 죽음을 이야기하는 불교 '사생문'과 생을 이야기하는 불교 '유생문'으로 나누고, '아미타불' 염불을 통해 왕생을 기원하는 정토교는 '사생문'에 해당된다고 전제했다.



3월 18일 서울 법련사에서 열린 〈정토교와 기독교〉 서평회에서 서평위원이 책에 대한 서평을 하고 있다.

日난잔종교硏 세미나 · 토론
김호성 · 김승철 교수 공역해
관련 학자 참여, 서평 진행

구제 · 구원신앙, 현대적 해석
타력 아닌 자력임을 역설해

죽음 이후 왕생과 내세의 안녕을 기원하는 정토교는 타력신앙에 가깝지만, 〈정토교와 기독교〉에서의 정토학자들은 신란과 호넨의 구제론을 분석하며 정토교는 현실에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사생문'의 불교인 정토교의 아킬레스건은 현생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책에서 정토학자들은 신란과 호넨을 통해 정토종문의 가르침의 핵심은 자력신앙 통한 깨침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란이 말한 염불의 공덕인 '상행대비(常行大悲, 항상 자비심을 갖는다)' 등은 타력의 정토신앙을 보완한다"며 "호넨이 강조한 칭명염불도 사후와 함께 현실 안에서 아미타불의 구제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서평위원으로 참여한 안경식 교수도 일본 정토학자들이 신란과 호넨을 통해 정토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안 교수는 "3명의 정토학자들은 구제 왕생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구제가 이뤄짐에 집중하고 있다"이라며 "기독교 신학자들도 유사한 결론을 도출한다"고 말했다.

이찬수 교수는 두 종교간의 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 교수는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는 양 종교 전통의 독특성과 상통성을 분명히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양성 안에서, 다양성을 넘어, 다양성을 살리면서 통일성을 이끌어낼 때 두 종교의 보편성은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재 다량소장처 소장자 교육 실시

불교중앙박물관, 20~21일

성보 문화재 다량소장처 관리자들에게 문화재 전반에 대한 이해와 행정 · 정책 동향을 교육하기 위한 전문교육이 실시됐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현조)은 3월 20~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7년 문화재 다량소장처 소장자 · 관리자 유물관리 교육'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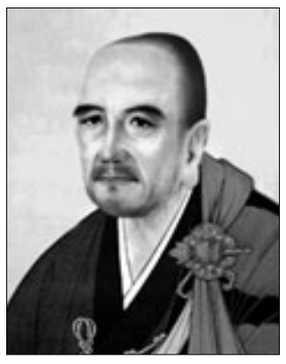
올해로 4년째 시행되는 교육은 문화재 소장자 및 관리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실무능력을 강화하고자 시작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前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의 '성보문화재 이해'를 비롯해 △성보문화재의 특성과 보존관리 방안(박상준 불교문화재연구소 실장) △문화재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건축설계지침과 사례(조홍석 HI정책연구원 역사문화연구센터장) △건축문화재 보존 사례와 관리방법(김봉건 서울대 건축학과 객원교수)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과 방향 (김석희 문화재청 근대문화과 사무관)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원효, 韓인문학에 어떤 영향 미쳤나

동국대 세계불교연구소 3월 18일 6차 학술대회

원효 생애 · 사상 총체 분석
文 · 史 · 哲 등 전반영향 논의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맞아 원효 스님〈사진〉의 사상이 한국 인문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세계불교연구소(소장 고영섭)는 3월 18일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원효가 한국 인문학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제6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문학 · 사학 · 철학 · 종교 ·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원효의 사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인식돼 왔는지를 분석했다.

사학 분야 발표자로 나선 전준모(동국대 불교학과 박사수료) 씨는 현대의 원효 스님 연구가 화쟁 · 회통 이론가의 면모에만 집중돼 있음을 지적하고 대승보살도 실천가로서의 역할도 조명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전 씨는 "원효는 전쟁의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교화했고, 아미타정토신앙으로 그들을 위로했다"며 "그의 생전 행보는 화쟁 · 회통 이론가보다 대승보살도 실천가로서의 면모가 더 강했다"고 설명했다.

원효 스님의 삶과 사상은 고려부터 근대까지 전해지며, 화쟁 이론가와 보살도 실천가로 분화돼 변주 · 활용됐다. 실제 고려 종파 대립이 심할 때는 화쟁이,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에는 보살도 실천의 모습이 부각된다. 일제강점기 최남선은 한국불교의 차별화를 위해 '통불교' 개념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는 위인으로 원효를 내세운다.

전 씨는 "최남선의 통불교론은 시대적 요청에 의해 원효의 화쟁 이론가적 면모가 부각시킨 사례"라면서 "원효의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선 화쟁 이론가와 대승보살도 실천가로서의 면모를 두루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효구 충북대 교수는 김선우의 〈발원〉, 이광수의 〈원효대사〉, 한승원의 〈원효〉 등의 소설을 통해 한국문학 내 원효 스님의 위치를 조명했다.

정 교수는 "원효는 신라인이면서도 근대와 후기 근대인의 비전을 보여줬으며, 이를 넘어선 사람으로 작가들에게 읽혔다"며 "원효는 불교의 세계를 통해 근대 · 후기 근대, 그 이후까지 준비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원효의 삼세육추설과 이황의 사단칠정론을 비교한 고영섭 세계불교학연구소장은 "원효 불학이 독창적으로 제시한 삼세육추설과 이황의 사단칠정론이 만나는 접점과 통로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한 자유롭고 주체적 인간상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들은 인간과 세계의 심연 · 본질을 사유하며 부처와 중생, 군자와 소인이 만나는 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종교에 미친 영향(송현주 순천향대 교양학부 교수), 한국예술에 미친 영향(최엽 한국외대 외래교수)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불교, 상 · 하부구조 부조화 해소해야"

박태원 교수, 3월 향상포럼서 주장

'한국불교 재구성' 주제놓고 다양한 분야서 1년 간 논의

현재 한국불교의 사원공동체는 전통시스템과 현실 사회 간의 부조화가 심각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원 울산대 교수는 3월 17일 열린 향상포럼 월례 발표에서 '한국불교 재건을 위한 사원공동체 시스템의 재구성' 발제를 통해 현재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원공동체 시스템의 변화를 주문했다.

"한국불교가 변혁의 시기를 맞았다"고 천명한 박 교수는 한국불교가 수많은 내부고발과 비판적 성찰을 수용해야 하며, 변화 요소 중 하나로 '사원공동체 시스템'을 꼽았다.

박 교수는 현재 사원공동체는 전통적 방식과 내용으로 구성 · 운영되고 있으나 외부 환경은 지식사회 · 민주주의 · 인권평등 등 유래없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전통적 운영 방식을 사원공동체의 상부구조로 외부 환경을 하부구조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전통적 시스템을 구성할 당시의 하부구조와 현재의 하부구조는 상이하기 때문에 부조화와 파열음이 날 수 밖에 없고, 이를 같은 구조적 부조화와 파열음을 극복하는 게 한국불교의 과제라고 봤다.

박 교수는 "상부구조인 사원공동체 전통시스템은 하부구조인 현대사회의 특징들을 능동적으로 소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사원공동체는 서로를 향상시키는 장으로 나아가는 게 내용이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교수는 사원공동체의 변화를 위해 계 · 정 · 혜 삼학의 수행 영역과 생활 범주 영역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향상포럼은 3월 월례 발표를 시작으로 12월까지 '한국불교의 재구성'이라는 대주제로 매월 월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4월에는 '디지털시대, 불교미디어 전략(류지호)', 5월에는 '교육 · 인문 공간으로서의 사찰(법인 스님)' 등의 발표가 이뤄지며,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사찰의 역할론 · 포교방법론 · 법계직무제도 등 다양한 주제의 발제가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51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7년 4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계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봉 행

진각국사 혜심 탄신 제839주년 기념
제11회 탄신 다례제 및 경로위안잔치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서 불교사상 정립과 불교문화 창달에 기대한 영향을 끼친 진각국사 · 혜심 탄신 838주년을 맞아 제 10회 진각국사 · 혜심 추모 다례제 및 경로 위안잔치를 개최합니다.

오는 4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화순군민회관에서 봉행되는 이번 행사는 진각국사 · 혜심의 큰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화순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 봉행되는 이번 행사에 불자와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17년 4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남산 화순군민회관
■ 후 원 : 화순군. 화순군의회
■ 협 찬 : 화순초교 37회 동문. 광주 동구 해원정사 추모원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20
전화 061)372-0108 / H·P 010-2971-4646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움직이는 것은 아름답다

움직이는 것은 아름답다. 생명의 신비는 경이롭다. TV에서 곤충의 세계를 펼쳐 보일 경우 빨려들듯 지켜본다. 남극에 살고 있는 털북숭이 애벌레는 두 달에 못 미치는 짧은 여름기간에 먹이를 섭취하고 10개월에 가까운 긴 겨울 동안 얼음덩이 속에서 생물학적으로 일체가 정지된 죽어있는 상태로 지내다 다시 얼음과 쌓인 눈이 녹으면 살아난다.

그런 상태를 7년 동안 반복한 후 고치를 짓고 나방이 되는 것이다. 화면을 설명하는 곤충학자는 영하35도에서 70도에 이르는 혹한기의 겨울기간동안 이 털북숭이 애벌레는 몸의 온갖 기능이 멈춰 냉동곤충으로 있다가 햇살에 의해 다시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이었다.

매미는 7년을 나무뿌리의 흙속에서 굼벵이로 머물다 나무에 기어올라 허물을 힘겹게 벗고 매미가 된다. 매미로서의 일생은 보름 남짓이다.

하루살이는 물속에서 애벌레로 머물다 허물을 벗고 하늘로 날아오르는데 하는 것은 인간에겐 사랑의 흔들림과 죽음이 있기 때문' 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강하게 다가온다.

그렇다, 역설 같지만 사랑은 흔들려야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죽음의 마침표가 있어야 오늘의 삶이 소중하고 아름다움으로 채우려는 최선의 노력이 깃드는 법이다. 늙는다는 것은 썰렁한 아쉬움의 눈물방울일 수 있으나 곱게 늙어가며 세월의 무게를 받아들임의 섭수철학으로 승화시킬 수 도 있을 터이다. 들숨 날숨이 연결 안 되는 육체적 죽음은 일생에 있어 한 차례뿐이지만 정신적 방황과 시련으로 겪는 절망의 터널에 갇힌 죽음은 수 수십 차례 누구나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윤회를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7년의 세월동안 털북숭이 애벌레가 되어 얼음 속에 갇혀 살기도 하고 나무뿌리의 흙속에서 굼벵이의 고된 삶을 인내로 견디며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또 하나의 털북숭이 애벌레이자 굼벵이인 것이다.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흉측한 벌레처럼 오늘을 사는 오늘의 주인공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적과 같다
'감사·고마움·미안함' 생활화 하자

하루살이의 일생은 하루일뿐이다. 이 짧은 하루 사이에 사람으로 치면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모두 꿈결처럼 보내며 짝짓기도 하고 알까지 남기며 삶을 마감하는 것이다.

하루살이나 매미의 보름에 비하면 사람의 일생은 지겹도록 길고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는 과정이 아득하게 느껴질 수 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지구촌에서 가장 오래 산다는 미국의 화이트마운틴에 사는 '브리스틴콘' 이라는 나무는 3500년의 나이를 지니고 있고 영국의 웨일즈에는 4000년이 된 주목도 아직 푸른 잎새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사자암의 법당 뜰에도 수령 400년이상 된 느티나무가 200~300년된 아우들을 서너 그루 거느리고 버티어 창창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여기에 비하면 사람들의 일생은 매미의 보름동안의 삶이자 하루살이의 하루 일수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사람에겐 죽음이 있어 더욱 삶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법이다.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읽다보면 명구(名句) 들이 많지만 아킬레스 장군이 독백하듯 내뱉는 '신(神)이 인간을 부러워은 두 눈 멀건히 뜨고도 팍팍하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또 한 마리의 옷 입은 벌레로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열리는 법이다. 마음의 빗장을 풀고 창문을 열고 보면 세상은 온통 빛으로 가득찬 살아있는 자의 세계이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으며 코로 냄새 맡을 수 있으면 이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다. 입으로 말 할 수 있고 씹고 맛 느낄 수 있다면, 열 손가락, 열 발가락 움직일 수 있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경이로움 그 자체이다. 모아둔 게 없으나 움직일 수 있고 병들어 불편하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

가진 게 없어 나눌게 없고 베풀게 없다고 망설이거나 얼굴 붉힐게 아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를 생활의 언어로 선택해 들숨 날숨처럼 사용하자. 부드럽게 칭찬하고 긍정적 착각으로 빛을 모아 느긋하게 여유있게 넉넉하게 당당하게 가슴 활짝 펴고 살 일이다. 움직이는 것은 아름답기 때문이다.

혀 없는 사람이 종지 드러낸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중국 선종 오가칠종(五家七宗) 가운데 위앙종(潙仰宗)은 위산 영우(潙山靈祐:771~853) 선사와 앙산혜적(仰山慧寂:803~887) 선사에 의해 창시된 종파다. 당나라 때 원화연간(806~820)에 영우 선사가 위산에 주석하여 종풍을 떨치다가 그의 제자 혜적 스님이 계승하여 종파로서의 자리를 굳혔다. 이 종파는 당말오대(唐末五代) 시기에 가장 번창하였다가 송나라 때 이르러 점차 쇠퇴하여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여 마침내 임제종(臨濟宗)에 흡수되는 형국이 되었다. 위앙종은 대략 150년 정도 명맥을 유지하였다.

영우 선사는 백장회해(百丈懷海) 선사의 법을 이은 후 7년 동안 위산에 홀로 살다가 대안(大安) 스님이 백장 선사의 회상에서부터 찾아온 이래 학인들이 점차로 몰려들었다. 항상 천오백 명이 넘는 대중이 모여 황벽 선사의 문하보다 더 번성하였다. 상국(相國) 배휴(裴休)가 찾아와 법을 묻기도 했고 인근 백성들이 그의 덕화에 감복하였다. 회창법란(會昌法難) 때는 몸을 숨겨 저자에 피신해 속복을 입고 지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위산으로 돌아와 법을 펴고 대중을 지도했다. 영우 선사를 위산으로 돌아오게 한 데에는 배휴의 간청이 있었다.

영우 선사의 뒤를 이어 혜적 스님이 종지를 승계하여 원주앙산(袁州仰山)에 주석하면서 종풍을 크게 드날렸다. 그러나 오가(五家)의 법맥 중에서 가장 일찍 쇠퇴하여 법계는 4~5세까지 계승되다가 송나라에 와서는 소멸되고 말았다.

앙산 선사가 법을 펼 때는 남양혜충(南陽慧忠) 문하의 탐원(耽源) 스님에게 전해 받은 원상(圓相:○)을 쓰기도 했다. 그는 원상(圓相)을 써서 종지를 쉽게 이해시키려고 애를 썼다.

〈오가종지찬요(五家宗旨纂要)〉의 위앙종 가풍에 대하여 평한 말에 "위앙의 종풍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가정을 이루듯이 스승이 부르면 제자가 화답하는 방식이다. 말로도 침묵으로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밝음과 어둠이 뒤섞여 오가고 체용(體用)이 한 쌍이 되어 드러난다. 혀 없는 사람이 종지를 드러내려 하니 원상을 그려 밝히는구나"라고 하였다.

'원상을 그려 밝힌다' 한 원상에 대한 송(圓相頌)이 있다.

"옛 부처 태어나기 전 응연히 한 모양이 둥글었다.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거늘 가섭이 어찌 전할 손가?"(古佛未生前 凝然一相圓 釋迦猶未會 迦葉豈能傳)

〈선가구감〉에도 위앙가풍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스승이 부르면 제자가 화답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일가를 이룬 격이다. 옆구리에는 글자를 새기고 머리에는 뿔이 높이 솟아났으며, 방 안에서 학인을 점검하면 사자의 허리마저도 끊어진다. 사구(四句)도 여의고 백비(百非)도 끊어지고 한 방으로 모두 부셔버리며, 두 개의 입에 혀가 하나도 없이 아홉 구비 구슬을 잘도 꿴다. 위앙의 종지를 알고자 하는가? 동강난 비석은 옛길에 나뒹굴고, 무쇠소는 소실에서 잠을 잔다."

또 '위산수고우(潙山水 牛)라는 공안이 있다. 〈전등록〉에 의하면 어느 날 위산 선사가 대중에게 말했다.

"내가 죽은 뒤에 산 밑에 있는 마을에 가서 한 마리 검은 암소가 되어 왼쪽 옆구리에 '위산의 중 아무개' 라 쓰겠다. 그때 만약 위산이라 하면 암소인 것을 어찌하며, 암소라 하면 나 위산은 어찌 되는가?"

이때 앙산 선사가 절을 하고 물러났다 한다.

금세와 내세의 이세(二世)를 통하여 보면 현세의 위산이 내세의 암소가 된다는 것이다. 현세와 내세를 합쳐서 보면 위산은 암소이면서 위산이고, 암소는 위산이면서 암소다. 내세를 기준하여 말하자면 위산의 스님이라 말하자니 검은 암소이고, 검은 암소라 부르자니 일찍이 위산의 스님이었다. 사람이 소가 되었을 때 소라고 보아야 하느냐 사람이라고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한 공안이다.

〈선문염송〉에서는 이를 두고 다시 게송을 읊었다.

"산 위에서는 스님이고 산 아래에서는 소네. 털 나고 뿔 달린 무리에 섞여버렸네. 온 세상이 부처되고 조사되려 하는데 홀로 위산만 검은 암소 되었네."

(山上山僧山下牛 被毛戴角混同流 普天成佛與作祖 獨有潙山作水牛)

부처님 법회서 무분별 경지를 보다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⑬ 여시아문의 의미

如是我聞 一時. 佛 在舍衛國 祈樹給孤獨園 與大比丘衆千二百五十人俱
(여시아문 일시. 불 재사위국 기수급고독원 여대비구중천이백오십인구)

爾時 世尊 食時 着衣持鉢 入舍 衛大城 乞食於其城中 次第乞已 還至本處
(이시 세존 식시 착의지발 입사 위대성 걸식어기성중 차제걸이 환지본처)

飯食訖 收衣鉢 洗足已 敷座而坐
(반사흘 수의발 세족이 부좌이좌.)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서 비구 천 이백 오십 인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진지 드실 때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바리를 들으시고 사위성에 들어 가시와 차례로 밥을 비시었다. 그리고 절로 돌아오셔서 진지 잡수시고는 가사와 바리를 거두시고 발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여시아문(如是我聞)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아란존자가 물었습니다. "경전의 첫머리에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이때 부처님께서 "여시아문이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시(如是)는 이와 같이 무엇을, 어떻게, 왜 하라는 것인가?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 대체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과 내가 건강하고 편안하며 행복하기를 바라는 인사입니다. 부처님의 여시는 우리들의 안부 인사와 모양은 같을 수 있으나 그 뜻은 다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 이라 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높고 낮음, 있음과 없음, 생과 사, 좋아하고 싫어함 등 티끌 수와 같은 분별의 이분법이 추호도 서로 다르지 않고, 바른 마음과 분별망념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둘이 아니라는 참으로 평등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하나의 티끌과 다르지 않고, 우주와 다르지 않으며. 허공과 다르지 않고, 지혜와 자비, 공덕과 다르지 않고, 우주의 별들을 생성하고 거두어들이는 화이트홀, 블랙홀과 다르지 않으므로 언어와 문자로 표현될 수 없는 완전한 충만(充滿)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가사를 입으시고, 바리를 들으시며, 사위성으로 들어가시고, 걸식을 하시고, 공양을 하시며,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펴시어 자리에 앉으시는 일체의 생각과 행위가 마음이며, 마음이 일체의 생각과 행위로서 서로 다르지 않고 여여(如如)하십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여시(如是)는 이와 같이 항상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머물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여 분별의 망념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은 가사를 입을 때는 가사에 대해서, 바리를 들을 때는 바리에 대해서, 사위성에 들어갈 때는 사위성과 걷는 것에 대해서, 걸식을 할 때와 공양을 할 때는 많고 적음과 맛에 대해서, 발을 씻고 자리를 편 후 자리에 앉을 때에는 깨끗하고 더러우며, 힘들고 편안함에 대해서 집착하여 일체의 생각과 행위에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티끌과 같은 분별망념을 일으킵니다.

한 생각 삿된 분별망념이 일어나는 것이 생(生)이고, 한 생각 삿된 분별망념이 꺼지는 것이 사(死)입니다. 우리들이 태여 나고 죽는 것은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위를 하시지마는, 분별심을 여읜 여부에 따라 그 차이는 하늘과 땅으로 벌어집니다.

제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3월 30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종도모집
문화관광부 허가 2009-2호 / 제2014-9호 / 등기번호 230121-0003919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종 정 승천 진성 대종사
총무원장 야숙 여몽
총무부원장 석담 성우 총무부장 서광 보원 교무부장 현진 영현 재무부장 현경 대암
호법부장 현수 대선 사회부장 서법 자광 포교부장 성담 해선 비구니부장
사무처장 이민숙 사무국장 장백선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정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제방의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제자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수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3장, 사찰(법당)사진
■ 문 의 : 총무원 - 인천 서구 가정동 494-26 원각사
전화 032)578-2122. 010-5002-7392(총무원장)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총무원

'佛心 부산' 연등 물결로 부처님오신날 찬탄

4월 29일~5월 7일 부산연등축제 개최

연등회 · 연등문화제로 다채 구성
장대해진 연등행렬로 기대감 고조
5월 3일 KBS 특별공원도 마련
가수 홍진영 · 인순이 등 출연진


부산연등축제조직위는 부산시민공원에서 4월 29일 부산연등회를 개최하고, 5월 7일까지 부산연등문화제를 진행한다. 사진은 2016년도 부산연등회 모습.

부처님 오신 날을 빛으로 물들이는 '2017년 부산연등축제'가 부산시민공원에서 새롭게 열린다. 부산시민공원의 넓은 부지를 이용해 봉축연합대법회, 점등식, 어울림 한마당을 동시에 진행, 집중도를 높이고 부산 대표 번화가인 서면 거리를 연등행렬 거리로 새롭게 지정해 시민들의 호응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부산연등축제조직위(위원장 경선)는 봉축을 맞아 부산 시민과 함께 하는 연등 축제를 기획했다. 3월 22일 부산 황련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정산 스님은 "'불심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불교문화의 진수를 볼 수 있는 문화축제가 될 것"이라며 "연등축제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연등행렬 연희단의 화려함을 높이고 아울러 불자와 시민들을 위해 부처님 오신 날 KBS 특별공연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부처님 오신 날 KBS 특별공연은 5월 3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될 예정이며 가수 신유, 김도향, 홍진영, 인순이, 조항조 등 화려한 출연진이 무대를 장식한다. 정산 스님은 "어울림 한마당으로 진행되는 특별공연은 불자 뿐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하는 문화 축제로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등축제는 크게 4월 29일에 열릴 '부산연등회'와 4월 29일~5월 7일 '부산연등문화제'로 진행된다.

부산연등회는 국립국악원 맞은편에 위치한 부산시민공원 내 아트센터 건립 부지에서 오후 5시 30분에 시작한다. 국가발전 및 화합을 발원하는 영산재와 육법공양으로 문을 열어 종립학교 금정중학생들이 참여하는 느티떡 나눔 및 호기놀이를 설행(設行)해 과거 부처님 오신 날의 전통문화를 보여 준다. 이어 내빈들의 관불의식 후 봉축연합대법회에서는 2만 여 불자들이 오체투지로 부처님의 나투심을 찬탄한다. 16만평의 부산시민공원을 화려하게 장식할 180여개의 장엄등을 밝히는 점등식과 제등연등행렬, 회향 한마당으로 마무리 된다.

이번 제등행렬 진행 거리는 약 3.5km로 시민공원남문에서 출발해 삼전교차로, 서면 로터리, 온종합병원, 진양교차로, 부산진중학교를 돌아 다시 남문으로 돌아온다.

부산연등문화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청사초롱, 소원지, 등꼬리표 붙이기 등 다양한 체험마당 부스를 운영한다. 부산연등축제조직위는 "3월 31일까지 문화제 체험 부스에 참가할 사찰 및 신행 단체를 모집 중"이라며 관심을 독려했다.

부산 광복로 연등문화제는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높인다. 광복로연등문화제는 4월 22일 오후 7시 광복로 입구 안전지대에서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7일까지 광복로 일원에서 개최된다. 점등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임원 스님들과 중구내 사찰 주지 스님 및 김은숙 구청장 및 내빈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무총장 정산 스님은 "부산시민공원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연등축제이다. 넓고 확 트인 공간의 장점을 살리고 연희단 퍼레이드와 어울림한마당 특별공연을 동시에 열어 누구나 참여해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베지나랑, '행복한 공양주' 양성 프로젝트 돌입

공양주 대상 소양 교육 …4월 2일부터 개강


나랑아카데미가 4월 2일 채식전문식당 베지나랑서 '전문 공양주 양성 프로젝트' 첫 수업을 시작한다. 사진은 나랑아카데미 소장 수인 스님(사진 오른쪽서 두 번째)과 베지나랑 직원 일동.

음식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할 '공양주 양성 프로젝트'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행복한 공양주'로 불리며 각 사찰에서 수행음식 전문가로 활동하고 수행자의 지계를 수호할 공양간 호법신장을 담당한다.

(사)행복한마을 산하 채식문화연구소 나랑아카데미(소장 수인)는 4월 2일 오전 10시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베지나랑(채식전문식당)에서 '전문 공양주 양성 프로젝트' 첫 수업을 시작한다. 6개월 동안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열리는 공양주 프로젝트는 각 사찰에서 공양 소임을 직접 담당하는 공양주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수행자를 음식을 통해 돕도록 지도하고 한국 불교 사찰 내 공양주의 위상을 다시 고찰해 보는 프로젝트로 총 16명의 수강생을 받고 있다. 수업료는 한 달에 15만원이다. 수업료는 대부분 재료비와 사찰 대중공양으로 회향될 예정이다.

이번 강좌를 통해 참가자들은 채식 전문 요리법을 전수 받을 뿐 아니라 불교의식에 필요한 소양 교육으로 불교대학 기본교육, 100일 기도 참여, 사찰예법, 제사법 등을 배운다. 또 마지막 실전 수업으로는 베지나랑에서 주최하는 대중공양에 참여하고 사찰 공양간에서 실습하며 전문성을 익힌다. 수업을 이수한 참가자들은 베지나랑 채식 음식 레시피를 수료 후에도 인터넷 공유 자료를 통해 제공받고 베지나랑에서 직접 공수하는 채식 요리 재료를 제공 받는다.

아울러 베지나랑은 공양주를 위한 협회(이름 미정)를 창립해 사찰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교육을 이수한 공양주들이 사찰에서 제공하는 복리 후생을 제공받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수인 스님(베지나랑 대표이사)은 "현재 한국 불교에서 공양주는 하나의 직장처럼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 내몰려 어쩔 수 없이 찾는 곳처럼 여겨지는 현실에선 참된 공양주의 역할과 의미를 찾기 힘들다"며 "공양주는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준비하고 그 가운데 수행의 기쁨을 동시에 찾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불살생의 계를 지키고 오신채를 먹지 않는 사찰 공양간으로 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도와야한다"고 중요성을 역설했다.

수인 스님은 2004년 충청도 부여 보리사에서 석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청도 운문사 강원에서 수학했으며 당시 공양간 별좌 소임을 담당하며 사찰 음식을 익혔다. 현재 거창과 부산에서 채식 음식 전문점인 베지나랑을 열고 채식공양 대중화에 앞장서며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070)4177-5555

하성미 기자

삼광사, '국민화합 발원' 일주문 상량



부산 삼광사가 일주문 상량식을 봉행하며 국민화합을 기원했다

삼광사(주지 세운)는 3월 18일 일주문 불사 현장 앞에서 '국민화합과 통합을 기원하는 일주문 상량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애국불교를 기치로 기도하고 정진하는 천태종 삼광사는 이번 상량식을 단순히 일주문 불사를 위한 것이 아닌 나라를 위해 기도 정진하며 국민 화합을 발원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주지 세운 스님은 "애국 · 생활 · 대중불교를 실천해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일주문을 상량하며 원력을 세우고 정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주문은 다포식 공포의 맞배지붕으로 건립되며 건축면적 949㎡ 높이 9.57m이다. 다가오는 4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청량사, '향기로운문화 동행' 발대식



부산 기장 청량사(주지 보혜)는 3월 18일 (사)향기로운문화 동행을 공식 발대하고, 차와 문학, 음악 등 다양한 문화 방편으로 포교에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사진〉

보혜 스님은 "법인 설립은 오래전부터 문화 포교를 위해 세운 원력이었다"며 "지역 특색을 담는 아름다운 정신문화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향기로운 문화동행은 다가오는 4월 9일 오후 2시 청량사에서 창립을 축하하는 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보혜 스님은 기장 차문화대학 2대 학장으로 취임했다. 하성미 기자

대명지사 개원 18주년 기념 법회



해인사 부산 포교당 대명지사(주지 대휴)는 3월 21일 개원 1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대명지사는 부산 북구청에 연탄기금 1,000만원, 백양고등학교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명지금강문수회가 2010년 7월 '500원만 저축하면 세상이 따뜻해져요' 라는 슬로건으로 자비의 연탄은행 통장을 개설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다.

주지 대휴 스님은 "창건 당시 주축이었던 명지장학회와 명지금강문수회 회원들이 편히 찾을 수 있는 사찰이 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창건 당시의 위상을 되찾아 불자들에게 불법을 널리 펼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천주암, 관음종 제2교육 도량으로 만들 것"

천주암 신임 주지 도선 스님



대한불교관음종 경주 천주암(주지 도선)은 주지 취임식 및 생전예수재를 3월 19일 봉행했다.〈사진〉

주지 도선 스님은 "70여년이 넘은 법화도량 천주암서 앞으로 교육 불사에 역량을 쏟겠다"면서 내년부터 관음종 기초교육을 위한 전법도량 건립불사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 지역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수산자비선원 야천당 수산(법상)스님과 함께하는

제5회 불교인을 위한 단합대회 및 제14회 경로위안큰잔치



석가산대장로 제2차 대방광불화엄경80권 사경 원만회향 고불대전

의 식 순 서

1 고불문 : 석운암대화상 (석가산대장로 문도회회장)
2 축발의식
3 석가산대장로 소개 : 이종문 법사
4 법문 : 석가산대장로

초청스님
• 태종사 도성 큰스님(전 대흥사, 해인사 주지스님 역임)
• 석가사 조실 가산큰스님(국가 재야 원로회 상임위원, 대각교단총재)
• 서래암 월인 종정스님(대한불교 종정협의회 이사장)외 100여분의 큰스님 동참

초청가수
• 김상희(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외), 현당(정 하나 준것이 외)
• 법만스님(불교정중종 총무원장 법만사 주지, 불자가수)
• 한보민(빈손외 메들리), 신유성(내사랑 천사 외), 김인수 외 경기민요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00~13:20	20'	• 식전행사 – 창원시노인지회 노인대학 학장 조희자-부채춤 김인수 외 경기민요	사회자
13:20~13:50 (석가대장로 제2차 대방광불화엄경80권 사경 원만회향 고불대전)	30'	• 고불문 : 석운암대화상 (석가산대장로 문도회회장) • 축발의식 • 석가산대장로 소개 : 이종문 법사 • 법문 : 석가산대장로	이종문 법사
13:50~14:35 (제5회 불교인 단합대회)	45'	• 개 회 • 국민의례 • 내빈소개(야천당 수산(법상)스님 • 대회사(야천당 수산(법상)스님 • 격려사(대한노인회 창원지회장) • 법 어(도성스님) • 법 문(가산스님) • 축 사(월인스님)	사회자
14:35~ (제14회 경로 위안큰잔치)		• 특별초대가수 – 김상희, 현당 • 불자가수 초청무대 – 법만스님 • 축하무대 – 한보민, 신유성 • 초청공연 – 모듬북 난타 – 「천둥소리」	

제5회 불교인을 위한 단합대회



대회사 야천당수산(법상)스님
격려사 대한노인회 창원지회장 홍창오
법어 도성큰스님
법문 가산큰스님
축사 월인큰스님

제14회 경로위안큰잔치



특별초대가수 김상희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특별초대가수 현당 (정하나 준것이 외)
불자가수 법만스님
한보민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창원시지부 가수)
신유성 (내사랑 천사 외)

일 시 | 2017년 4월 10일(월) 오후 1시 ~ 오후 4시
장 소 | KBS창원홀
후 원 | 대한노인회 창원지회
협 찬 | 야천당 수산(법상)스님이 직접 운영하는
• 자비요양병원 문의:055)288-6300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치료전문)
• 명곡한의원 / 자비마을(요양시설)
문 의 | 055) 277-7626



특별공연 : 모듬북난타 – 「천둥소리」

후원계좌 :
농 협 351-0613-3149-83 예금주 : 사)수산자비선원
경남은행 581-22-0325609 예금주 : 수산자비선원 정봉수

“전북 유사포교당 기승, 주의 당부”

대불청 전북지구, 철수 요구 항의집회
미끼상품 판매해 지역주민 현혹 문제

3~6개월 옮겨 다니며 운영
유사포교당 피해주민 속출
불교이미지 훼손 악영향에
“범종단적 대책 시급하다”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떴다방식 유사포교당이 전북지역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유사포교당 근절을 위해 청년불자들까지 나선 상황이다.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지구회장 김성규)는 3월 17일 전북 부안군의 의령 수암사 포교원 앞에서 비불교적 떴다방식 유사포교당 철수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유사포교당 문제는 조계종 호법부에서도 폐해를 지적하며 불자 및 지역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들은 발표한 성명에서 “수암사를 비롯해 다수의 사찰포교원이 떴다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생필품 등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며 사람들을 모아 고가의 위패, 납골, 원불들을 강매하고 있다”며 “불자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함께 연대해 광범위한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이번에 문제가 된 의령 수암사, 보성 일월사, 부여 미암사, 김제 성모암 등 여러 사찰이 3~6개월 단위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떴다방식 포교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는 안성 영평사, 함안 마애사, 구미 대원사 등 50여개의 사찰이 떴다방식 포교원을 운영했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사찰이 교계 언론에 대대적인 광고를 내 인지도를 높이면서 지역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회원들이 떴다방식 유사포교당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수암사 앞에서 철수 시위를 벌이는 모습.

이들은 24롤 화장지를 단돈 1천원에 판매하는 등 생필품을 비롯해 떡, 고등어 등도 1~2천원에 미끼상품으로 판매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모은 뒤 위패 및 원불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

게다가 경쟁 포교당의 비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불사의 상품화, 불교의 위상 추락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범종단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부안군의 경우 이들에 대한 폐해가 심각해 부안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떴다방에 속지마세요’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제작, 각 가정에 배포하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어 불교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떴다방식 영업형태의 근절을 위해 부안군은 이장단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의 단체들이 직접 나서 오전과 오후에 교대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포교원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의령 수암사는 최근 허모 씨가 사찰을 인수한 후 대한불교총연합회에 가입하고, 대한불교수암조계종(총무원장 도진)으로 종단등록을 완료했다.

실질적 소유주인 허모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지역사회에서 철수를 요구한다면 1달 후에 부안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철수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당장 철수한다면 마치 죄가 있어 철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되는데 왜 핍박하느냐”고 반박했다.

허 씨는 “수암사는 부안, 신탄진 등 전국에 15곳의 포교원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위패 120~150만원, 가족원불 350만원, 천도재 149만원, 삼성각 단청불사 구좌당 15만원을, 또 4만3,0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의 경우 300만원~1500만원 정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 중에 만난 정인순 씨(71, 부안읍)는 안성 영평사 포교원에 기당 128만원에 조상 위패 3기, 종불사 7구좌(구좌당 48만원), 부부 납골 900만원 등 총 1600여만원 상당의 불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부 납골의 경우 거리가 너무 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담당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관련해 안성 영평사 정림 스님은 “영평사에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어 불사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포교당을 운영했으나 불사를 상품화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스님이 운영하는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교원 등록증을 회수해 현재는 포교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 정씨의 환불요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환불조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도솔암, 합동천도재 막재 봉행

3월 19일, 보제루 일반에 공개… 문화공간 활용

지장신앙의 성지 고창 선운사 도솔암(감원 성본)이 지난 2014년 12월 선망부모와 조상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입재한 5차 합동천도재 17번째 막재를 3월 19일 봉행했다.〈사진〉

도솔암 극락보전에서 봉행된 이번 합동천도재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총무 심학 스님, 혜안 스님, 수찬 스님, 자운 스님, 수종 스님 등 선운사 대중스님과 불자 300여 명이 동참했다. 도솔암 합동천도재는 매주 일요일 7 · 7재 형식으로 진행되는 도솔암의 대표적 업장소멸 영가천도의식이다.

아울러 도솔암은 지난해 말 완공한 보제루를 일반에 개방했다. 그동안 도솔암을 찾는 불자들과 등산객들은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에 보제루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많은 호평을 받았다.

도솔암 보제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중층구조 형식에 20평 규모로 한글과 한문 현판은 서예가 강암 송성룡 선생의 4남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직접 썼다. 보제루에는 주말 마다 고창 티클럽 회원들이 전통차 강좌를 열고, 불자나 등산객들이 자유롭게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다구 등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했다.

감원 성본 스님은 “수행과 문화공동체 형성 및 맞춤형 포교를 지향하는 선운사 정책에 맞춰 누구나 전통차를 마시며 아름다운 주변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탑사 · 쌍봉사, 자비나눔 이어간다

3월 16일, 진안군 11개 읍면
80가구에 쌀 1600kg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절에서 모은 자비의 쌀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자비나눔을 다짐했다.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는 3월 16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안군 11개 읍면 총 80가구 이웃들을 위해 백미 1600kg(20kg 80포)을 전달했다.

탑사와 쌍봉사는 각각 800kg의 쌀을 마련해 홀몸 어르신 등 진안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추천받은 오치동 씨(주천면) 등 80가구에 나눴다. 이날 전달된 자비의 쌀은 탑사와 쌍봉사 불자들이 부처님께 공양한 소원공양미를 모은 것으로,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진안군자원봉사센터에 후원해오고 있다.

탑사 총무 정해 스님은 “불자들의 정성이 담긴 공양미를 지역사회에 나눈다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모두가 힘들어 하는 요즘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쌀 전달에 앞서 탑사와 쌍봉사 스님 · 신도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도 “지역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 되고자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탑사와 쌍봉사는 연탄나눔 봉사,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김장김치 나눔 등 지역사회 자비나눔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탑사는 갑룡장학회를 통해 꾸준히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쌍봉사는 4월부터 매월 진안군내 11개 읍면을 방문해 찾아가는 어르신 밥상과 경로잔치를 베풀 예정이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 김용진 센터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진성 스님과 보경 스님을 비롯한 불자님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에 전달한 쌀은 주변 이웃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양사, 광주광역시 지역법회 창립

장성지역법회 이어 두 번째로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주지 토진)는 3월 16일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고불총림 백양사 광주광역시 지역법회 창립식’을 갖고 광주지역 포교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지역법회는 지난 2월 장성지역법회 창립에 이은 두 번째로 도심지역 불교신자를 위한 포교의 일환으로 창립되었다. 행사는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을 비롯해 김광태 신도회장과 장성지역법회 임원진, 광주지역 백양사 신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주지 토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시작이 반이다. 처음에는 적은 신도들이 모일 수밖에 없지만 꾸준한 신행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며 지역법회 참가자들에게 적극적인 포교를 강조했다.

광주지역법회는 매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한 법회 봉행과 사찰순례 등을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스님 일생 중
가장 확실한 성공!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이곳에 오시면 나이 드셔서 염불이 점점 힘이 드는 분에게 마이크와 1미터 떨어져 모기만한 소리에도 장암하고 은은한 소리를 되돌려 드리는 특수염불시설에 2시간의 염불에도 오히려 신명이 나는 체험을 하신 후 이 시스템을 이대로 법당에 옮기면 스님 일생 중 가장 확실한 성공이 되며 아울러 보살님들이 스님 염불소리가 테이프 소리보다 몇 배 낫다하며 기뻐합니다.

또한 이곳은 특수염불시스템 외에도 각종 음향 (마이크 방생용) 등을 고루 갖추었으니 꼭 오셔서 소리구경 하세요.

※ 단, 오시기 전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약속하시고 사찰 관계자들과 함께 오시면 소리를 판단하는 객관적 검증이 됨으로 스님에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 (주)염불소리 / 전화 055)343-1191. 010-9471-2026

당신도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주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 책자는 초보도 만세력에서 일주만 찾으면
성격 및 당해년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포교를 하다보면 제가자들이 많은 것을 물어
오는데 부록편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혜안 –

慧眼定書

발행인 : 초암사 주지 혜 안 스님
주문처 : 초암사 043-215-1569
010-9405-818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초정길 156-9)
입금계좌 : 농협 317-02-322143 (우복진)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지혜로운 사람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잘 알아 시행하기 때문에 바다에 강물이 끊임없이 모여들 듯 재물은 나날이 늘어나리라.

– 별역잡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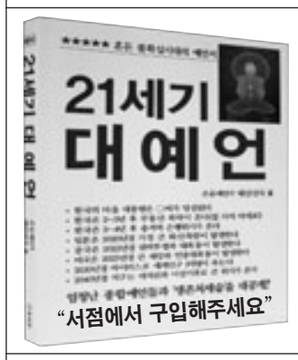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허리선생 혜경」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 정신분열, 정신이상, 빙의, 환청, 환시, 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 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 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49재·점안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척 추 교 정
비 법 전 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 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배워야 산다
비법+명리+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4540-0061
지리산 현담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타로 & 백초귀장술
– 진로 적성 성격 질병 궁합 합격 승진 등 사주보다정확한 심리상담가능
– 단기간 배워 상담가능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원 개원하실 분
010-8246-3253
책임 개인지도

백발백중 타로카드점
– 한 달 배우면 상담가능 1:1 맞춤강의 실전위주 (출장 전화상담)
– 변비,숙변,잔변(확실한 효과) 비법 가르쳐 드립니다.
1주일 체험량 무료로 드립니다
010-2748-6321 향수해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범음범패 교육
스님, 일반, 남여 수시모집
바라, 나비춤, 사물다루기, 살풀이, 극락무, 천도재, 49재, 점안식
010-5598-5078
부산 미타사 무상 합장

운전하며 사찰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1종 대형면허, 65세, 사찰경력 3년
010-6476-602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원)
010-3618-606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성남시 복정동)
010-5382-8261

스님이 안 계신 절 구합니다
무보시로 정성껏 도와드리고 불사를 이루겠습니다.
(60대 비구승)
010-4882-3838

신심있는 50~60대 처사님 모십니다
(평택 약천사)
010-7100-8093

부전스님 모십니다
(포항)
010-3376-6601

문두루 기도비법?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 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 402–31
(붓다의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부전스님 모십니다
꼭 사물 잘 하시는 분
(60세 이상, 울산 백련암)
010-3034-2113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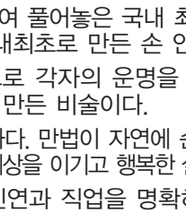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웅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10-3797-0068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 70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식)
352-0943-7979-03 농협(정보식)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한국최초!! 내손안의 육임
◆무료강의 : 매월 2, 4주 일요일 오후 4시(미리 접수바랍니다)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순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을 만든 비술이다.
■ 시간법도 각각 年名(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와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 육임은 대운법 뿐만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❶ 동영상 강좌 : 250만원 ❶ 직강 : 300만원
❸ (내손안에 육임) 프로그램 : 450만원
❶+❷+❸ 合 600만원 (개별구입 가능)
※ 각종카드, 할부금융 – 무이자 24개월 할부 가능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육임이 보인다」 저자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무속 단계 무료, 심천 유료)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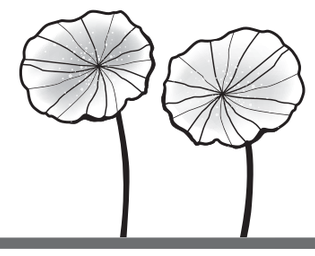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비록 많이 들었다 해도 만약 수행하지 않으면 듣지 않은 것과 같다. 마치 사람이 음식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배가 부르지 않은 것과 같다.

- 능엄경 -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서울지역 무료 출장상담 및 무료 전국신문광고 서비스 제공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제공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신뢰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2-449-0284

양평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요사채.황토방.창고
- 토지 1,500㎡
- 주변이 산, 주차장 보유. 남향이며 아늑한 암자
- 양도가액 : 5억원(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 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 위치 : 지라산
◎ 부지 : 1200평 ◎ 면적 : 7000평
◎ 법당 : 50평 ◎ 건물 : 1000평
◎ 요사 : 80평 ◎ 경관수려,대형차량진입
◎ 양도가 : 9억 5천 ◎ 양도가 : 3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내 돗대산 기도사찰
- 토지 : 270여평, 종각, 요사채 30평
- 법당 23평,주지실, 산신각, 용왕당
  ※ 국제의료관광특구지정
- 사찰주변 1,500세대 아파트
- 최근 2,000세대 아파트 추가분양
- 양도 : 10억 8천만원

직통 010-9906-3631 혜관

사찰(급)안내

- 충주 부근 목조 사찰 양도
- 토지2,500㎡,목조법당,황토요사,목조산신각등
- 면소재지. 50년된 안정된 사찰
- 위치 좋음. 조용한 사찰
- 가액 : 4억 4천만원(융자 2억포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 소재 황금동 10분거리
- 내용 : 법당 약 20평, 주방거실1, 방2, 세면장, 화장실, 벽돌조 32평 독채, 등기필(사찰)
- 대지는 도지료 1년 35만원
- 남향, 교통좋은 포교지 (2차선 상가지역)
- 가액: 5천 4백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요지)
- 신축사찰, 부지 280평
- 삼존불, 각단탱화, 법당, 스님방
- 공양주방, 화장실2, 실외화장실 창고1,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대출 8천안고 2억 3천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서울시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시 잠실 인근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위치
- 3층 134㎡ (약 40평)
- 방1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보 5000만, 월 150만 시설비 1500만원

010-3426-9393(포교원전문)

02-449-0284

삼보사찰안내

- 위치 : 사하구 / 위치 : 서울 / 위치 : 김해
- 대지 : 750평 / 대지 : 120평 / 대지 : 2,0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25평 / 법당 : 3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요사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액 : 25억 / 가액 : 12억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촌 집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가북면 단지봉 해발 800m
- 특징 : 사시장철 청정수 흐르는 개울이 마당과 붙어 있고 특히 돌담이 아름다움
- 작은 집 3채 (방 5개) 구들 난방. 태양광 전기 사용. 수행 공간으로도 최적
- 총 800여평. 가액 : 2억2천

010-3805-2707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요지
- 1층 공양간 35평 2층 법당 50평
- 가액 : 전 1,500만, 월 80만 시설비 절충
- 스님 급한 관계로 급 양도
- 지장기도도량

010-3112-048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 45평 건평 : 92평
- 4층 건물
- 가액 : 5억 5천만원

010-5931-107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법당 25평(목재)
- 공양간 10평, 요사채 방 2칸
- 대지 157평
- 가액: 2억 9천

010-3508-7710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 동해 앞바다 (전망좋음)
- 해수관음 도량(7자)
- 대지 230평
- 1층 요사채, 2층법당
- 가액 : 몽땅 4억 3천(가격절충)
- 몸만오시면 됩니다 부동산사절

010-7441-23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북천면
- 총부지 임야 2,000평
- 건물 법당 16평, 요사30평 조립판넬구조
- 가액 : 1억 8,500백 대출 7,500백 안고 1억 1천

010-7188-7723

암자터 및 전원주택 부지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305번지
- 자연경관 수려하고 삼면 소나무 숲
- 지방국도 접해 있음
- 거창 진목리 면사무소에서 3분거리
- 전기 자연 우물 유. 1300평
- 가액 : 9,500만원
- 대출 삼천만 되어 있음

거창 010-4661-7734
부산 010-3868-7435

여항산 사찰 안내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943 외 5필지 부동산 현황
- 가) 토지 : 654평(종교용지, 답, 임) 나) 건물 : (대웅전 23평, 신영각 3.4평, 요사 27평 등)
- 가액 : 15억

010-6667-4753
010-3852-257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물 2채
- 대웅전, 산신각, 별도 황토방 2개
- 주방, 욕실, 조경, 시설완벽
- 즉시법회가능
- 버스터미널 도보 5분거리
- 가액 : 3억 8천만원 (융자있음)

010-4561-2149

사찰안내(토굴)

- 위치 : 경북 구미 시내
- 대지75평, 요사채, 법당 40평
- 방3,주방,욕실,화장실2, 창고1, 총평수 248㎡(75), 대문2
- 현재 8년 운영중 스님이 대불사를 하였음
- 스님, 보살, 법사가능
- 가액 : 보증금 3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600만원

010-2499-300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통복시장
- 명리 상담 하던곳
- 평수 : 약 50평(화장실 포함)
- 깨끗한 건물 2층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 즉시법회 가능

010-6829-4040

사찰(급)안내

- 위치:경북 영천시 하북면 소재
- 임야 : 종교부지 합 15,000평 (종교부지내에 개인부지 포함) 건물 1동 (약 70평)
- 터는 명당자리(좌백호, 우청룡) 토목공사 진행중
- 가액 : 3억5천만원(몽땅)
- 시세이하 반값

010-8014-7707
010-3832-715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삼방동 24-17 삼안공원 앞
- 건물 3층 건물중 1층 33평, 도시가스
- 가액 : 보 1,500만원, 월 40만원 시설 집기 일체 8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8352-4111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산 방향 도심속 조용한 사찰
- 대지 : 54평 / 2층 양옥, 전통대문신축, 1층 전체 소나무 원목 리모델링 완료(총 1억 3천투자) 1층 : 법당,공양간, 종무실,창고 등(40평) 2층 : 산신각, 요사채(방3, 거실1, 화장실1, 베란다) 3층 : 옥상(창고 등 증축 가능)
- 참고사항 : 주변 아파트 3개소 5000세대 건축중 / 지하철 공사예정으로 시세상승 예정
- 양도금액 : 3억 5천. 전세가능(1억 7천)
- 관세음보살 등동 불상 4분 후불탱화, 설법단, 칠성단, 신중단 등 냉장고 4대 등 각종 주방비품, 에어컨 4대 등 각종 비품 상호협의하 인계 건강상 사유로 급 양도

010-6731-2365 / 010-6741-25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 평수 : 40평(3층 건물 2층)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산신, 칠성, 범종, 108소불,
- 큰방1,넓은공양실, 실내화장실, 냉난방시설, 주차장 완비, 최고시설
- 가액: 보증금 500 월38만원 시설비 1,800만원
- 큰절 소임 관계로 급히 싸게 양도함

010-3152-273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191번지
- 법당목재30평 요사채30평
- 종교부지324평 개인땅200평
- 법당목재건물
- 가액 : 3억(전세 9천)

033-434-1365
010-7128-1365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옆)
- 평수 : 50평, 3층건물 중 2층
- 삼존불 모셔져있고 방 2개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가액: 보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2069-3944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15번길 17 (거제 시장 통닭 골목)
- 3층 건물 중 2층 삼존불, 주방, 욕실, 창고 등 (보신후 결정)
- 가액 : 보 5백만원 월 50만원 (실평수 60평) 시설비는 보신후 결정

010-8385-2447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
- 대지 : 1,000평
- 전 1,300평, 임야 1,000평
- 법당 35평, 종각, 산신각, 각 3평씩 (육송목재로 지은 법당)
- 주지실 14평, 요사채 60평, 주택 25평
- 화장실, 샤워실, 차고 25평
- 가액 : 13억

011-9324-4461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
-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 법당: 철재 경량골 23평
- 삼성각: 목조 기와 7평(단청, 30년됨)
- 요사채: 철재스레트 30평,방5개, 주방1개, 화장실(실내1, 실외1)
- 1억8천만원(융자 4천만원)

010-3875-6305
041-752-059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역전 앞 광장 3층 건물 중 3층. 역세권
- 실평수 28평, 방1개, 거실1개, 법당, 권리금 없음
- 포교원 철학관 하실분
- 가액: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조정할 수 있음

010-3840-5534
(주인직)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우림시 장오거리(위치 좋음)
- 2층 전체 약 30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현재 법회 중)

010-9598-5757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병영시장 앞
- 지상4층, 건물 3층, 40평
- 삼존불: LED 관음인등 440기
- 신중당: 인등 40기. 소불:200불
- 실내방 1개, 주방1개, 화장실
- 바로법회 가능

010-4052-3337
052-293-955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연산동
- 대지 120평(종교부지)
- 법당, 삼성각, 용왕당, 호신불당
- 스님친견실, 주지실, 주차장 상수도 및 약수(사시사철)
- 가액 : 4억 5천만원
- 완전 몸만 오시면 됨

010-7273-152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대지 : 150평(반지하)
- 법당, 산신각, 칠성각 약 70평
- 스님친견실, 주지실, 종무소, 외 방3개, 공양간, 욕실, 다용도실, 텃밭
- 완전 몸 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010-6717-6826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사직동
- 2층건물중 2층 옥상에산신각
- 평수 40평정도 작은법당(대웅전)
- 상담실,종무소,방1,욕실겸 화장실1
- 보증금 2000만월세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삼존불.백사위신중탱화, 조왕탱화
- 집기일체(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2,대형TV
- ※ 작지만 최고 시설
- 역학보시는스님포교하기가좋습니다

연락처 010-3660-9363

별장같은 현대식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일월산지역
- 총평수 1,000평, 대지 500평, 농지 500평 요사채 30, 완공 3년
- 사정상 법당은 미완공, 토목공사 완료
- 앞마당에 계곡물 흐르고 1급수 청정지역
- 가액 : 2억 4천, 절충가능

010-5424-4969

단독주택 법당 안내

- 위치 : 세종시 행정타운 10분, 조치원 5분 딱중간지점 · 대로변 교통편리, 차량유동인구 많고 근린,교육시설형성 좋음, 대로변. 포교원 운영 최적지임
- 1층 법당 요사채 산신 영가단 2층 옥탑방, 마당 ,주차장, 텃밭
- 가액 : 시보포함 2500 절충가능, 절살림 완비, 바로 법회가능
- 자세한사항 전화문의하세요

010-4598-291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대지 150평(반지하), 법당, 산신각, 칠성각, 약 70평
- 스님친견실, 주지실, 종무소 외 방 3개
- 공양간, 욕실, 다용도실, 텃밭
- 완전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3억

010-3007-5611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내 2차선 도로변
-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 중간부분 교통 원활
- 아미 관음 지장 후불 신중 칠성탱화 영가단, 소불 법당종 냉,난방기 음양 조명 등 시설완벽 불기 및 집기일체
- 신조성 1년 10개월 포교 및 명리 적합, 3층 건물 중 2층 약 25평
- 보: 300백, 월30만. 주방시설은 있으나 방은 없음 시설비는 꼭 하실분에게 최소의 금액에 드리겠습니다

010-5050-6252

사 찰 안 내

- 위치 : 세종시
- 부지:10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외 1동
- 산속,차량진입, 경관수려
- 양도가 : 7억

010-4586-4525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10㎜)
30,800원
(무료배송)

*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주문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도심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 대지 70평
- 1층:27평(방3칸, 공양실, 주방) 2층:25평(법당, 스님 친견실) 종무소: 3평, 도시가스, 주차가능
- 가액 : 전세로 상담후 결정

010-7311-53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법당 40평, 대지 360평
- 요사채 3동, 산신각, 용왕당
- 가액 : 보3000만원,월70만원
- 몸만 오셔서 바로 법회가능

010-8384-7754
하루 전 미리 전화 요망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4호선 당고개역 1분거리
- 지하1층, 지상1층 다락 지상 49.26㎡, 지하 24.03㎡ 마당 있습니다.
- 상계 제2구역 재개발구역
- 종교부지
- 가액 : 5억 5천만원

010-9342-0289

토 굴 안 내

- 위치 : 원주시 부론면 소재
- 여주IC, 문막IC에서15분거리
- 대지180평,전75평,건평30평
- 난방 : 심야보일러
- 대문까지 포장도로,주차장시설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가액 :1억 6천만원

010-7345-1674

절터,암자터부지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 전, 임 730여평(보전관리지역)
- 포장도로 접해 있음
- 항노화 힐링특구
- 가액 : 평당 95,000원

010-4661-7734
010-3848-2452

사찰 운영난에 경영 수업 뛰어든 수행자들

마츠모토 스님 · 이데이츠로 씨 운영 '미래의 주지학원' 각광

사찰 주지들에게 경영법을 지도하는 '미래의 주지학원(住職塾)'이 일본 불교계서 각광받고 있다. 초고령화, 불자 수 감소 등으로 일본 사찰들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찰이 불교식 상례(喪禮)를 도맡고 시민들은 재정적 지원하는 형태의 단가(檀家) 제도마저 수요가 급감한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3월 21일 사찰 주지 스님들을 대상으로 경영 수업을 진행하는 정토종 본원사(本願寺)파 승려 마츠모토 쇼우케이(松本紹圭 · 37) 씨와 '미래의 주지' 강사이자 대표이사 이데이츠로(井出悦郎 · 37) 씨와 인터뷰를 소개했다. '미래의 주지'는 사찰 주지 스님들을 대상으로 마케팅과 재테크, 재무회계 등 경영 수업을 진행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 입학 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마츠모토(이하 마): 2012년 처음 시작할 때는 도쿄, 교토, 히로시마, 카나자와 총 4개 도시서 5개 수업을 개강해 약 80여명이 수강했다. 올해 4월 시작되는 6기는 9개 도시서 125명이 입학할 만큼 수강생이 늘었다.

이데이츠로(이하 이): 주지에 대한 경영 수업이 이제 막 각광받기 시작했다. 수요가 더욱 커질 10년 후를 대비해 사전대비 형태로, '미래의 주지' 강좌와 도시를 늘리고 있다.

– 학원을 시작한 계기는?

마: 대학 졸업 후 도쿄에 있는 절로 출가했다. 사찰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하다보니 지방 사찰들의 경영난이 눈에 들어왔다. '그나마 도쿄니까 이 정도라도 운영되지, 시골 사찰엔 파리만 날리겠지'란 생각이었다. 각 지역마다 사찰의 역사와 특성을 동시다발적으로 확장해야 불교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엔 부처님 가르침을 포교하는 일만 주력했지, 어떤 사찰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초고령화 · 불자 감소 경영난
작은 단위 사찰 더욱 심각
주지 스님 대상 경영전략 전수
마케팅 · 재무 등 교육과정

– 두 분이 대학동기라고 들었는데?

이: 맞다. 마츠모토가 '미래의 주지' 설립에 대한 자문을 구했을 때, 난 도쿄의 경영컨설턴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난 매 분기마다 결과에 쫓기면서 자본주의의 한계를 느꼈다. 내가 돈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된 것 같았다.

그때 마침 불교계 교수들과 스님들을 일적으로 만났는데, 그들의 인품에 반해 '행복의 힌트가 불교에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초창기엔 회사에 다니면서 일과 외 시간에 마츠모토와 그들의 일을 도왔는데, 2012년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미래의 주지'를 창립하게 됐다.



일본서 각광받고 있는 '미래의 주지학원(住職塾)' 설립자 승려 마츠모토 쇼우케이(松本紹圭 • 사진 왼쪽) 씨와 강사이자 대표이사 이데이츠로(井出悦郎) 씨.
사진출처=미래의 주지학원 공식 홈페이지.

– 수행자가 경영을 배울 필요가 있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마: 물론 경영은 기업만 하는 것이란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도 있다. 하지만 사찰도 사회 전반 및 경제 구조와 뗄 수 없는 사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다음 세대로 바통을 이어주기 위해선 사찰도 조직 운영에 대해 배워야만 한다.

– 주지가 꼭 경영해야만 하는가? 경영 전문가와 손을 잡는 방법도 있을 텐데?

마: 사찰만의 독특한 운영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일반 경영인이 혼자 하는 것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인에게 맡기더라도 주지 스님은 최소한 사찰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한다. 우린 그것을 가르친다.

– 사찰 경영이 중요한 이유가 '사찰이 존속돼야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사찰은 각 지역의 토착화돼 고유의 지역성을 나타낸다. 사찰이 없어지면 그 역사와 전통이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할 곳이 필요하다.

마: 미래 불교에선 고대 선승과 같은 선지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엔 선지식을 중심으로 각 종파가 발전하고, 선지식이 주석한 절들이 성행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지역의 작은 단위 사찰들이 불교문화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 때문에 작은 사찰일지라도 운영 기초를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박아름 기자

비구니 출신 예술가 라텍스에 '흠뻑'

담초 다이슨, '라텍스 의상과 불교 의식' 논문 연구

비구니 스님이었던 한 여성이 라텍스 애호가로 변신, 라텍스와 불교의 공통점을 다루는 박사논문을 쓰기로 마음먹고 크라우드펀딩을 하고 있어 화제다.

영국 남동부 원즈워스에 거주하는 담초 다이슨은 티베트 불교에 귀의해 비구니 생활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런던 왕립미술아카데미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불교의식의 이해-보디 언바운드'를 주제로 라텍스 재질의 옷을 입고 거리 모금을 하고 있다.

담초는 그의 고향인 멜버른에 있는 가톨릭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신비주의와 티베트 불교를 공부했다. 당시 예술 활동하던 그는 어느 날 자신이 비구니가 되길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담초는 2001년 예술계를 떠난 후 그의 전 재산을 팔고 프랑스의 한 사찰에 출가했다. 10년간 비구니 생활을 한 그는 티베트 불교 의식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불교 의식은 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식에 관한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그것을 '마음의 과학'이라고 말했다"며 "나는 인간의 충동적 행위와 그에 따르는 제약에서 자유롭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인도에서 수행하는 동안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고 2011년 사찰을 떠났다. 사찰에서의 생활과 맡은 소임들이 그에겐 버거웠기 때문이다. 사찰에서 나온 그는 2012년 런던에 정착하기 전 호주, 프랑스 등을 떠돌았다. 영국에 정착한 그는 라텍스에 대한 관심을 발견했고, 불교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담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보면, 라텍스는 현존하는 소재 중 체형에 상관없이 가장 모던하고 관능적인 방식으로 몸을 감싼다"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소재는 아니지만 아주 섬세한 소재여서 우리의 마음과도 같다"고 말했다.


비구니 스님이었던 한 여성이 라텍스 애호가로 변신해 불교 의식을 주제로 한 박사논문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하고 있어 화제다. 사진출처=가디언

또한 담초는 불교적 의식이 일상에서 어떻게 사라져 가는지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

담초는 "런던왕립아카데미의 감독관을 만나 불교 의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창의성과 창조성을 탐구에 대한 열망을 내비쳤다"며 "감독관은 티베트 불교와 라텍스예술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졌고, 우리는 함께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는 20대 중반 아티스트였을 시절 내가 의도하는 것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30대에 비구니 시절에는 내 몸과 마음에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 속에 있는 형태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40세가 된 지금 내가 의도하는 것은 표현을 위해 구체적인 무언가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라텍스는 그러한 행동을 하기 위한 장난기 있는 방법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아프간서 발견된 3~5C 불상 대중에 공개

메스 아이낙서 2012년 발굴
"두상 함께 발견된 경우 희귀해"

15세기 이상 흙속에 파묻혀 있던 불상이 아프가니스탄 국립 박물관(National Museum of Afghanistan)에 전시됐다.

'Artnet news' 3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3~5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이 일반 대중에 공개됐다. 이 불상은 2012년 아프가니스탄 유적지 메스 아이낙(Mes Aynak)에서 발견됐다. 장시간 흙속에 파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상은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불상의 머리가 발굴 당시 떨어져 나갔지만, 머리가 함께 발견됐단 것만으로도 놀라움을 안겼다. 대부분의 불상의 머리가 탈레반에 의해 파괴됐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복원 전문가 에르마노 카르보나라(Ermano Carbonara)는 "머리가 함께 발견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면서 "머리는 본체와 조금 떨어진 틈새에서 발견됐다. (탈레반에게 발견되기 전)머리가 떨어진 것이 오히려 다행인 일로, 형태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프가니스탄 국립 박물관이 2012년 메스 아이낙에서 발견된 불상을 대중에 공개했다.

한편 메스 아이낙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서 동남쪽 40km 떨어진 로가(Logar)주에 위치한 5천년 된 불교 유적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약 1,000억 가치의 구리가 매장됐다고 알려진 메스 아이낙을 중국광물공사에 30억 달러(한화 약 4조원)를 받고 개발권을 팔았다. 이에 중국의 구리광산개발로 메스 아이낙은 훼손 위험에 처해있다.

〈본지 1043호 18면(2015.05.07.), 1081호(2016.01.27.) 보도 참조〉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中 "양국 관계 해치지 말라" 印에 경고

달라이 라마 인도 방문에 중국 분노

지난 3월 17~19일 달라이 라마가 인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중국이 인도에 강력히 경고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3월 21일(현지시간) "인도가 분쟁 해결을 위해 달라이 라마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달라이 라마는 인도 문화부의 초청으로 지난 17~19일 열린 국제불교대회 개막식에 참석, 강연자로 나섰다.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두고 중국 전문가들은 일제히 비난했다.

왕더화 상하이 국제관계학원 연구원은 "인도가 분리주의의 상징인 달라이 라마를 초청한 것은 도발을 통해 남티베트 문제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라며 "인도의 이런 행위는 스스로 화를 자초할 뿐 아니라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정상적인 논의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의 달라이 라마 초청에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한다"며 "티베트 문제에서 철저히 약속을 지키고 중국의 핵심적인 관심을 존중해 양국관계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제53회 미래복지포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헌법의 평등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불교계 역시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장애인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복지의 역할을 모색하는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주 제 :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 일 시 : 2017년 4월 7일 (금) 14시
■ 장 소 : 영등포장애인복지관 대강당
■ 대 상 : 사회복지 종사자 및 관심 있는 누구나 ※ 참가비 무료
■ 접수 및 문의 : 전화 02-723-5102 또는 이메일 leeeumee@jabinanum.or.kr

주요내용
● 발제 1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은 무엇인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 대표)
● 발제 2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호 과제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주 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전선플러그 승하강장치 특허기술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제등행렬 용품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관계와 나를 분리해 두려움 넘어서자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⑦



내면 자각의 개별성 초월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탄핵인용'으로 결정되자 한편에서는 "촛불승리 만세"를 외치면서 '박 前대통령 구속과 적폐청산'에 주력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말도 안 돼"라고 거세게 저항하며 헌재 선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으로 대통령 탄핵은 일단락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모양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흥분상태에서 차기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후보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이끌어갈 통합된 의식을 가졌는지 선택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정권교체, 정치교체라는 시대적 과제가 놓여있어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 거기에 양방의 입장이 너무나 극명하여 쉽사리 통합으로 인한 안정이 올 것 같지는 않다.

명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양편 모두 개인이 가진 에고(ego)가 집단의 에고로 발전하여 엄청난 파괴적 힘으로 대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칫 개인은 물론 사회전체를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에고덩어리를 초월하여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초월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때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이럴 때 난 잠시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어야지' 또는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 포기해야 되겠구나' 같은 생각이 들 때, 나 자신의 욕망이나 성취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자신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각이 개별성을 초월하여 개인적인 문제와 긴장과 불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한 사람 '안에' 있는 동시에 그 사람 '너머에' 있음으로 인해 '사적인 나'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심층의 나'는 그것을 초월한 상태에서 그것들을 인식한다. 켄 윌버(2001)는 그의 저서 〈무경계〉에서 '초월적 나'란 자신의 사적인 마음, 몸, 감정, 생각, 느낌들로부터 초연한 자각의 창조적 중심이자 확장된 자각이라고 했다. 따라서 자신의 내면에 있으면서 자신을 넘어선 이것을 '초월적 나' '내가 아닌 나'라고 말했다.

그는 '초월적인 나'를 직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 문장을 천천히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암송해보자.

나는 몸을 갖고 있지만 나는 나의 몸이 아니다. 나는 몸을 보고 느낄 수 있다. 보이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보는 자가 아니다. 내 몸은 피곤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아프거나 건강하기도 하고, 무겁거나 가볍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내면의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나는 몸을 갖고 있지만 나는 나의 몸이 아니다.

몇 차례 암송한 다음,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확언한다. "나는 그 뒤에 남아있는 순수한 자각의 중심이며, 모든 생각, 감정, 느낌, 욕구에 대한 부동의 주시자(注視者)이다." 이런 훈련을 끈기 있게 지속해 나가면 그 안에 담긴 이해가 공고해지고, 내적 정체감의 근본적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즉 내면의 자유로움, 가벼움, 해방감, 안정감을 직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 불안은 내가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강해질수록, 그 불안에 위협당하지 않게 된다. 불안이 현존해 있더라도 더 이상 그 불안에만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압도당하는 일이 없다. 나는 불안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허용한다. 불안이 사라져가는 것을 단지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불안이 존재하든 안 하든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와 같이 자신을 혼란시키는 감정이나 생각, 기억, 경험이란 모두 자신이 배타적으로 동일시해왔던 것에 불과하다(싫어하면서도 함께함).

켄 윌버는 이럴 경우 그런 혼란의 궁극적인 해소는 단순히 그것들로부터의 '탈동일시(脫同一視)'라고 보았다. 그것들이 자신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말끔히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보이는 대상이기 때문에 진정한 보는 자, 진정한 주체일 수 없다. 이런 탈동일시를 서서히 추구해 나가면, 지금까지 자신이 필사적으로 보호하고 방어해왔던 나(자아)가 투명해지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사적인 나-나의 소망, 희망, 욕구, 상처 등-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건 생사가 달린 심각한 문제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하면, 어떤 상태를 주시하는 것은 이미 그 상태를 초월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 특정한 근심이나 걱정을 '관찰'하는 것이다. 괴로움을 판단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각색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단지 그것을 순수하게 자각할 뿐이다. 문제는 괴로움 자체가 아니라 그 괴로움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다. 우리가 괴로움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주시자가 되어 대상을 관찰하는 다른 예를 들어보자. 잭 콘필드(1993)는 다음과 같이 갈등해결을 위한 안내를 했다.

> **불안과 나는 별개라 생각**
> **동일시 않도록 노력해야**
> **소유자 아닌 관리인으로서**
> **나만 옳다는 생각 버리자**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기억하고 상상하며 생각하고 느껴봅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장면, 그 때 있던 사람들, 괴로움,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다시 생생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런 지점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자기 행동은 어떤지,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바라봅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마음속 문에 노크소리가 들린다고 상상해 봅시다. 몸을 움직여 문밖으로 나가봅니다. 그곳에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나 붓다, 성모마리아 혹은 우주의 위대한 여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 중 한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다정하게 당신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사는 게 참 힘들지요? 자, 우리 자리를 바꿉시다. 나에게 당신 몸을 빌려주세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줄게요. 내가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동안 당신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붓다나 예수, 성모마리아에게 빌려주고, 투명해진 몸으로 그들을 따라 자신의 괴로움이 절정에 이른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와 같은 장면이 진행되도록 두고,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그냥 바라만 봅니다. 예수, 붓다, 성모마리아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침묵으로? 어떤 에너지로? 그들은 어떤 말을 할까? 그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그들의 몸 상태는? 그들의 대처방법을 지켜봅니다. 그들이 행하는 동안 줄곧 옆에서 관찰합니다. 그런 뒤 그들은 잠시 후 당신을 만나러 돌아옵니다. 그들은 가만히 당신의 몸을 돌려줍니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당신을 지극히 감미롭게 어루만지며 귀에다 몇 마디 충고의 말을 속삭입니다.

고통의 상황서 탈동일시

이러한 명상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비상한 지혜나 사랑 혹은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 과정에서 나타난 성자들의 지혜는 바로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안내에서처럼 나의 '진정한 보는 자-성자들의 지혜'가 고통이라는 상황과 탈동일시 한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기초월이 가능할 수 있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하나,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소유자에서 관리인으로 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소유물에 지나치게 애착이 심한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한다. 실제로 나에게 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다.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 대해 나는 그저 '관리인'에 불과하며, 그것도 그 물건이 다른 누군가의 삶 속으로 넘어갈 때까지 뿐이다.

둘, 내가 옳다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내가 어떤 특정한 의견이나 입장을 고수할 때 사용한다. 만일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 그냥 순순히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당신의 관점이 그렇다는 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혹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을 존중해준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위치에서 보기 때문에, 각자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나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따라서 옳은 자는 아무도 없다. 옳고자 노력하며 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드는 일이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적이다.

셋, 나 자신과 상황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나 자신의 행복이 타인들 행동의 결과에 좌우되지 않음을 상기해야 한다.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만 행복할 권리를 허용하겠다며 스스로를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어떤 일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만족한다. 행복은 선택이며 결정이지 남들에게 달린 것도 아니다.

넷, 다른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상해 본다. 지혜롭다고 여기며 존경하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고, 그였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잠시 상상해 본다. 이렇게 하면 '나의 방식'을 고수하는, 정신으로 움켜쥔 손의 힘이 다소 풀릴 것이다. 만일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경우엔, 그들 같으면 어떻게 대응할지 물어본다. 이런 대화만으로도 나의 의식 안에서 초연한 관점이 투명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권력이든 사람이든 집착하게 되면 그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그 관계와 나를 분리(탈동일시)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자각하게 되고 자유로울 수 있다.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안에' 있는 동시에 '너머에' 있음이 확고하다면 나를 초월해 살 수 있지 않을까?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인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인 깊은 선정삼매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 (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체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4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 첫번째 공부모임을 갖게되었으니 동참 가능한 분은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證悟" 왜 올바로 깨치면 自己認可 '究竟覺'를 성취하는 것인가 공부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 깨달아 가는 전 과정을... 특히 깨닫는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또한 깨달은 후에 성성함 "깊은선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험되는 현상경계를 참구자에게 자세히 설해 드립니다.

문의 傳法講主 釋眞性 010-3045-008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12번지 심우선원

☎ 031-255-0066

오천만원의 평생인연

회향선원에서 평상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회향복지원 1인 1실 평생 거주할 수 있고 원룸식으로 분양합니다.
장례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1인 1실 계약금 2천만원 공사 시작과 동시에, 올 9월 예정 중도금 2천만원은 공사중에 내시면 되고, 입주시 1천만원 잔금을 내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70세 이상분만 가능하지만 분양을 미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집인원은 남 · 녀 평생 모십니다.

- 1인 1실 :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2천만원 입주시 1천만원
- 부부실 : 계약금 3천만원, 중도금 4천만원 입주시 3천만원

【 1층 - 부부 4쌍 8분 / • 2층 - 거사님 4분 】

병자나 암 환자도 들어오시면 사찰음식으로 식단을 만들어 드리고 명상과 운동, 기도로 병 쾌차발원을 도와 드립니다.
혜명스님과 평생 가족이 되실 분은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공덕을 다른이에게 바치는 회향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 되어 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 문의 : 회향선원 010-3771-7575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대행 스님

우리가 한 철 날 때에 이 영원한 이 뜻을 꼭 알아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없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손자가 왔을 때는 할머니가 되고, 금방 남편이 들어오니까 아내가 됐습니다. 자동적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하니까 금방 어머니가 돼 버렸죠. 그렇듯이 어떤 것이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듯이, 여러분이 애기 적이 나입니까, 젊었을 때 나입니까, 늙었을 때 나입니까?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름해서 부처라고도 하고 이름해서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놓고선 상표처럼 내 거니 네 거니 그런 싸움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 속에 진짜 알맹이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서울에서도 기독교, 가톨릭교, 무슨 알라신교 이런 거 모두, 불교든지 모두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원에는, 선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한테 마음을 아주 공편하게 이끌어 준다고 그럴까요? 누구한테든지. 한 가정에도 남편이 술을 먹고 때리고 온통 집안을 부숴 놓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진짜로 건지려면 말로 하지 말고 이 마음 주인공 자체에, 모든 것은 주인공, 너도 주인공이 있고 나도 주인공이 있으니 주인공에 스위치를 눌러 놓으면, 거기에서밖엔 해결 못한다 하고 맡겨 놓고 평등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받아들여 주고 또는 부드러운 말로 해 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이럭할 때는 그 사람 마음이 슬그머니 봄눈 녹듯이, 아니 추운 겨울의 얼음이 녹아서 봄이 되듯이 그렇게 녹아 버립니다. 녹아 버리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그 모든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달라집니다. 서로 전기가 들어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자식이 나쁘게 해도 "저놈의 새끼, 나가서 뒈지지도 않아." 이런 욕들을 하는가 하면 남편이 나가서 저거 한다면 "저놈, 저놈! 오다가 차에라도 치여 죽지 않아." 이런 소릴 하는 걸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는 것은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이 마음 하나가 그렇게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일 수도 있고, 사랑을 가져오고 구덩이에서 건져 낼 수도 있는 이런 위력을 가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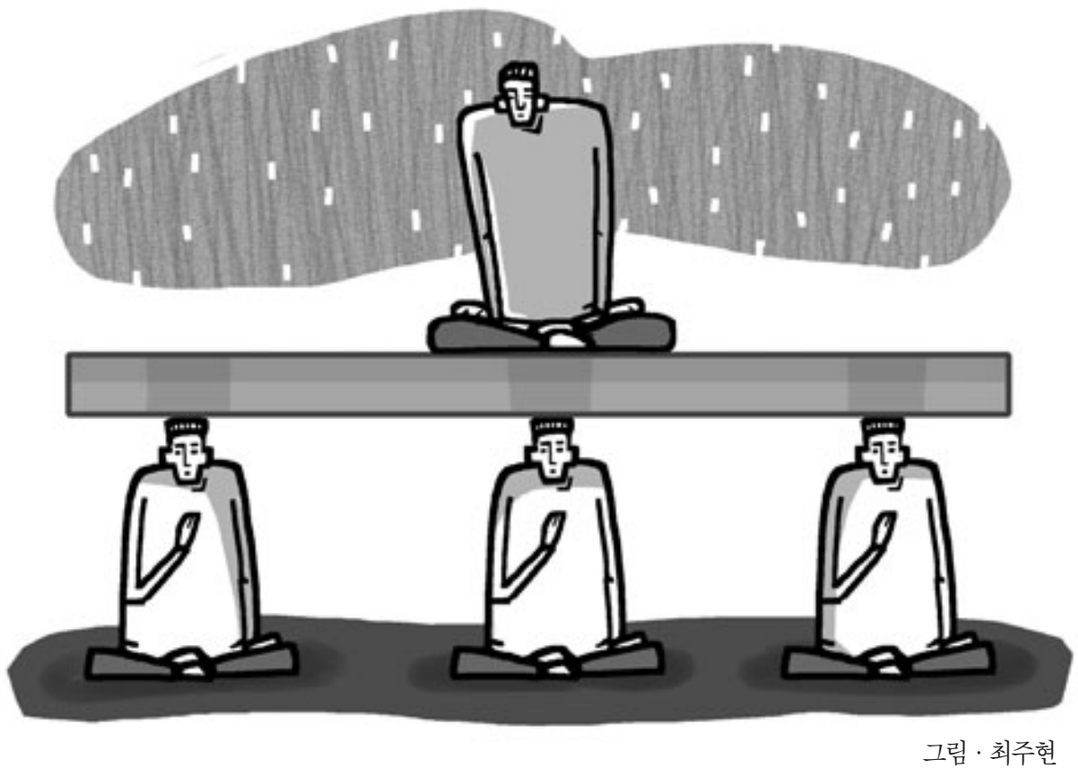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리고 여러분은 불교에서도 그렇고 모두 타의에서 구하는데, 요만한 꼬리표 하나 붙여 놓고, 요만한 전등 하나 켜 놓고 그걸 인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될 일입니까? 마음을 냄으로써 그것이 마음의 인등입니다. 마음을 냄으로써 마음이 밝아짐으로써, 이건 자가발전소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생각을 잘하면 그게 인등을 백 번 천 번 켠 거보다도 더 위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깝게 내 보배를 내가 두고도 써먹지 못하고 항상 바깥에서 그런 꼬리표나 붙이고 다니고 이러는 마음이라면, 여러분이 귀신 짓을 하니까 귀신이 있는 거지 귀신 짓을 하지 않는데 어찌 귀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투철해야, 세 가지가 투철해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동일하지 않으면 따르질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행과 말과 마음 이 세 가지가 동일해야 돼, 따르는 것도. 믿으라는 게 아니야. 고깃덩어리 믿으라는 게 아니야. 이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상표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허공 믿으라는 것도 아니야. 자기한테 직결돼 있거든, 모두가. 그래서 모든 것을 누가 잘못했다 잘됐다 하기 이전에 자기부터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까닭에 자식도 잘되게 할 수 있고 또는 남편도 잘되게 할 수 있고, 부모한테도 묵은 빚을 갚을 수 있고 자식들한테도 햇빛을 영원히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살면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몸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의식의 차원이 삼차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차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차원대로 의식이 이 세상에 또 출현을 할 겁니다. 콩 난 데 콩 나고 팥 난 데 팥 나듯이.

그러니 지금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사람도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모여 있고 또는 공학을 하는 사람은 공학, 생물학을 하는 사람은 생물학, 천문학을 하는 사람은 천문학,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물건도 보십시오. 가게 좀 가 보세요. 사과는 사과대로 놓여 있고 배는 배대로 놓여 있습니다. 금은 금대로 놓여 있고 넝마는 넝마전에 놓여 있죠. 그러니 누가 갖다 놓고 안 갖다 놓고 간에 금 있는 덴 금이 모여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그 도리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책은 거름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싹을 내고, 씨가 터서 싹을 내고 바로 열매를 맺게 해서 그게 무르익으면 그 무르익은 과일 하나가 만 가지 맛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위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무르익은 과실 하나에는 내년에 심을 씨도 또 있거든, 맛도 훌륭하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철 날 때에 이 영원한 이 뜻을, 이 도리를, 이 법을 모른다면 싸우다가 볼일 못 보고 항상 그렇게 살다가 마음세계로 승진을 하느냐, 냄새만 맡고 사는 하세계로 좌천을 하느냐는 문제가 있죠. 여긴 삼차원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로 걸러 내는 세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잘못 쓰면 그렇게 한 가정이 파괴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천궁행하는 데 사랑을 하도록 하는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남한테 내가 물방울 하나도 얻어먹은 사이가 없겠죠. 그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아프다고 한다면 천리만리에서 전화가 와도 "예, 알겠습니다." 공손히 대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몸뚱이는 강을 건널 수 없지만 마음은 강을 건너고도 남음이 있고 은산철벽을 뚫고도 남음이 있고 불구덩이에도 타는 법이 없죠.

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살아가시면서 의식은 벌써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만 말하죠. 또 산이 높으면 우리가 넘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죽어도 높은 데 못 건너가고, 빠져 죽을까 봐 못 가고 불에 타 죽을까 봐 못 가고 아이, 이러니 자기 갈 자리를 가겠습니까.

승천이니 천당이니 하는 것도 자기가 현실에 그 도리를 알아야지. 또 알면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지도 않아요. 그런 언어도 붙지 않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이죠. 길을 알기 때문에 걱정도 안 하죠. 무슨 천당 지옥 이런 언어도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갈 길을 걱정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난 "흥, 사람이 죄가 뭐 있던가. 모르는 게 죄지." 항상 그러죠. 나는 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난 팔자가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운명이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먹고 한생각을 잘못하면 팔자를, 운명을 그렇게 가져올 것이고 한생각을 잘하신다면 팔자 운명은 바뀌지고 체질도 바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교다 가톨릭교다 기독교다 이런 걸로 인해서 대립이 되고 싸우고, 기독교끼리도 대립이 되고 싸우고 신도를 세워서 강당을 팔고 이러는 장사꾼이 되지 맙시다. 또 불교도 역시 뼈다귀를 팔고 우리고 이름을 팔아서 목탁을 쳐서 먹고사는 중이 돼서는 절대로 또 아니 되겠고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누가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몸뚱이는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 A18면으로 계속

염불(범음·범패)
무료교육
염불(범음 · 범패)을 배우고 싶으신 회원을 초대합니다.
염불 뜻을 알아야 소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 수 강 료 : 무료
■ 자 격 : 삭발 염의한 스님
■ 강의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 교육내용 : 천도의식 뜻 해설 및 소리 (영남소리), 사물, 바라작법, 공양작법
■ 강 주 : 자운 스님
바라, 공양작법 - 해인 스님
■ 문 의 : 여여불음원
☎ 055)744-5300
❖회 비 : 십만원
단, 회비는 부처님 성지순례(1~2년 마다) 여행비로 비축
• 본인 염불소리 전문 녹음 및 CD제작 가능 •
여 여 불 음 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어옥로 232-72 여여암

건강을 위한 하루 한시간!
선무도
고요히 나와 마주하는 선호흡
굳은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선요가
지친 심신에 활력을 주는 선무술!



선무도 기초 과정 모집 중!
서초 02-599-5554 서대문 02-735-5349
송파 02-3431-4889 종 로 02-763-2980
www.sunmudo.kr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 (사)세계선무도총연맹

무료공개강좌
(연결카페 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3월 31일(금), 4월 3일(월) 오후 2시~4시
■ 대 상 : 명리왕초보반(영가기초 포함)
영 가 특 강 반(포교원 운영자)
■ 강의내용
① 한 맺힌 조상 찾는법,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② 천도는 얽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서 해야 효험이 빠르다.
③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으며 영가를 정확하게 뽑아낸다.
④ 매사에 장애가 있고 사업을 해도 귀신에 씌운듯이 일이 안풀릴 때
⑤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⑥ 신경성, 우울증 등으로 마음안정이 안되거나, 공부가 안되는 학생
명리왕초보반강좌
듣기만 해도 기억되는 쉬운오행풀이, 한자 몰라도 됨
교육기간 : 기초반 3개월 과정 모집
기초가 없으신 분은 초보반 수강후 영가반에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백 암 역 리 원
02)597-1101.010-9150-2284
7호선장승배기역 3번출구(동작경희병원옆) 동작구 상도동 191-4

육임 직접 강의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등을 직접 강의합니다.
육임의 대가 운암스님께서 1:1 직접 강의로 수강 완료 후 즉시 개별 상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교 수 : 법연정사 운암스님
과 목 :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명리, 성명학
강의시간 : 1년 과정 (매주 5시간 강의)
수 강 료 : 대육임, 육임금구결, 월령도 } 각 60만원
주역,명리,성명학 - 각 40만원
강의장소 : 법연정사
(경기 구리시 교문동 233-15 2층)
연 락 처 : 031)554-3336
010-5931-3319
법연정사 운암 합장

지금 누가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 A17면에서 계속

여러분, 그것을 진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지조를 잘 지키시면서, 한국 분들도 한국의 지조를 지키시면서 우리가 서로 한마음으로 뭉쳐서, 열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리려면 살릴 수 있지만 열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려면 금방 죽이고 금방 미치광이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다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 말마따나 서로 자비를 베풀면서, 한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것은 말없이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마는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하십시오. 이렇게 질문하시다 보면 아주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아우트라인만 듣고서 하는 것보다도, 이론 쪽으로만 이렇게 흘려버리지 마시고 진실하게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법을 우리는 모두 배워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질문자1(남) 아까 자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자유를 말씀하시는지요. 그 어떤 종교라든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도 자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데 속해 있으면 저희가 자신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자유를 말씀하시는지 그걸 대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랑이라고 그러면 마음적인 사랑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여러 가지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육체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이 있는 걸로 보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가장 힘 있는 사랑이 될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말을, 사랑이라고 말을 해서 사랑은 아닙니다. 단하나, 지금 아들이 나갔다고 봅시다. 이 지금 무의 세계, 무심적으로 얘기합시다, 이게 진짜 사랑이니까. 그런데 늦게까지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얘, 너도 주인공이 있으니까 너를 끌고 다니는 너 주인공만이 빨리 데리고 들어올 거야, 아무 사고 없이.' 하니까 빨리 들어오거든요. 응? 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철학이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은.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이…. 여러분은 그런 걸 한번 실험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실험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건 뭐죠? 난 잊어버렸으니까요.

질문자1(남) 아, 자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

큰스님 자유, 참. 자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스럽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몸에 모든 생명들의 의식이 있습니다. 안으로는 이게 오대양 육대주도 됩니다. 이 공장이, 여러 공장이 많습니다. 소임을 맡아 가지고 공장장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느 부분이 정말 파워를 일으켰다 이런다면 '아, 거기서 파워를 일으켰으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밖엔 없잖아.' 하고 모든 입력을 넣는다면 그냥 입력을 넣는 동시에 바로 전체가 움죽거리게 됩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죠? 거기 모든 시스템이 돼 있다고요. 탐지기, 또는 팩스…. 팩스는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신족통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A형인데 저 타의에서, 무정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전부, 이 해산물이나 모두…. 흙도, 진흙도 약이 됩니다. 그게 액체가 있습니다. 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A형을 갖다가 넣으면 기가 일어나듯이, 그러니까 모든 일체 만법을, 모든 걸 자유껏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넣어서, 내가 기가 부족하면 기도 넣어. 그것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알맞게.

내 몸뚱이 내가 더 잘 알아. 내 몸뚱이 내가 더 잘 아는데 그게 아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가 아예 그냥 다 해 버려. 그 시스템이 다 해 버려. 왜냐? 탐지기죠, 팩스죠, 또는 무전통신기죠, 레이더망이죠, 또 망원경이죠, 컴퓨터죠. 허허허. 이것이 다 아주 해 버리거든요. 우리 사는 생활도 이것이 다 해 버리거든요. 이 마음먹고 그냥 해 버리는 거를 여러분은 그것을 한번 실험을 해 보지 못했던 관계상 이러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인인 것입니다. 모든 걸 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바깥에서부터 직결된, 또는 가설이 된 이 우주 전체하고도 우리는 서로, 꽃 이파리 하나하고도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니까요. 날아가는 새들도 같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저 서 있는 돌하고도 대화가 이뤄지고. 이것도 그냥 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 돌아갑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유스럽지 않겠습니까. 아, 새들도 모여서 조잘거리면서 말입니다, 저 집은 어디가 어떻고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런 나무들도 말입니다, 목신이 다 있고, 지신이 다 있고 모두가 자기의 자성신 없는 게 없어요. 생명이 있다 하면 다 있어. 그런데요, 산에 올라가도 모두 친구고 벗인데 아이, 뭐가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또 내 몸이, 이것이 공해 버렸어. 내가 이것도 될 수 있어. 누구를 건지려면 아, 개구리를 건지려면 내가 개구리 속에 들어가야 개구리가 저항력을 느끼지 않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개구리가 돼야죠. 그래서 개구리가 돼야 개구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모든 연구와 더불어 실험과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나는 십 몇 년이라는 세월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불교다 가톨릭교다 기독교다 이런 상표에 놀아나지 마시고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진짜 불교인이라면 불교나 기독교나 따로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이 지구도 바로 내 집이니까 이 지구도 좀 더 수명을 보존하려고 생각하신다면 내 한생각의 그 도리를 아셔야 될 겁니다. 내 몸도 내 맘대로 이끌고 다닐 수 있고 또…. 이런 게 있죠. 익지 않은 콩깍지는 그걸 까려면 속이 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3년도 앓고 그저 4년도 앓고 몇 년도 앓고 이렇게 고통을 받다 죽지만 콩깍지가 익은 거는 건드리기만 해도 콩깍지가 탁 까져요. 그러면서도 콩은 아주 잘 여물었거든요. 그러니 내년도 또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와 같이 인간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차원을 기르면서 사랑하면서 실천하면서, 조금도 욕심은 부리지 말고, 아집이라는 거 이런 것도 좀 빼 버리고 '내가 이런 권세가 있는데….' 이런 것도 빼버리고 그런 걸 하면서도 함이 없이, 권세가 없이 한다면 그것이 바로 너그러운 자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닐까요? 하하. 님은 모두 님이죠. 아름다운 님이시여! 그런 것도 있죠.

나는 항상 시골길도 가면서, 여기 길도 가면서 차를 타면서도 언제나 한 소식 읊고 다닙니다. 왜? 어떤 때는 내 가슴에 아휴, 흙물이 내릴 때가 있고 핏물이 내릴 때가 있고 맑은 물이 내릴 때가 있고, 여러 가지가지…. 그 골짜기에는 너무도, 이거다 저거다 할 게 없이 장마가 들면 그냥 흙물이 내려옵디다. 내 가슴의 골짜기에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인간은 죄도 없고, 모르는 게 죄기 때문에 이런 도리를 좀 더 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는 그저 여기에다가….

서울에서도 보면 정신병원에 그 귀여운 아들들을 갖다 넣고는 그냥 잠자는 약만 먹여서 모두가 살이 비대해지고 허청 걸음을 떼고, 죽을 때만 바라고 있는 그 부모의 가슴 아픈 거를 생각할 때 기가 막힌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기 와 보면 마약 중독 또는 길에 늘비하게, 뉴욕의 맨해튼에서도 보면 그냥 늘비하게 드러누워 있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또는 자식을 귀엽다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도 그냥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몰려다니면서 그런 거나 하고 저런 거나 하고, 그렇게 하고 다녀서 어머니가 땅을 두드리고 우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자로 인해서 서울은 지금 무척 혼란이 일고 있고, 지금 여기도 내가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제 생각으로 쭉 한 번 본다면 청년들이 많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생명들을 죽이고 이기고 그러려고 그 모든 것을 연구하는데, 무슨 핵이라든가 수소폭탄이라든가 이런 거는 옛날에 벌써 만든 거지마는 지금도 잠수함 이런 쪽으로, '어떡하면 작으면서도 큰 거를 해칠 수 있을까' 이런 걸로 연구들을 하기 때문에 공해가 앞으로는 점점, 지금 삼분의 일이 왔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삼분의 이가 온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기를 자기 소임껏 넣어서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자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만 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 즉 말하자면 여기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보지 못하시죠. 그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보지 못해도 전기가 들어와서 밝은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 그 액체도, 에너지도, 모든 것을 가져오는 것도 오는 사이 없고 갖다 주는 것도 가는 사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죠. 여기 미국 분들도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 그런다고 엊그저께 와서 울부짖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장님이 "아이, 이 부인을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다니 어떡합니까?" 그러더군요. "응, 무조건이야, 무조건. 몰라서 죄지 알면 죄를 저지르지 않아. 모두 사람들이 괴로운 것도 몰라서 죄지, 모르니까 괴롭지 왜 괴롭겠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그것은 그저 알았다고, 열심히 주인공밖에는 해결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보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지금 며칠 안 됐지만 완전히 자기가 자기를 고칩니다. 왜? "아휴, 스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있어, 이 사람아. 그러니까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당신이 고친 거지. 그러니 당신이 언제나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그렇게 살면 스스로 자유인이 되고 스스로 재생인이 돼. 남들도 그렇게 건질 수가 있어. 그러니 그 도리를 알면 그것이 바로 생활 종교고, 그것이 바로 진리고 참선이고 그런 것이지, 뭐." 이러곤 말아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도 진짜 사랑을 하는 그 마음으로써 한 생각을 던져 준다면 그렇게 큰 공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게꾼 이야기도 그런 공덕을 주지 않고 나무 한 짐으로다가 갚으려니 어떻게 그런 생각밖엔 없느냐고 그렇게 작대기로 맞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 것은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여유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종교 싸움을 하지 맙시다. 하하하, 내가 이런 것을 진짜로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또 질문하시려면 하시죠.

질문자2(여) 스님, 앉은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스님 예.

질문자2(여) 아까 여러 번을 나, 나 하셨는데 나라는 걸 어디다 기준을 하십니까? 이 깨친 자리를 기준하십니까, 이 다리와 몸뚱이를 나라고 합니까?

큰스님 아니죠. 나라는 건 없는 거죠. 여러분, 나라는 것은 모두 여러분과 전체가 나, 납니다. 모두 각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이럴 때 각자 하나님을 믿으랬으면 빨리 알 건데 편집을 잘못해 놨을 거야, 아마. 허허허…. 나는 그럽니다, 항상. 편집하는 사람이 깨친 사람이라야 그놈의 게 잘됐겠지. 아니, '각자 나'라는 말을 왜 못하고 "나를 믿어라." 이래 가지고선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 나라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죠. 내가 어머니가 됐다 금방 형제가 됐다 금방 딸이 됐다가 아, 부인이 됐다 그러시면서 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여러분이 다 각자 나가 납니다, 이것도 이름해서. 어떡합니까, 말을 하려니까. 하하, 또 질문하실 거 없는지요? 허허허.

그러니 또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아이, 참 여러분하고 재미있게 오늘 저녁 지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과 더불어 한자리를 하게 만들어 주신 우리 사장님, 우리 사장님입니다, 하하하. 참, 감사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위 법문은 1990년 4월 24일 샌프란시스코 미야코호텔 초청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난 팔자가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운명이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청운 락수 클로렐라 <음료식품>



클로렐라 는
식물성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복합 당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소, 염록소, 핵산, 베타 카로테노이드, 플라보이드, 류틴 등의 항산화 재 식물성 영양 성분, 스테롤, 감마 리놀렌산 등 천연의 식물성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보관방법 및 음용방법
냉장 보관하시고 드실 때 밑에 가라앉은 입자는 몸에 좋은 영양소인 미생물 플랑크톤이므로 꼭 흔들어서 드십시오.

그라비올라로 가공하여 만든 이 클로렐라 음료는 스님 불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탄생한 음료입니다.
그라비올라는 1976년 미국 국립 암센터에서 잎과 줄기의 추출물은 악성세포를 파괴하여 거의 대부분의 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아마존의 그라비올라는 항암효과 및 면역체계보호, 경련감소, 박테이아궤멸,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피부질환, 기침, 독감, 설사, 소화촉진 등에 좋습니다.

■ 제품가격 : 1병 1만원 (최소 주문수량은 10병입니다.)

제품문의 : 백련사 031)673-1087

佛事의 모든 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일주 올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456-1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5738-3859.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석가세존 제삼심삼 존자 조사
- 12지신 전생의 인연법 -



석가세존 인연법에 따라 자기띠 월에 맞는 존자님께 기도하면 소원성취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행운달마사에서는 제 33조사 존영과 제칠불보살님을 함께 모시어 기도 발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불자님들의 성원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일 마하가섭존자부터 제33대감혜능(육조혜능)대사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사에 알려지지 않은 서른세분의 존상들은 참으로 상상키 어려운 지혜로움과 신통자재하고 무한 자비로운 상호를 갖추고 계십니다. 이에 33존자님들을 황토액자 위에 표현하여 직접뵙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행운달마사 주지 혜용 합장

존자 액자 특징
- 액자는 각 존자님들의 존영을 황토 바탕에 그린것입니다.
- 황토 액자속의 열선이 있어 120℃ 까지 온도가 올라가 복사열이 발생됩니다.
- 인연법에 따른 자기띠에 맞는 존자님을 알려드립니다.

울산 행운달마사 052)242-0108, 010-2003-0658

| 불자 세상보기 |

'대여 에티켓'은 이제 시대 요구



선업 스님
통담아카데미아 원장

소유대신 대여, '렌털족' 확산
렌털시장 25조원 규모 급성장
시장 커지며 明暗도 함께 나와

한복 등 단기 대여품 중심으로
파손 後 배상않는 얌체들 급증
막무가내 소비자로 업체 '울상'

얌체 렌털, 공유경제 역행 행위
현 시대 걸 맞는 에티켓 갖춰야

요즘 무엇이든 소유하지 않고 대여해서 쓰고 사는 렌털족들이 늘고 있다. 비싸지만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하는 물품들을 대여함으로써 공유하는 시장을 '렌털시장'이라고 하는데 정수기, 비데, 안마기 같은 일상용품은 물론이고 가상현실 · 증강현실 기기, 드론 등의 첨단제품까지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

없는 것 빼고는 다 빌릴 수 있는 현실을 사는 렌털족의 화두는 "사느냐 빌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우스개가 있을 정도다. 지난해 25조 9천억 원으로 급성장한 렌털시장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KT 경제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렌털시장에 사물인터넷이 접목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2020년에는 국내 렌털시장 규모가 4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내 렌털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하나는 잘못된 렌털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증가이고, 또 하나는 빌린 물품을 손상하고 배상하지 않는 렌털족의 확산이다. 이 중에서 특히 영세 상인을 울리는 얌체 렌털족들의 부족한 대여 에티켓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의류나 유아용품, 렌터카, 돌잔치 용품 등을 빌려주는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특히 대여기간이 짧은 업종에서 '대여 에티켓'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빌린 한복을 찢어놓고도 배상하지 않고 사라지거나 대여 장난감을 훼손한 상태로 그냥 반납하는 등의 경우가 20~30%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문제를 일으키고 '나 몰라라' 막무가내로 버티는 소비자의 태도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받은 심리적 상처로 가면성 우울을 호소하는 근로자도 있다고 한다.

혹자는 대여 에티켓이 부족한 이들을 '공유 경제 사회의 적들'이라고 비판하면서 렌털의 기반인 "공유경제는 과잉소비로 인한 자원 낭비, 불황과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임을 강조한다. 공유경제가 21세기형 자본주의의 대안체제로서 꼴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이때에 그에 역행하는 행동은 퇴행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택수 한국사회문화원장은 "공유 경제와 렌털 산업규모는 급속도로 커지는데 비해, 이에 걸맞은 에티켓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낯선 경향에 대한 심리 행동적 반응이 아직은 덜 습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덜 습관화된 행동의 이면을 보면 그 곳에는 욕심에 기반한 '자기 권리' 주장이 과하게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의무'의 한계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부정확한 선택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은 법이다.

뢰기나퇴터는 그의 책에서 "붓다의 가르침대로 이웃에 연민을 가지고 내 것을 나누자. 나누고 빌리고 교환하면 물질적으로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새로워지고 단단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즉, 모든 대여 물품에는 타인의 부족함을 채워주려는 무한한 연민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빌림'을 통해 상대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돌려줌'을 통해 나의 고마움을 선물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관계가 새롭고 단단한 관계인 것이다.

바로 이런 바른 사유를 먼저 공유해야 진정한 공유경제의 토대가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나누고 빌리는 일이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좋은 일이라도 그에 수반된 바른 나눔의 예절을 모른다면 관계가 상처로 나뉘고 빌림이 관계를 벌리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이제라도 '대여'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공유하여 '에티켓 부족'의 폐해로 상처 받는 이들이 없었으면 한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기자

양성평등사회와 그 적들

"여자들 국이나 끓이지 대학을 오네", "○양은 줘도 안 먹는 듯", "○○여고 김○○ 성인식 시켜줘야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내용들이다. 말 그대로 '여성혐오'로 점철돼 있다. 이 같은 대화는 누가 나눈 것일까. 부끄럽게도 조계종립 동국대의 한 학과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뤄진 남학생들의 대화다.

동국대 'A과 단톡방 사건 임시대책위원회'는 3월 21일 페이스북 '동국대 대나무숲'을 통해 이 학과 남학생 11명이 2014년 1~4월 여성 20여 명에 대해 상습적인 성희롱을 했다고 고발했다.

대책위원회는 "더 이상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가해자들의 처벌을 학교 측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교내 외의 모든 학우들도, 사건이 정당하게 처리돼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의 처리상황과 처벌, 대책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현재 동국대는 해당 문제를 학내 인권센터에 접수해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기실 남학생들의 단톡방에서 이뤄지는 폐쇄적 성희롱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동국대 뿐만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관동대, 홍익대 세종캠퍼스 등에서도 단톡방 성희롱으로 사회 문제가 됐다.

친한 친구들만을 초대해 구성하는 단톡방은 폐쇄성이 큰 장점이고, 이 안에서 이뤄진 대화들은 외부 유출이 어려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게 된다. '항심(恒心)'이 무심코 나오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더 많은 단톡방에서 은밀하게 여성을 품평하고 혐오하는 행위들이 노소(老小)를 불문하고 이뤄질 것은 자명하다.

이 같은 인식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 문화에 기인한다. "나는 여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여성혐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본 여성학자 우에노 치즈코가 말했듯이 '여성혐오'는 가부장제와 같은 성별이원제(性別二元制) 젠더 질서의 핵이기 때문이다.

좀 더 쉽게 말해보자. 최근 한영외고 보건소식지가 문제가 됐다. 소식지에는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것이 '좋을 때'와 '싫을 때'를 나열했는데, 성차별적 요소가 다분했다. 남자가 태어난 것이 좋은 이유로는 "여자가 강간당했다는 뉴스를 들을 때"가 있었고, 여자로 태어나서 좋은 것은 "힘든 군대 생활 안 해도 될 때", "데이트 비용 남자가 부담할 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성혐오는 남녀 사이에서 비대칭적으로 작용한다. 여성의 강간 뉴스에 안도를 보이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이 성적 지위가 낮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데이트 비용을 남성이 부담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는 여성상도 가부장 젠더 질서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 비대칭적 질서 속에서 여성은 '김치녀'와 '된장녀'가 된다.

남성들의 폐쇄적 단톡방에서 성희롱은 여성혐오이자 멸시이다. "남성 집단의 연대를 위한 의식은 여성을 '공통의 희생자'화 함으로써 이뤄진다"는 우에노의 비판은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는 단톡방 성희롱 사건들에 그대로 부합된다.

양성평등은 이 같은 가부장적 여성혐오 문화가 없어져야 가능하다. 혹여 남성들이 역차별받고 있다고 말하지 말길. 여전히 한국사회는 진급과 임금에서 남성이 더 유리함을 인식하길 바란다. 비대칭적이고 불합리한 젠더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평등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社說

'도반HC', 조계종 재정확충 계기되길

조계종이 사업지주회사 '도반HC(Holding Company)'를 공식 창업했다. ㈜도반HC는 3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서 '창업 선포식 및 사옥 개소식'을 거행하고, 창업 3년 내에 보유자본 50억원 · 총매출 300억원 이상의 성과를 낼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은 '도반HC'를 통해 다방면의 사업을 전개하고 종단 재정 확충에 나선다. 현재 조계종은 예산 대부분을 분담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분담금은 크게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종단 자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도반HC는 부서를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사업 활동에 들어갔다. 10개 분야서 사업을 추진하는 도반HC는 3년 내 순익을 30억 원으로 높이고 4~5개의 직접사업을 운영하며, 분야별 자회사를 10개 이상 갖춘다는 목표다. 3억 원 내외인 종단기여금 역시 15억 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미 다른 종교계는 자체 수익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곳이 가톨릭이다. 가톨릭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100% 출자하는 형태로 2004년 (주)평화드림을 설립해 법인 내 5개 계열사를 두고 의료 등의 물품구매, 건축, 레저, 상조 등의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2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조계종의 '도반HC' 설립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잘 운영될 경우 승려복지 등 큰 돈이 드는 종단 사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또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불자 대학생 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첫 발을 내딛은 도반HC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운영과 기존 불교 업체들과의 상생이 필요하다. 공존과 상생의 기업으로 도반HC가 발전하길 바란다.

대학생 눈높이 포교가 희망이다

3월 입학철이면 대학 광장마다 진풍경이 펼쳐진다. 바로 대학 동아리들이 새내기들을 모집하기 위해 부스를 마련하고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여러 동아리들 중 새내기들의 선택을 받는 동아리는 극소수. 취업난에 대학 초년병부터 동아리 활동을 꺼리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종교동아리, 특히 불교동아리는 소외돼왔다. 많은 불교동아리들이 회원수가 급감하거나 아예 없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불교동아리들 중 기존 인원의 두배에서 세배가 넘는 새내기를 모집한 동아리들이 있어 화제다. 그 비결을 알아보니 바로 명상과 템플스테이,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취업에 도움이 되는 봉사경력 등이었다.

불교동아리가 단순히 법회에 기반한 신행활동의 동아리가 아니라 일종의 문화체험으로 활용되는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실제 활동과정에서 실망하고 불교동아리 활동을 접을 수 있다. 하지만 새내기 포교 초기부터 호응이 높다는 것은 대학생 포교의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

이런 대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포교를 위해서는 대학생 포교 중심 단체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뿐만 아니라 종단 안팎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명상 지도법사를 파견하고, 사찰 템플스테이도 불교문화체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한국불교의 많은 재가불자, 그리고 스님들의 학창시절 일화를 접한다. 대학생 때부터 다져진 신심은 이들이 한국불교를 위해 원력을 세우는 자양분이 됐다. 이제 불교계는 대학생 포교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눈높이 포교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제 11 기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 ■ 예 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일시 : 2017년 3월 中
■ 수업시간 : 초급과정-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진귀 수인(手印) 수행법



수인 수행법은?

80화엄경 제 17품 초발심공덕품에서 법혜보살의 게송중에 〈부처님의 복과 지혜가 무변함과 같아서 수인(手印)을 따라 집착함이 없음이로다〉에 근원한 수행법으로 불가사의하게 지은 집착덩어리를 자연스레 부수어 소멸되는 고멸도성제로 나아가게 하며 이러한 귀한 인연으로 스스로 사대가 강건해짐을 체득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해탈문을 찾는 불가사의한 수행법입니다.

깨달음 산문은?

기존의 각종 기도법 및 수행법과
불교의식을 일체 하지 않는 곳이며,
오직.....
80화엄경을 현대식 버전으로 재번역한
깨달음 경전으로 독경, 사경, 법경
수행을 함과 동시 독창적인
진귀 수인수행법으로 고통 해탈의
문을 여는 순수 수행 단체입니다.

강좌안내

■ 화엄경 강좌 (2시간 강좌)
- 강의일자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봄 학 기 : 3개월 (4월/5월/6월)-월 3회 총 9회 강좌 종료
- 가을학기 : 3개월 (9월/10월/11월)-월 3회 총 9회 강좌 종료
- 휴 강 : 여름 2개월 / 겨울 4개월

■ 수인수행법 강좌 (2시간 강좌)
- 강의일자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봄 학 기 : 3개월 (4월/5월/6월)-월 3회 총 9회 강좌 종료
- 가을학기 : 3개월 (9월/10월/11월)-월 3회 총 9회 강좌 종료
- 휴 강 : 여름 2개월 / 겨울 4개월

▶ 문 의 : 깨달음 산문 1899-9532

2017년 무료공개강좌 覺각說설何하故고!

1차 공개강좌 : 주제 : 깨달음은 마음의 흔들림부터
일시 : 2017년 1월 15일 일요일 오후3시

2차 공개강좌 : 주제 : 집착 그리고 분노
일시 : 2017년 2월 19일 일요일 오후3시

3차 공개강좌 : 주제 : 정견과 사견의 전도몽상
일시 : 2017년 3월 19일 일요일 오후3시

4차 공개강좌 : 주제 : 붓다의 충격?
일시 :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오후3시

5차 공개강좌 : 주제 : 이뭣꼬?의 정체성
일시 : 2017년 5월 21일 일요일 오후3시

6차 공개강좌 : 주제 : 깨달음 경전은 어떤것인가?
일시 : 2017년 6월 18일 일요일 오후3시

7차 공개강좌 : 주제 : 범부의 고뇌와 희망
일시 : 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오후3시

8차 공개강좌 : 주제 : 수행자의 고뇌와 희망
일시 : 2017년 8월 20일 일요일 오후3시

9차 공개강좌 : 주제 : 일승기신론과 대승기신론
일시 :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오후3시

10차 공개강좌 : 주제 : 고통과 병통은 괜히 오지 않는다
일시 : 2017년 10월 22일 일요일 오후2시

11차 공개강좌 : 주제 : 길없는 길속의 내비
일시 : 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12차 공개강좌 : 주제 : 희망은 있다
일시 : 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오후2시

- 강좌일시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강좌참석은 깨달음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가능합니다.



강 사
진귀장자

- 문 의 : 1899-9532

깨달음 山門

NAVER 깨달음산문 검색



좌복이 가지런히 놓이고 부산불교거사림 회원 거사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이들은 45년간 청중으로 때로는 법사로 대중들에게 불법을 전했다. 온화하게 웃는 모습에서는 오랜 수행의 풍모가 엿보인다.

“정법 세계 안내 45년, 1000회는 시작일 뿐”

道伴의 향기 부산불교거사림

‘청중’ 자세로 구법행

백봉 거사 강의 듣고

구법 열기가 모아져

1972년 7월 31일 창립

매달 2회 법석 열어

부산 거사불교 효시

2월 14일 1000회 맞아

법회 동참 총인원 20만 명

〈금강경〉 강의 등 진행

350여 법사 초청해

부처님이 법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중이 있어야 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청중이 성취 되었다’란 의미로 ‘중성취(衆成就)’라 한다. 부처님은 법석에 참석한 청중의 근기에 맞게 법을 설했다. 그 후 대기설법(對機說法)은 팔만대장경으로 탄생됐고 모든 경전의 중심이 됐다.

부처님이 오신지 256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청중이 법문을 청하고 듣는 성취는 법석의 핵심이다.

이런 청중으로서 항상 가르침을 받고 보리심으로 이를 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들은 바를 또 다른 법석을 열어 다른 이들에게 전한다. 매달 법석을 연 기간이 무려 45년이다. 그 주인공인 ‘부산불교거사림’(회장 공병수)을 부산 법계정사에서 만났다.

1000회 넘긴 국내 最多 법석

좌복이 가지런히 놓였다.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에 앉았다. 2월 14일 부산불교거사림은 1000회를 기념하는 특별법회를 마련했다. 그 후 한 달이 지난 3월 14일, 1002회로 열린 법석은 소란스럽지도 별나지도 않았다.

법당에 모인 사람들은 삼귀의로 마음을 잡고 〈반야심경〉을 낭독하며 법을 마음에 새겼다. 청법가로 법사인 스님에게 법문을 청했다. 법석은 기본 중에 기본만으로 갖춰 평범하다. 마치 공기처럼 물처럼 무색무취로 평범해 보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함이 반조돼 비친다.

공병수 부산불교거사림 회장은 이날 찾아온 대중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공 회장은 “한 말씀이라도 들어라!”라고 했다. 이 말을 강조하며 다시 말을 이어갔다. 불교 수행에는 수많은 방편이 있지만 오직 부처님의 한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라 했다. 스쳐 지나가듯 듣더라도 한번 들었던 부처님 말씀은 의문이 되고 언젠가는 수행의 인연이 된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정법포교’는 부산불교거사림의 원력이다. 정법포교란 오직 부처님의 바른 법으로만 포교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법을 듣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부산불교거사림의 법회에는 그래서 대중의 구분이 없다. 오히려 거사림 회원보다 일반인들이 더 많다. 이날은 부산대 로스쿨 불교동아리 법륜회와 동아대 로스쿨 불교동아리 법등회 소속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공 회장은 “젊은이들을 보니 희망적이다. 요즘 TV와 라디오 등 여러 미디어를 통해 많은 법문을 듣는 것도 고무적이지만 대중의 눈을 마주보며 살아 있는 법문을 듣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 회장은 80세라는 나이에도 로스쿨 학생들을 부르는 목소리는 힘찼다.

이 시대 지성인이라는 미래 법조인을 향해 공 회장은 “부처님이 인생의 답”이라며 3000배를 권했다. 공 회장은 “현재 부산불교거사림의 숙제는 법회를 이어갈 젊은 사람들”이라며 “법회의 소중함을 알고 더 많은 불자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은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이 법문을 이었다. 지안 스님은 “성공한 삶을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을 하지만 자신을 모른 채 살아간다”며 대중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 볼 것을 권유했다. 스님은 성공 뿐 아니라 참된 행복의 길을 위해서는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불교는 나 자신을 공부 하는 것”이라며 자신에 대해 숙고하고 생각해 보길 반복해서 설법했다. 아울러 젊은 불자들에게 “스님으로 사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며 한국불교의 수승함을 강조하며 출가를 권유하고 참된 삶에 대한 혜안을 갖출 것을 소원했다.

정법 전법의 교두보로 출발 45년

부산불교거사림의 출발은 단촐했다. 양흥모 대한불교신문(現불교신문) 부산지사장은 1972년 6월 경 한국의 유마거사라 불리는 백봉 김기추 거사를 초청해 금강경 강의를 열었다.

강의에 참석한 거사들 중 김석배, 이인희, 김경수 거사 등 16명은 정기적인 법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기복적인 믿음에 맞춰 설명할 수밖에 없는 스님들의 현실은 공부하지 않는 대중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깊이 있는 법석으로 참된 행복의 길이 불교에 있음을 알리고 자신들의 공부도 성숙하기를 간절히 발원했다.

창립 회원들은 매주 금요일 법회를 열기로 결심을 하고 석암 스님을 증명법사로 추대했다. 이들은 1972년 7월 31일 김석배 거사를 1대 회장으로 거사불교의 효시를 알렸다.

하지만 금요일마다 법회를 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장소가 큰 문제였다. 장소를 구하기가 무엇보다 힘들었다. 9월 29일 통도사 경봉 스님을 첫 법사로 제일 예식장에서 첫 법회를 개최했다. 3개월 후 부산 서면에 위치한 부전예식장으로 법회 장소를 옮기고 나서야 법회를 꾸준히 할 수 있었다.

법당 마련에는 故 이인희 2대 회장의 노력이 숨어 있다. 이인희 회장의 노력으로 무료로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1000여 불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1975년에는 이인희 회장이 2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대중포교를 위한 원력을 더욱 크게 세웠다. 당시 백봉 김기추 거사의 선의 정수를 전해 듣기엔 일반 불자들의 근기로는 역부족이였다.

창립 당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만난 이인희 회장의 부인 박인자(90) 씨는 “근기가 부족했다. 공부 경험이 없는 보살들도 참석을 많이 했다”며 “이인희 회장님은 좀 더 대중적인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많은 이들이 들으면 나중에 인연을 맺을 분은 맺을 것이라며 정성을 다하시더군요. 특히 어린 불자들에 대한 마음이 크셨어요. 대불련 학생들이 오거나 불교학생회에서 찾는 학생들은 법회 후에 불러서 밥을 사주고 차비를 쥐어 주며 격려를 했어요. 학생들을 향한 이인희 회장의 열정은 지금도 잘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이인희 회장은 법회를 매달 2회로 늘리고 둘째 주 화요일에는 종범 스님(前 중앙승가대 총장)을 상임지도법사로 초빙해 정기법회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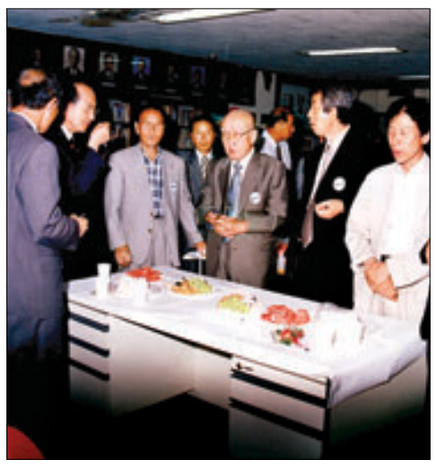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김성우의 ‘염불각자 열전’

B5
문화
호림박물관 ‘시왕도 특별전’

B6
기획연재
고원영의 ‘저 절로 가는 길’



2003년 6월 24일 부산불교거사림 총회에 참석한 故 이인희 전 회장과 거사들의 모습.



법당에 함께 빙둘러 앉은 거사들의 모습이 마치 한가족 같다. 이들은 45년간 동고동락하며 부산 거사불교를 이끌어 왔다.

후배 도반 향한 메시지 "부처님이 인생의 답"



2017년 2월 열린 부산불교거사림 1000회 법회



1976년 6월 창립 4주년 기념 운허 스님 초청법회.



2017년 3월 열린 부산불교거사림 1002회 법회.

"법문 듣는 데 그쳐선 안돼요. 생활 속 실천이 바로 불법이죠"

부산불교거사림은 …

1972년 7월 31일 창립했다. 부산불교거사모임의 효시가 되었으며 법석을 정기적으로 열어 지난 2월 14일 1000회를 기록했다. 45년 법석을 다녀간 동참 인원은 20만 명이었으며 350명 이상의 출 · 재가 법사들이 자리해 법문을 펼쳤다. 현재는 부산 법계정사에서 매달 둘째 화요일과 마지막 주 화요일 마다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부처님법 따라 자비나눔 실천
보건의집 목욕 및 급식봉사
각자 맡은 역할 충실히 진행
여성회원 모임 반야부도 활동

'생활불교 실천, 민생구제' 서원
실천서원 인터넷 등에 공개
"아무리 어려운 일 있어도 모두 함께 힘 합쳐 전법"

'부산불교거사림' B1면에서 계속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법사를 초청했는데 그동안 초청된 법사는 고암 스님, 향곡 스님, 탄허 스님, 운허 스님, 구산 스님, 석주 스님, 관응 스님, 월하 스님, 진제 스님 등 350여명에 달한다.

1978년 10월부터는 고순호 법사가 법회 1시간 전 불교 강의로 체계적인 교리 수업을 진행했다.

당시 부전 예식장 모든 홀에는 부산 대중들이 참여해 가득 찼으며 대불련 어린 학생들도 참여해 의자를 배치하고 정리하는 등 매회 100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뜨거운 법석이 펼쳐졌다.

역대 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표들은 "현재 초대 회원들은 대부분 별세하셨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나 故이인희 회장의 부인인 박인자 씨 등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인자 씨는 1000회 법석을 기념해 3000만원을 후원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박인자 씨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후원금을 전달했는지 묻자 그녀는 조용히 웃기만 했다.

지원금은 말할 내용이 아니라는 듯 손사래를 치며 "돌아가신 이인희 회장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거사림회 활동에 대해 이인희 회장은 전부라셨다"며 "이인희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면 당연히 지금처럼 후원하고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조용히 답했다.

법석 주역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부산불교거사림의 법석이 4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어져 온 것은 이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주인처럼 해냈기에 가능했다.

재정이 없는 회원은 손발이 되었고 어떤 이는 20년 넘도록 법회를 집전을 하며 원활한 법석을 이끌었다. 거사림회의 여성회원 모임인 반야부는 법회마다 음식 공양을 하며 모임을 풍성하게 했다.

반야부 김옥련(63) 불자와 김화자(63) 불자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곳을 지키며 공부하고 봉사했다. 대중들이 도착하면 명단을 정리하고 차를 내리고 꽃 공양을 올리는 일들을 저희가 담당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법문 들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 나눔 봉사를 잊지 않았다. 보건의 집에 가서 목욕봉사도 하고 복지시설을 찾기도 하며 급식 봉사를 담당하는 등 자비나눔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강상호(78) 8대 회장은 1990년대 당시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며 어려움을 극복한 모습에 기쁘다고 했다.

강상호 前회장은 "거사림회에선 20주년을 기념하며 법공양을 위해 법문집을 엮었다. 책 제목이 〈서천에 돋는 해〉와 〈광명의 지혜〉였다. 지금처럼 미디어 시설이 좋지 않아서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돌려 들어야 했다. 당시 책을 집필하는데 앞장섰던 이준우 씨가 엄청 고생을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어서 법회 초대를 위해 일일이 엽서를 적어 보냈는데 그 수가 700장을 넘었다. 일하고 돌아와서 밤새 적으려니 정말 힘이 들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보람이 된다"고 말했다.

김석배 · 이인희 · 임채수 · 김봉창 · 박용준 · 구평옥 · 강상호 · 서건남 · 엄영건 · 김정도 · 배호암 · 최수황 등 역대 회장들의 노력은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병수 회장은 역대 회장 가운데 4회나 회장직을 연임하고 담당했을 정도로 신임이 두텁다.

배종갑(74) 회원과 임우택(68) 회원은 부회장 소임으로 대중을 위한 손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배종갑 부회장은 "어릴 적 부터 눈에 보이는 봉사는 큰 것 작은 것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당시 이인희 회장님과 공병수 회장님 등 집행부에서 믿고 일을 맡겨 주었다. 기회가 되어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뻤고 앞으로도 맡은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임우택 부회장은 회원들이 "없어서는 안될 분이다"며 다 같이 입을 모았다.

임우택 부회장은 끝으로 이렇게 말했다. "50여명의 이사회 회원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좋지 않은 시절에는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외울 정도였지요. 이렇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위해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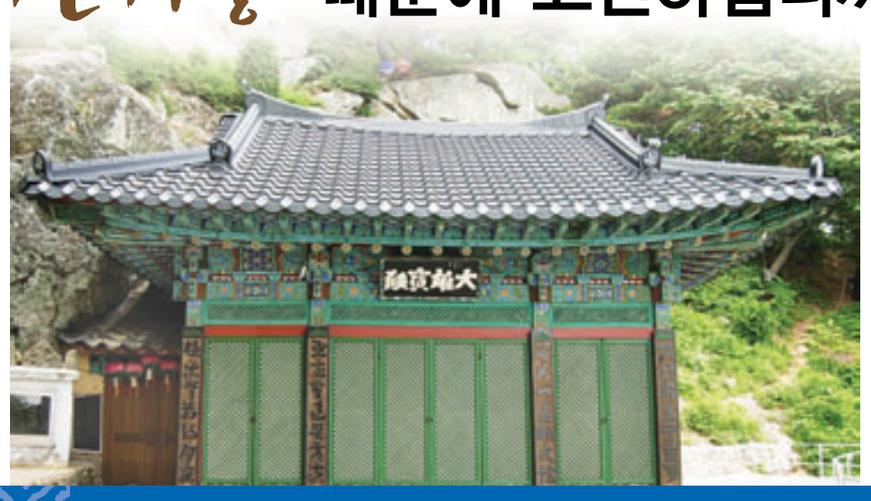
부산불교거사림 홈페이지(bsgsl.co.kr) 첫 페이지에는 실천서원이 적혀있다.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자아 완성과 인격 도야를 통한 민생 구제와 사회 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글이다.

그들은 실천서원 마지막에 "끝까지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는 글을 덧붙였다. 앞으로 1000회를 넘어 1만회의 법석이 이어 지기를,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만방에 퍼지길 함께 발원한다.

하성미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최초의 수행결사 '백련사' 이끈 정토 선각자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⑦ 정토종 초조 혜원 대사

"요사이 선종들이 염불하며 정토를 닦는 이를 보고는 상에 집착하여(着相) 수행한다 하며 비방하고 참선 · 견성하여 진상(眞常)을 돈오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므로, 근기가 천박한 이들은 그 말을 믿고 염불도 아니 하고 경도 보지 아니하며 오염된 삶을 살고 있어서 입으로는 참선을 말하나 마음에는 도를 행하지 아니하며 정토를 비방하고 왕생을 믿지 아니한다. 이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아미타불이 '위없이 깊고 묘한 선(禪)'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귀원직지(歸元直持)〉



여산 동림사에서 30년간 동구불출(洞口不出)

한 · 중 · 일 최초의 수행결사인 백련결사를 이끈 중국 정토종의 초조 혜원(慧遠, 334~416년) 대사는 염불 역시 삼매로 깊이 들어가면 선과 둘이 아님을 몸소 보여준 선각자였다. 생전에 염불삼매를 증득하고 정토법문을 처음으로 중국 전역에 널리 알린 대사는 〈귀원직지〉에서 "참선 · 견성코저 하면 다른 방편을 들 것 없이 다만 한마디 '아미타불'만 가지고 스스로 참구하며 염하여 오래되면 자연히 소득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는 설사 깨닫지 못하더라도 명(命)을 마칠 때 육도윤회를 벗어난 세계인 극락정토의 최고 경지인 상품상생(上品上生)을 얻을 것이라고 설했다.

선종에서는 견성하고서도 확철대오하지 못하면 생사윤회를 벗어나기가 지극히 어려운 반면, 정토종에서는 업을 지닌 채 윤회를 벗어나는(帶業往生) 깊고 묘한 선(禪)이 염불법문이란 것이다.

도안법사의 '반야경' 법문 듣고 깨달아

혜원 대사는 중국 진나라 하동땅 대주 지방의 안문군(雁門郡) 누번현(樓煩縣)에서 속성이 가(賈)씨로 탄생했다. 12세에 이미 유가의 학문을 두루 통달하여 세상사에 집착할 것이 없음을 알았다. 21세에 강을 건너 범선자라는 자와 같이 은거해 살까하여 아우인 혜지(慧持) 스님과 같이 가다가 중원에 난리가 나서 길이 막혀 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때 태행산에 도안 법사가 계신다는 말을 듣고 혜지 스님과 같이 찾아가 예를 올리고는 그곳에서 머물면서 도안 법사의 〈반야경〉 강의를 듣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겨와 쭉정이 같은 것임을 절감한 대사는 아우 혜지 스님과 같이 삭발 · 출가 하였다. 도안 법사는 혜원 스님이 훌륭한 법기(法器)임을 아시고는 "앞으로 이 나라에 불법의 펴짐이 그대에게 달려있노라"고 극구 찬탄하였다.

그때 진나라의 불법은 인도로부터 들어온 지 삼백년이 지나 승풍이 문란해지고 불법이 점점 쇠잔해져 가는 때였다. 혜원 대사가 도안 법사를 따라 각지를 돌아다니다 양양(襄陽)에 머무르던 때 마침 전진(前秦)의 부견(苻堅)이 침공하여 스승 도안 법사가 장안으로 연행되었다. 혜원 대사도 스승과 헤어져 남쪽으로 내려왔고, 호북성 형주 상명사(上明寺)로 옮겼다.

대사는 그뒤 강서성 심양(潯陽)에 이르러 여산(廬山)으로 들어가 서림사(西林寺), 즉 훗날의 동림사(東林寺)에 주석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30년 동안 한 번도 산을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훗날 창작된 '호계삼소(虎溪三笑)'의 고사로 잘 알려져 있다.

대사의 철저한 수행과 교화 활동은 당시의 승풍을 바로잡고 불법을 다시 번창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새로운 수행결사의 중심지가 된 동림사가 창건되기까지 불보살의 보이지 않는 가피가 작용했다는 일화가 〈고승전〉 등 여러 전기에 기록되어 있다.

혜원 대사가 오십 되던 해에 여산에 가 보니 산세가 수려하며 서기가 감도는지라 그곳에서 수행을 하고자 했지만 식수가 없었다. 그러자 대사께서는 주장자(杖子)로 땅을 탁 치면서 말하길 "이곳에 우물이 생길지어다"라고 하니, 즉시 맑은 물이 솟아올라 우물이 되었다고 전한다.

대사는 그곳에 풀을 베고 터를 다듬어 조그만 암자를 지은 후 〈열반경〉을 강의하였다. 그랬더니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다. 산신이 열반경 강의를 듣고 크게 감동하여 신력(神力)으로 하룻밤 새 큰집을 지을 수 있는 많은 재목(材木)과 집터까지 마련해 주었다. 이런 사실이 소문이 나자 그 고을 수령까지 감동하여 절을 크게 지어 동림사(東林寺)라고 이름을 붙여서 드렸다.

대장경 열람 후 가장 효과적인 정토 수행법 선양

그 당시 진나라에는 많은 경전이 미비한 상태였으며 특히 선법(禪法)은 아직 들어오지 않아 들어볼 수도 없었다. 대사는 그러한 선법을 펴려고 사내에 별도로 선실(禪室)을 마련해 놓고 멀리서 선사 한 분을 청해 대중들로 하여금 선(禪)을 닦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수행법이 너무나 어려워서 평범한 근기나 속인들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대사는 모든 경전을 열람한 후 누구나가 행할 수 있고

도안 법사 〈반야경〉 강의서 깨달음
모든 학문은 '겨 · 쭉정이' 절감
원흥 원년 백련사 조사로 추대
〈반주삼매경〉 기초 염불법 펼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행법은 오직 정토법으로서, 염불수행보다 좋은 방편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원흥(元興) 원년(402년), 대사는 승속을 초월한 제자 123인과 함께 여산 산중의 반야대에 있던 아미타불상 앞에서 왕생극락의 서원을 세우고, 백련사(白蓮社)의 조사(祖)로서 추대된다. 스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결사 대중 123인을 비롯해 무려 3천여 명이나 되었으며, 그들은 불철주야 염불수행에 매진하였다. 다만 대사의 염불행은 후세의 〈정토삼부경〉에 기초하여 오직 '아미타불' 염불로 왕생극락을 목표로 하는 전수염불(專修念佛)이 아니라 〈반주삼매경〉에 기초를 두고 생전에 반주삼매(般舟三昧)를 닦는 점이 달랐다.

관불(觀佛)수행으로 16일간 반주삼매에 들다

반주삼매는 염불삼매의 일종으로 부처님을 관하는 관불삼매(觀佛三昧) 또는 부처님이 눈앞에 현전하는 불립삼매(佛立三昧)라고도 불린다. 7일 또는 90일 기간을 정하여 몸, 입, 뜻의 세 가지 업을 청정하게 가다듬어 바르고 온전하게 아미타부처님을 관하고 염한다. 이를 통해 삼매에 들어 눈앞에서 아미타부처님을 비롯한 제불(諸佛)을 친견하고 교화를 받아, 임종시에는 왕생하는 수행법이다. 실제로, 대사는 82세 되던 해 11월 초하루에 정(定: 삼매)에 들어 17일에 비로소 출정(出定: 삼매에서 깨어남)을 해 염불삼매의 깊은 선정력을 보여주었다.

"불법은 왕법(王法)에 종속된 것이 아니다"

중국에 비로소 정토법문과 염불행을 널리 전한 대사의 높은 덕은 당시 서천(西天)의 여러 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되어 '동방의 호법보살(護法菩薩)'이란 칭송을 받았다. 타국의 스님들까지도 혜원대사를 '대승도사(大乘道師)'라 하여 여산을 향해 향을 사루고 예배드리는 자가 많았다. 요나라 임금도 대사의 도덕을 높이 흠모하여 자주 뵙고 법문을 들었으며, 진나라 황제는 대사를 궁전에 모시려고 세 번이나 청했으나 핑계하여 응하지 않았다.

진나라 안제 때는 불법에 사태(沙汰)를 만나 많은 스님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것을 혜원 대사가 상소를 올려 그 환난을 모면하게 되었다. 그 후 다시 모든 승려들로 하여금 임금을 받들도록 하려는 것 또한 대사가 글을 올려 면하게 되었다. 대사는 "불법(佛法)은 왕법(王法)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주장했는데, 이것이 유명한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이다.

임종 7일전 아미타불 · 관음 · 세지보살 현신

어느덧 대사의 세수 83세(416년)가 되었다. 그해 7월 그믐날이었다. 저녁녘에 허공을 쳐다보니 아미타부처님의 금색신(金色身)이 허공에 가득 차보이며 부처님의 원광(圓光) 안에는 무량한 화불(化佛)이 계시며 관음(觀音) 세지(世智) 두 보살은 좌우에 모시고 서계시며 열네 줄의 물줄기가 광채를 내며 상하로 흐르는 가운데, 아름다운 음성이 울려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음성은 고(苦) 공(空) 무아(無我) 무상(無常)의 묘법을 설해주고 있었으며, 그 밖에 가지가지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장엄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모든 광경이 〈관무량수경〉에서 설해 놓은 16관(觀)의 풍경과 하나도 다른 바가 없었다.

이때, 아미타부처님이 혜원 대사에게 말씀하시길 "나의 본원력(本願力)으로 너를 위안해주기 위해 왔노라. 앞으로 7일 후면 나의 국토인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혜원 대사 보다 앞에 세상을 떠난 불타야사(佛陀耶舍)라는 스님과 아우인 혜지 스님과 유유민(劉遺民) 거사 등이 부처님 곁에 같이 있으면서 대사를 보고 읍(揖)하여 말하기를, "법사께서는 저희들보다도 훨씬 앞에 뜻을 내셨거늘 왕생극락이 어찌 이처럼 늦으십니까?"라고 하는 말이 분명하게 들려왔다.

"삼매의 왕인 염불삼매로 윤회 벗어나라"

대사는 8월 1일부터 약간의 병세를 보이더니 6일에 대중이 술로 된 약을 권하니 드시지 않고, 꿀물을 권하니 율사에게 물어본 후 마셨다. 이날 대사는 유언으로 "정성이 지극하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이며, 결정코 극락세계로 접인(接引)해주실 것이니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염불에 노력하여 힘쓸지어다."라는 말을 마치시고 서쪽을 향하여 단정히 앉아 합장하여 염불하고는 세상을 떠났다.

염불종의 창설주로서 '반주삼매'를 강조한 염불법문을 세상에 널리 전한 혜원 대사. 그는 〈염불삼매시집서(念佛三昧詩集序)〉에서 "삼매 중에 가장 공덕이 높고 나아가기가 쉬운 염불삼매를 증득하게 되면 왕생극락은 필연지사"라며 일심으로 염불에 전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평생 참선이나 위빠사나를 해도 득력하지 못한 분들은 가장 간편하고도 효과적인 염불삼매를 증득하여 살아서는 안심을 얻고 숨을 거둘 때는 윤회계를 벗어나 정토에 왕생하시길 간절히 발원한다. 나무아미타불!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3.22~2017.3.2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당신은무엇을먹고사십니까	선재 스님	불광출판사
2	성철평전	김택근	모과나무
3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4	수구즉득다라니	석법성	운주사
5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6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7	붓다컬러링(손끝으로 만드는 마음속평화)	매튜스미스	(주)조계종출판사
8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9	대방광불화엄경강설52(여래출현품3)	무비	담앤북스
10	내안에삶의나침반이있다	법상/용정운	아름다운인연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마음의 봄인 행복에 대해 나눈 대화록



야단법석2

법륜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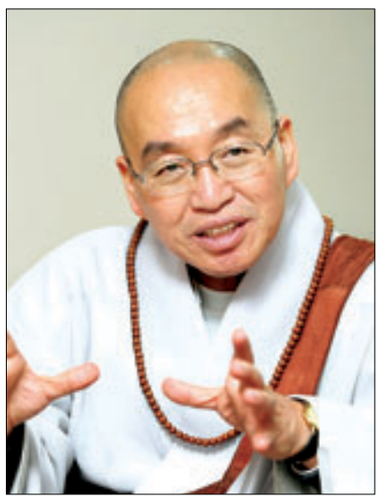
정토출판 펴냄

1만 6천원

법륜 스님〈사진〉의 새책 〈야단법석, 그 두 번째:지금, 여기서 행복하라〉가 새봄을 맞아 출간됐다. 야단법석 1권이 2014년 세계 115개 도시를 돌며 진행한 강연을 기록한 것이라면, 신간 〈야단법석, 그 두 번째〉는 2015년 한해 동안 많은 이들과 마음의 봄인 행복에 대해 나눈 대화록이다.

법륜 스님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강연을 진행한 것은 이미 한두 해가 아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법륜 스님의 대중 강연은 2011년 100회, 2012년 300회, 2013년 100회, 2014년 세계 115회 등 지금까지 1000회를 넘어섰으며 5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강연을 통해 스님과 직접 만났다. 강연이 펼쳐진 장소 또한 구청과 시청 강당, 지역의 공연장, 교회, 성당, 공원까지 사람들이 모여앉아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았다. 강연은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비가 오는 날이나 멈추지 않았고 참가하는 사람 역시 20대 청년, 학생들부터 70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성별을 넘나들었다. 강연의 주제는 또 어떤가. 그날그날 쏟아진 고민과 의문들이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소재가 되어 가족갈등이나 개인의 심리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이슈와 국가전망 등 참으로 다종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래서 야단법석이다. 법당에 마련된 법상서 거룩하게 설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 자리를 펼쳐 누구나 와서 편하게 지혜의 말씀을 듣도록 했다는 원래의 의미 그대로의 야단법석이다. 법륜 스님 강연은 잘 알려진 대로 즉문즉설로 진행된다. 그날 현장서 나온 질문들이 그날 강연의 핵심 소재이다.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질문자는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때로는 스님으로부터 정신이 번쩍 날 만큼 따끔한 야단을 맞기도 한다. 청중은 청중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가운데 공감하고 자신을 돌아본다. 법륜 스님의 강연은 무엇보다 유쾌하다. 에두르지 않고 곧바로 문제의 정곡을 찌르고 들어간다. 내 문제이면서도 잘 알지 못했고 쉽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던 얘기들을 밝게 드러낸다. 듣다 보면 마치 오래 묵은 종기를 짜낸 것처럼 속이 시원해진다. 그 날카롭고 명료한 촉이 따뜻한 시선과 유머로 싸여있다. 한바탕 실컷 웃고 나면 돌아가는 발걸음은 강연장을 들어설 때와 다르게 가벼워진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외 강연 1천회 넘어
다양한 소재의 즉문즉설 법문 대중에 인기
법회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 고스란히 전달

〈야단법석, 그 두 번째〉에는 이러한 현장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대화체 전개로, 고민이 해결돼 가는 과정을 가능한 그대로 살렸다. 법륜 스님이 익숙한 독자라면 여기에 더해, 해가 갈수록 더 따뜻해지고 더 날카로워지는 법륜스님의 연륜 또한 생생히 느낄 수 있을 터이다. 100여 회 진행된 강연에서 만난 6백여 명의 질문자들이 개인의 고민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며 스스로 길을 찾아 가는 모습은 함께한 5만 5천여 청중들에게도 큰 울림의 장이었다. 그 일부를 이 책에 담아보았다.

따뜻했다 추웠다를 반복하는 날씨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조금씩 더 자라나는 봄볕을 느끼는 요즘이다. 세상에 봄이 오는 것처럼 당신 마음에도 봄이 오고 있는지? 또 하나, 아무리 추운 날에도 마음만큼은 봄이 가득할 수 있음을 아는지? 꽁꽁 얼어 답답하고 무거웠던 마음이 맑고 밝고 가벼워지는 것. 지금 여기 행복한 마음, 그것이 바로 봄의 마음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법륜 스님**은?

스님은 1988년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 이웃과 세상에 보탬이 되는 보살의 삶을 서원으로 한 '정토회(www.jungto.org)'를 설립했다. 정토회에서 정토 수행자들의 수행을 지도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만해상 포교상을, 2002년에는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이라 불리는 라몬 막사이사이상(평화와 국제이해 부문)을, 2007년에는 민족화해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함께 사랑한다는 것,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공저)〉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인간 붓다〉 〈스님의 주례사〉 〈인생수업〉 〈야단법석1〉등 다수가 있다.

민족적 정서 짙은 아리랑 이야기 풀어내



깨침 아리랑

대현 지음

올리브나무 펴냄

1만5천원

"하늘은 이불 삼고 땅을 자리 삼으며 산은 베개 삼아 구름은 병풍 삼아 두르고 달은 촛불 삼아 밝혀놓고 바닷물은 술통 삼아 해탈주를 마시는도다
(후렴) 거짓 나를 버리고 참나를 깨달으니 거짓나를 버리고 참나를 깨달으니 이렇게 좋을 수가 거짓나를 버리고 참나를 깨달은 고개로 넘어간다"
〈진묵 대사의 '깨침아리랑'〉

우리 민족은 지구촌 어느 곳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든지 아리랑 노래만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고인다. 아리랑이 한국인을 하나로 이어주는 문화 탯줄로서 자리잡게 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

한국인이라면 요람에서부터 아리랑 노래를 배운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익숙한 민족의 노래이지만, 사실 아리랑이라는 세 글자의 뜻부터가 아리송하다.

먼저, '아리랑의 아리'는 '고운'이라는 뜻의 옛말이고, '랑'은 '임'을 가리킨다는 속설이 있다. 옛글에서는 '아리'가 '아름답다' '곱다'의 뜻으로 쓰였다고 하는데, 그 흔적을 현대 한국어 '아리따운'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아리랑'은 '고운 임'을 뜻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아'는 '나 아(我)', '리'는 '떠날 리(離)', '랑'은 '사내 랑(郞)'으로 풀이해, 나와 헤어진 남자, 즉 '날 버린 남자'를 뜻한다는 설도 있다. 딱히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틀리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각기 거기에 합당한 가사가 있기 때문이다.

아리랑 속에는 민중의 통곡 분노, 항변, 절규, 그리고 피와 반란이 스며들어 있다. 왜 어떤 사연이 있기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고 노래하게 됐을까?

이 책은 지방마다 다른 가사로 불려지는 아리랑의 유래와 기원을 소개함으로써, 아리랑 속에 스며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 민족의 한과 정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해준다. 한국인의 잠재의식 속에 흐르는 공통분모적인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리랑은 누구에 의해 언제부터 불려 졌을까? 신통묘술과 기행으로 널리 알려진 진묵대사(1562~1633)를 시초로 꼽는데, 대사가 남긴 소위 '깨침아리랑'에 따르면 아리랑의 아는 거짓나요, 리는 버림, 랑은 참나를 뜻한다. 대사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를 거짓 나를 버리고 참나를 깨달으니 이렇게 좋을 수가/거짓 나를 버리고 참나를 깨달은 고개로 넘어간다'로 해석한 것이다.

백양사로 출가한 이래 50안거를 성만했을 정도로 선승으로서 외길을 걸어온 대현 스님은 아리랑이 우리 민족의 정서적 바탕을 이루듯이, 우리네 삶의 밑바탕으로 삼아야 할 열마당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우리 선조들이 정월 초하루와 팔월 보름 추석 때면 왜 어떤 연유로 차례를 지냈는지, 관혼상제 때면 왜 밤과 대추와 곶감을 빠트리지 않고 사용했는지, 거기에는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

아리랑 유래와 기원 상세히 소개
진묵 대사의 〈깨침아리랑〉이 시초
'옴 명상' 수록… 염불, 명상, 호흡

어하는 정신적 유산이 깃들어 있음을 말해주는 '아름다운 유산', 옥야경을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바치는 '어진 아내의 길' 등 현대인들이 삶의 바탕에 깔고 살아갈 윤리적인 기준과 지혜를 재미난 예화와 함께 펼쳐낸다.

마지막으로 '옴 명상법'은 특별한 수행처를 찾을 것 없이 누구든지 가정에서 누구의 지도도 없이 할 수 있는 수행법으로서, 염불과 명상, 호흡법을 결합시킨 것이다.

김주일 기자

▲저자 **대현 스님**은?

1968년 백양사로 출가, 강진 백련사서 南山正日 선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서 안거 후 제방선원서 50안거를 성만했다. '위빠사나'를 만난 이후 이를 간화선에 접목, 수행의 바르고 빠른 길로서 '위빠간화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지리산 정각사 죽림선원서 정진중이다. 저서로는 〈선승의 길〉 〈선을 배우는 길〉 〈위빠간화선〉이 있다.

피가 돌고 맥박이 뛰는 살아 있는 깨달음, "아리랑" 속에 그 길이 있습니다



깨침 아리랑

우리 민족은 지구촌 어느 곳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든지 아리랑 노래만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고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리랑에는 우리 민족만의 고유독특한 한(恨)이 서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아리랑 가사 속에 스며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 민족의 한과 정서가 깃든 아리랑의 유래를 알아보는 일은, 한맺힌 아리랑 노래를 "깨침의 노래"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자 대현 스님

1968년 백양사로 출가, 강진 백련사에서 南山正日 선사를 은사로 득도하셨다.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안거 후 제방선원에서 50안거를 성만하신 스님은,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깎아지른 바위산을 단박에 오르는 것과도 같아서 상근기에 적합한 수행법이라는 생각을 품고 계시던 중 '위빠사나'를 만난 이후 이를 간화선에 접목, 수행의 바르고 빠른 길로서 "위빠간화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지리산 정각사 죽림선원에서 정진중이시다. 저서로는 『선승의 길』, 『선을 배우는 길』, 『위빠간화선』이 있다.

* 대현 지음 / 264쪽 / 값 15,000원

"나"를 떠나서는 십리도 못 가 발병 나리니
여보게들, 제발 제발
이 "나"를 속살 깊이 연구하여 보세나.
길은 안으로 안으로 놓여져 있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위빠간화선

* 대현 지음 / 160쪽 / 값 12,000원

위빠간화선

위빠사나와 간화선을 하나로 통합한 "선수행의 길라잡이"

늘 깨어 있어 알아차리면서 "이 뭣고?" 하고 화두를 챙기는 것이,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의 장점을 잘 살린 "위빠간화선"이다. 한 공간에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하듯, 처음 위빠간화선을 시작하는 사람은 들떠 요동치는 업식을 잠재우는 시간이 길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다보면 위빠사나의 알아차림이 짧아지고 화두 드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다보면 화두 의단이 독로하여 앉고 서고 가고 오고 말할 때 한결같게 된다.



한영대역판

그림과 함께 읽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 기획 및 감수 ‖ 대현 스님
* 240쪽 / 컬러 / 값 12,000원

가장 행복한 나눔—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불교의 근본 핵심이자 바탕이 되는 부처님의 생애를 널리 알리는 일은 곧 진리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산청 정각사에서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를 널리 알리고자 사찰 및 개인에게 책값의 50%에 해당하는 법보시를 지원합니다.

문의 010-9772-4588, 055) 972-1109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섭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구도에의 열정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큰 깨달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진정한 쉴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감동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아닐까요! —대현 스님 ("선승의 길"의 저자)

올리브나무 전화 070-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

웹툰으로 시왕도 알려준다고요? '신과 함께' 만나는 지옥의 왕

호림박물관, 웹툰 '신과 함께'와 시왕도 특별展

저승 세계를 관장하는 10대 시왕들의 재판 광경과 지옥 중생들을 묘사한 불교회화 시왕도(十王圖)가 불교 웹툰 '신과 함께'를 만나 더 쉬워진다.

호림박물관은 주호민 작가의 인기 웹툰 '신과 함께'와 시왕도의 만남 특별전을 9월 30일까지 신사분관 M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호림박물관이 소장한 조선 후기 시왕도(1764년)에 대한 설명을 웹툰 '신과 함께'를 통해 쉽게 전달, 관람객들이 보다 친근하게 불교회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호림박물관은 "불교미술은 종교미술 특유의 알레고리로 인해 불교를 깊이 이해해야 비로소 즐길 수 있는 예술이란 인식이 강하다. 이에 한국미의 근간으로 작용했던 불교미술을 보다 가깝게 여길 수 있도록 이번 특별전을 마련했다"면서 "한국 불교회화의 중요한 장르이자 사후세계에 대한 염원이 담긴 시왕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웹툰으로 설명하는 전시기법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주호민 작가의 웹툰 '신과 함께'는 불교의 사후세계를 만화로 재밌게 표현해

주호민 작가 인기 웹툰으로
불교회화 시왕도 쉽게 설명

시왕도, 호림博 소장 18세기 작품
10폭 희귀해 역사적 가치 뛰어나

불교 사후세계 표현한 '신과 함께'
하정우·차태현 주연 영화로 제작中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불교의 이승과 저승, 그리고 한국의 토속신앙을 만화에 적절히 녹여낸 작품이다. '신과 함께'는 영화로도 제작돼 올 여름 개봉 예정이다. 배우 하정우, 차태현, 주지훈, 김향기 등이 주연을 맡아 이미 장안의 화제다.

웹툰 '신과 함께'로 설명하는 시왕도는 불자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품과 함께 곳곳에 배치된 웹툰 장면들이 시선을 사로잡으면서도 이해하기 쉬워 특히 어린이들이 불교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다.

〈불설예수시왕생칠경〉에 의하면 인간은 죽으면 명부(冥府: 인간이 죽어서 심판받는 곳)로 가게 된다. 도중에 차례로 10명의 시왕을 만나 생전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 이를 작품으로 그린 것을 시왕도(十王圖)라고 한다. 현재 전 세계 약 300여 축의 시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통일신라 초기에 처음 시왕도가 전해져 10~11세기 초 시왕신앙이 성행했다. 현재 조선전기 시왕도는 일본과 독일 등에 소장돼 있으며, 우리나라엔 18~20세기 제작된 작품들이 남아있다.

시왕도는 10명의 왕을 몇 폭으로 나눠 그렸는가에 따라 10폭 · 6폭 · 4폭 · 2폭 형식 등으로 분류된다. 그 중에서도 호림박물관의 시왕도는 10명의 왕을 각 1폭씩 나눠 그린 1폭1왕식으로, 18세기 제작됐다. 10폭 시왕도가 모두 전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19세기 후 제작됐기 때문에 호림박물관의 시왕도는 조선후기 불교회화 양상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단서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호림박물관은 3월 21일~9월 30일 신사분관서 고려시대 철화청자를 주제로 '철, 검은 꽃으로 피어나다' 특별전도 개최한다. 호림박물관 소장 고려시대 철화정자 220여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를 통해 매병, 대접, 잔, 유병, 주자 등 다양한 형태와 무늬를 갖춘 철화청자의 예술적 미학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지장시왕도', 1736-1795년, 130.0×118.0cm, 사진제공=호림박물관





웹툰 '신과 함께'(주호민 作) 속 지장보살과 시왕 소개

자연에서 찾은 내면, 사유의 길로 확장하다

갤러리시:작, 4월 9일까지 이종송 · 정상곤 작가 2인展

이종송 · 정상곤 작가가 마주한 자연(自然)은 어떤 모습일까. 그 자연 속에서 두 작가는 무엇을 다르게, 또는 같게 느꼈을까.

갤러리시:작은 4월 9일까지(월요일 휴관) 이종송 · 정상곤 작가의 'Duo, 만들다, 발견하다'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두 작가가 자연을 대상으로 느낀 감정을 구현한 회화 및 판화 작품 50여점을 소개한다.

두 작가는 자연이란 물리적 공간을 각자의 시선으로 관찰해, 각기 다른 내적 경험을 통해 작품에 녹였다. 다르면서도 같은 작품 속 사유(思惟)가 관람객들의 다양한 감흥을 유발시킬 것으로 주목된다.

먼저 자연 풍경 속 무한한 변화와 이질적 공간을 독보적인 흙벽화 기법으로 표현하는 이종송 작가는 이번 전시서 흙과 안료에서 우러나오는 색을 활용, 보다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자연을 묘사한다. 이 작가는 "추상적인 풍경에서 느낀 내면의 감정을 단순한 색과 면, 점으로 표현했다. '숲의 춤(Dance of the Forest)'이란 제목에 나타나듯 생명이 움직이는 듯한 숲의 모습을 그렸다"며 "감상자에 따라 숲인 듯, 나무인 듯, 사람인 듯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정상곤 작가는 특정한 장소의 재현보단 개인의 고민과 경험들을 시각화하기 위해 거친 묘사를 반복해 유적이고 몽환적인 풍경을 담아냈다. 이야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표현보단 생략되고 왜곡된 형태를 유지하며 디지털 방식의 회화를 표현해냈다. 작가와의 대화는 31일 오후 7시 진행된다.



이종송 Dance of the Forest, 흙벽화기법에 천연안료, 116x45.5cm, 2017



정상곤 Skin deep, 41x53cm, oil on canvas, 2015

이종송 작가는 서울대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해 대한민국 미술대전서 특선 및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건국대 회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상곤 교수는 서울대 서양화과를 졸업해 동 대학원을 졸업, 현재 동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 베를린, 동경, 후쿠오카, 에스토니아 탈린 등에서 판화와 페인팅으로 총 33회의 개인전을 연 바 있다. 박아름 기자

佛音으로 봉축 장엄 '찬불가 열창대회'

좋은벗풍경소리 · BTN 공동주최 5월 13일 예선

흥겨운 찬불가 대잔치 '찬불가 열창대회'가 올해도 찾아온다.

좋은벗풍경소리와 BTN불교TV는 공동주최로 '제3회 찬불가 열창대회'를 개최한다. 5월 13일 오후 2시 예선에 이어 26일 오후 7시 본선이 진행된다. 두 차례 모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린다. 출석경연을 원칙으로 하나, 예선의 경우 지방 및 도서벽지 참가자들에 한해 동영상 신청접수도 가능하다. 동영상 접수는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찬불가를 사랑하는 모든 불자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는 독창과 8인 이하 중창이다.

참가곡은 찬불가 및 찬불가요로, 반주는 MR 혹은 출연자가 동반해 가능하다.

시상 및 상금은 △대상 200만원(1팀) △최우수상 100만원(1팀) △우수상 50만원(2팀) △인기상 20만원(2팀) △응원상 50만원(1팀)이다.



접수는 좋은벗풍경소리 홈페이지(www.budsori.or.kr) 또는 붓다콘서트 카페(cafe.naver.com/buddhaconcert)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우편 또는 팩스(02-723-9841), 이메일(budsori@naver.com)로 하면 된다. 접수마감 4월 28일 오후 6시까지. (02)723-9836

박아름 기자



위패몰.com

원로대덕스님들께 삼가 문안인사 올립니다.

사찰에서 살다보니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쓰다보니 주위에서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다보니 이렇게 지면을 통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쓰기 좋고 보기 좋으며 법당내의 격을 높이고자 감히 디자인 하고 고안하였습니다.

조상의 왕생극락을 불전에 기원하는 후손들의 정성을 섭인(攝引)하여 법당을 여법하게 장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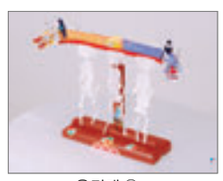
사문(沙門) 일허(一虛) 나무 관세음보살


2단 합동위패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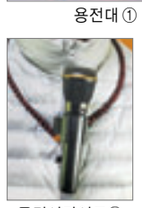

2단 합동위패 ②


3단 합동위패 ①


용전대 ①


용전대 ②


목걸이마이크 ①


목걸이마이크②


축원카드 보관함


소대위패①


소대위패②

살펴보시고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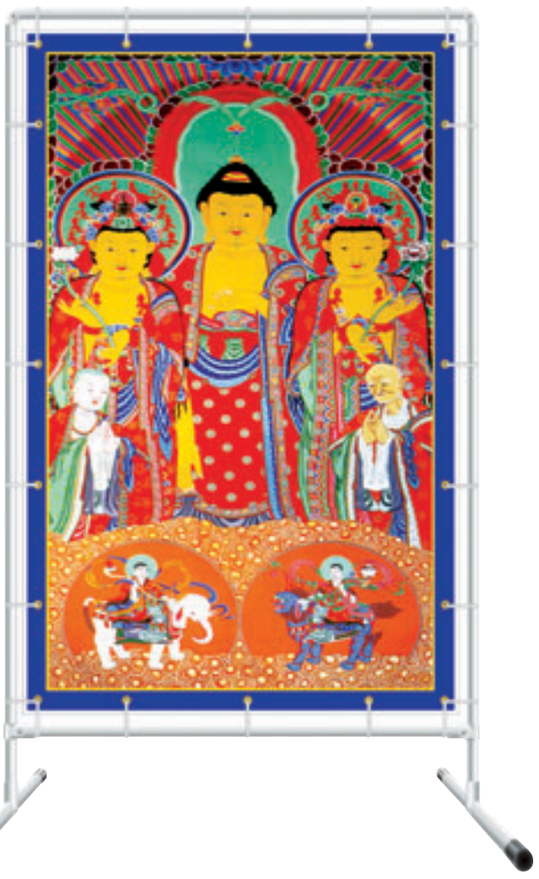
부산 서구 남부민동 93-1번지
☎051)244-2040

위패몰.com

七寶寺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 대학로 뒤에서 열리는 낙산 성곽길. 정순왕후도 남편인 단종을 기다리며 매일 같이 청룡사에서 이 길을 걷지 않았을까. 오래된 슬픔이 모두의 가슴에 주르륵 물줄기를 낸다.



낙산 언덕길의 청룡사 일주문 앞.



단종과 정순왕후가 헤어졌다는 청룡사 우화루.



낙산 동망봉으로 오르는 산동네 길이 정겹다.

옛 성곽길서 정순왕후의 이별 恨이 흐르네

60년 남편 기다린 여인, 정순왕후
그 한 서린 낙산 언덕길을 걸으면
500년 세월에도 그 슬픔 전해져

• 걷는길 : 혜화역 1번 출구 – 낙산 공원 제1전망대– 비우당 – 동망봉 – 청용사 – 보문사와 미타사 – 보문역

• 거리와 시간 : 4km 정도, 2시간 예상

저 절로 가는 길
⑦ 청룡사 가는 길

고려 태조 922년, 불교와 풍수를 습합한 도선국사의 유언에 따라 왕명으로 지은 청룡사는 지금도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17-1번지에 존재한다.

청룡사는 그 남성적인 이름과 달리 고려와 조선에 걸쳐서 여성의 수난사를 기록하고 있다. 청룡사를 한때 정업원(淨業院)이라고 불렀으니, 한마디로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닦아야 할 업이었다. 한 나라의 군주를 모시던 왕비나 후궁일지라도 그 권력의 부침에 따라 때때로 궁을 떠나야 했던 것이다. 그들은 주어진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위해, 혹은 왕의 안위나 명복을 빌기 위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 그들 왕비나 후궁, 상궁 나인이 기거했던 비구니 절이 바로 청룡사였다.

대표적으로 신하들에게 타살당한 공민왕의 후궁 안 씨,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복형 이방원에게 참살당한 의안대군 이방석의 부인 심 씨가 청룡사를 귀의처로 삼았다. 모든 여인들은 극명한 영욕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니는데, 그 이야기가 애틋하기로 단종의 비 정순왕후 송 씨를 따를 순 없다.

낙산은 성곽길 걷기를 목적으로 하면 동대문이라 부르는 흥인지문에서 혜화문까지가 제격이고, 절길을 걸으면서 불교문화유산을 둘러보려면 대학로에서 보문동으로 이어지는 지봉길이 제격이다.

나와 도반들은 어느 봄날 지봉길을 택해 걸으려 혜화역 1번 출구에 모였다. 낙산에 이르기까지 식당이 밀집한 거리와 연립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을 지났다. 빗장이라도 질린 듯 답답했던 가슴이 어느 순간, 높다란 성곽이 받힌 하늘을 만나면서 뻥 뚫린다. 지하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기분이었다.

서울의 대부분 길을 도시문명이 장악한 탓에 낙산의 절길도 자주 시멘트벽에 가로막혔지만 이 또한 제행무상(諸行無常), 길이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 건 순전히 시절 탓이 아니겠는가.

한 노인이 낙산공원 정자 아래서 해바라기를 하고 있다. 허물어진 입가와 옴팍눈, 파뿌리처럼 가느다란 머리카락과 쓸쓸한 어깻죽지에서 폐서인 송 씨를 본다. 그녀의 삶이 여든을 넘었다니 모질기도 꽤 모진 일생이었나 보다.

정순왕후 송 씨는 당신보다 한 살 어린 단종과 열다섯 살 때 결혼했으나 그 영화가 오래가지 못하였다. 이듬해 숙부인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했던 것이다. 어린 단종은 영월로 귀양 가야 했고, 지아비가 귀양길에 올랐으므로 정순왕후도 궁궐을 떠나야 했다.

야사가 전하기로, 정순왕후는 흥인지문 밖 영도교에서 눈물로 단종을 전송했다. 단종은 송파 나루에서 영월 가는 배를 탔겠지만, 유배지는 물론 영도교를 건너는 것도 허락되지 않아 송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녀에게 허락된 건 낙산 동망봉(東望峰) 아래 청룡사에서의 삶이었다.

낙산에는 실학자 이수광이 살던 비우당(庇雨堂)이란 집이 있다. 말 그대로 비를 피하는 집이다. 이수광은 이곳에서 유명한 지봉유설을 썼다. 눈에 띄는 것은 이수광의 초가집 뒤란에 있는 자지동천(紫芝洞泉)이란 작은 우물이다. 정업원에 기거한 폐서인 송 씨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저고리 고름이나 댕기에 물감 들이는 일을 했다. 우물을 자주 찾은 건 그 때문이었다.

그처럼 힘든 삶을 꾸려나가면서도 송 씨는 여전히 임금을 잊지 못해 자주 동망봉에 올랐는데, 그 세월이 무려 60년이란다. 페미니즘을 넘어 모계사회로 가고 있다는 요즘 정서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여인 아닌가.

그토록 고고한 여인의 그리움, 그 넓이를 지닌 동쪽 하늘이 궁금해선지 비우당을 나와 동망산 동망봉으로 향하는 걸음들이 빨라졌다. 가는 길이 재개발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는 포장도로이다. 문득 과거와 현재가 내 눈앞에서 포개진다. 일감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송 씨가 고층 아파트와 뾰족한 첨탑의 신축교회 곁을 타박타박 걷는다.

길은 이내 사거리로 흩어진다. 오른쪽으로 내려서면 보문사와 미타사, 앞으로 직진하면 동망봉이다. 보문사와 미타사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집이다. 보문사는 보문종이라는 비구니 만의 종단이고, 오래된 탑을 뒷동산에 둔 연유로 탑골승방이라고도 부르는 미타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이다. 청룡사는 탑골승방보다 40여 년 후에 지어 새절승방이라 부른다.

청룡사는 한때 낙산을 뒤덮을 정도로 사세가 컸다. 비우당을 빠져나오는 길에서 '단종대왕 천도도량' 이라는 태고종 원각사를 보았는데, 그 절 또한 청룡사의 한 부속건물이었다고 청룡사 종무보살이 전한다.

동망봉으로 오르는 언덕길 사이로 한쪽은 담을 쳐놓고 아파트를 신축 중이고, 다른 쪽은 낮은 지붕의 창문 너머로 드륵 드르륵, 재봉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금세라도 포크레인이 올라와 그마저 폐허로 만들어버릴 것 같다. 동대문 시장이 가까운 이 동네 사람들이 의류에 관련된 일로써 생계를 꾸려온 건 어제 오늘이 아니다.

앞장서 언덕길을 걷던 정순왕후 송 씨가 어느새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노 비구니의 뒷모습으로 변해 있다. 청룡사로 귀가하기 전 송 씨는 언제나 해 저문 언덕길을 올랐다. 남편 단종이 살아있을 때도 올랐고, 죽어서도 올랐다.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는 뒤쪽이 절벽이고 나머지 삼면은 강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유배지였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수양대군이 내린 사약을 들고 영월에 도착하자 단종은 목을 매 자진한다.

송 씨는 남편이 죽었건 살았건 그저 동망봉에서 영월 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어린 남편보다 64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동망봉에 오르니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 기구들이 눈에 띈다. 머리를 수건으로 동여맨 노인이 마라톤 트레이닝 복장으로 구민공원을 맴돌고 있다. 나와 도반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동망봉임을 알리는 표지석을 찾아냈으며, 폐서인 송 씨가 그 자리에서 그러기라도 한 듯 동쪽 하늘을 오래도록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500년 전의 하늘이 500년 후의 동망봉을 마주 보고, 오래된 슬픔이 모두의 가슴에 주루룩 물줄기를 낸다. 모두가 말을 잊은 채 먼 하늘에 눈을 팔았다.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기다리는 습관을 가집시다

기다리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화가 나서 말을 하고 싶을 때
남이 미워서 흉보고 싶을 때
말하지 말고 행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감정이 실린 말과 행동은
불필요한 문제를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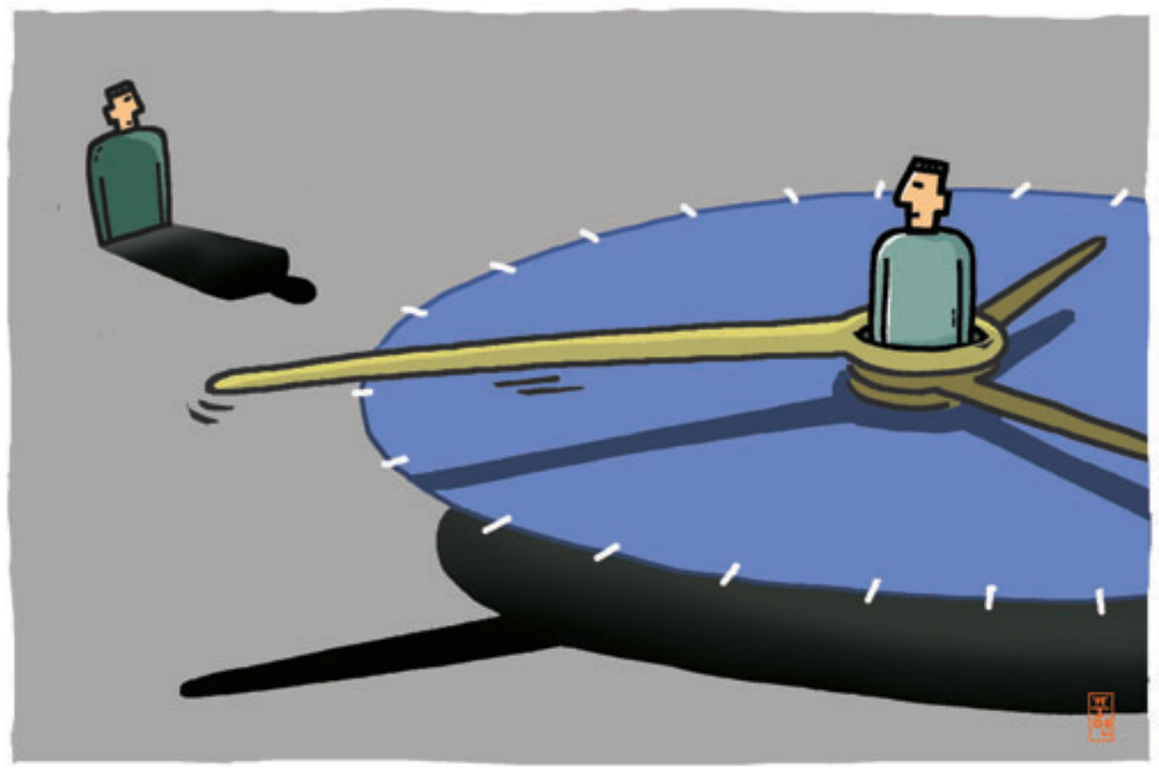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황선미(시인)

隨處作主,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친구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

봄꽃이 기지개 켜는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3월도 중순을 지나고 있으니,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으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년기에 사귀는 친구는 성인이 된 후 만나는 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합니다. 상대의 사회적 조건을 견주며 고르는 친구와 조건 없이 순수함으로 만나는 친구를 비교할 순 없겠지요.

순수한 우정은 서로를 연결하는 소중한 약속이며, 봄날 새순처럼 삶에 풋풋한 희망을 선사합니다. 또한 우정은 거울처럼 자신을 비춰주기도 합니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말처럼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비슷한 유형의 사람끼리 어울립니다. 생각이나 가치관, 비슷한 성품이나 성격을 지닌 사람끼리 사귀기 때문에 친구를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늘 가는 데 실 간다'는 속담처럼 학창시절 단짝과 함께한 즐거운 한 때는 인생에 있어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만큼 친구는 나에게 있어 빈 곳을 채워주고,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과 같은 인연입니다. 〈법화경〉 '오백제자수기품'의 '의리계주(衣裏繫珠, 친구의 옷 속에 구슬을 달아준)' 이야기는 불성(佛性)에 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친구에 대한 따뜻한 신뢰를 암시합니다.

친구 옷에 달아준 구슬

한 가난한 사람이 오랜만에 부자 친구의 집에 방문했다가 진수성찬을 대접받았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때마침 집주인인 친구가 급한 볼일이 생겨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술에 취해 잠든 친구를 깨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 가난한 친구가 앞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잠든 친구의 옷 속에 보배 구슬을 매달아 주었습니다.

한참 후 술에서 깨어난 가난한 친구는 그 집을 나와 정해진 일도 없이 세상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 속에 값진 구슬이 있는지도 모른 채 가난한 생활을 하며 고생을 했고, 하루 일하고 하루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았습니다.

몇 년 후, 부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가난한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자 친구는 가난한 친구의 여전히 초라하고 궁핍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구슬을 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고생할까봐 값진 보배구슬을 주었는데 아직도 매일 고생하며 살고 있으니 무슨 일인가?"

옛 친구의 말을 들은 가난한 친구는 영문을 몰라 의아해 했습니다. 부자 친구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지난번에 자네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잠이 든 자네를 두고 내가 급하게 외출하면서 자네가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잠든 자네의 옷에 보배구슬을 매달아 두었다네. 그런데 왜 아직도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네."

가난한 친구는 옛 친구의 말을 듣고 자신이 입고 다니던 허름한 옷 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옷 안에는 여전히 보배구슬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를 본 부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법화경〉 '의리계주' 이야기는
친구와의 따뜻한 신뢰를 의미해
훌륭한 도반, 수행 · 인생에 도움
친구 간도 지킬 예절 · 도리 있어

"자, 보시게! 지금도 보배구슬이 그대로 매달려 있지 않은가? 이것을 팔면 돈으로 바꾸면 필요한 걸 구입해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다네. 자네는 그것도 모르고 고생하며 살았으니 참으로 어리석구려."

- 〈법화경〉 中에서

우정을 지키는 三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보배구슬은 불성(佛性,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비유하며, 옛 친구는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은 오백제자 모두에게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 미래에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약속)를 합니다. 모두가 불성이라는 귀중한 보배구슬을 가지고 있으니 진리를 열심히 배우고 정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와의 우정으로 해석하면 옛 친구는 어려운 형편의 가난한 친구를 도와주고자 보배구슬을 주었습니다. 값진 보석과 같은 우정이라 하겠습니다. '지란지교(芝蘭之交)', '금란지교(金蘭之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초와 난초같이 향기로운 사귐', '쇠처럼 굳고 난처럼 향기가 배어나오는 사귐'을 의미입니다.

친구와 관련된 속담으로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가 있는데 무작정 친구에게 이끌려 가다보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친구 사이가 변함없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가 싫은 일은 타인도 싫어하듯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무리한 부탁은 삼가야 합니다. 우정을 잘 가꾸고 지키기 위해 필요한 덕목은 바로 삼학(三學)입니다. 삼학은 계(戒) · 정(定) · 혜(慧)의 세 가지 가르침입니다. ①몸과 입과 뜻으로 범하는 그릇됨을 막아 친구사이에 예절을 지키는 계 ②마음을 맑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인 정 ③서로 배우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명석한 판단과 분별의 지혜로서의 혜가 요구됩니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로 더욱 활성화된 동문(同門) 모임은 파편화된 개인에게 소소한 즐거움과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과 도리, 마음가짐 등 삼학의 덕목이 부족하다면 서로의 관계는 훼손되고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법구경〉에는 '나보다 나을 것이 없고 내게 알맞은 벗이 없거든 차라리 혼자 착함을 지키고, 어리석은 사람의 길동무가 되지 말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벗이나 악한 벗은 나를 혼란과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의연하게 홀로 나아가다보면 더불어 함께해도 좋을 훌륭한 벗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반(道伴), 법우(法友)는 불법을 닦으며 깨달음을 향해 더불어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공명하는 우정은 정진의 든든한 기둥과 같습니다. 성철스님은 '도반이 공부의 절반을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훌륭한 도반을 만나는 것이 수행에 있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수행정진하는 '도반', '법우'가 있다면 혼탁한 진흙탕에서도 맑고 향기롭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세상은 살아갈 만 할 것입니다. 누군가 내 곁에 다가와 도반이 되어주길 소망하듯,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대상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말해봅니다.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선운사 삼사순례 안내



도솔산 선운사 전경

삼사 성지순례는 영험깊은 기도도량을 순례하며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 지극한 심신으로 업장소멸을 다짐하는 불교의 오래된 풍속입니다. 강학과 수선도량 선운사는 미륵지장기도성지 도솔암과 참회수행도량 참당암이 자리잡고 있어 성지순례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경내에 대형저수지(도솔제)가 자리잡고 있어 방생법회와 삼사 성지순례의 명소입니다.
유서깊은 기도도량의 순례를 통해 신심을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삼사순례 안내

■ 1코스 : 선운사 → 도솔제(방생) → 참당암 → 도솔암



■ 2코스 : 선운사 → 도솔제(방생) → 문수사(고창) → 내소사(부안)



선운사 강학과 수선 도량



도솔암 도솔천 내원궁 해동 제일 미륵 · 지장보살 성지



참당암 참회수행도량



청량산 문수사(문수보살 기도성지)



능가산 내소사(서해제일 관음기도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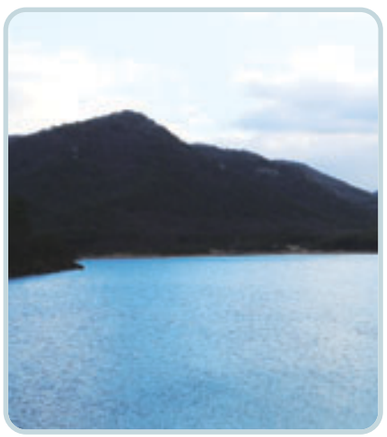
선운사 지장보궁
금동지장보살 (보물 279호)



도솔암 도솔천 내원궁
지장보살 (보물 280호)



참당암 지장전
석조지장보살 (전북 유형문화재33호)



방생 최적지 도솔제
경내 차량이동 5분거리에 위치



오시는 길

- 서울출발 : 경부고속도로 → 천안 논산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 (약 3시간 소요)
- 부산출발 : 남해고속도로 → 담양 고창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 (약 3시간 소요)
- 대구출발 : 88올림픽고속도로 → 담양 고창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 (약 3시간 소요)

※ 네비게이션 검색 : 선운사
※ 각 코스별 대형버스 진입 가능.
사전 연락주시면 사찰안내 및 방생 편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 문의 : 선운사 종무소 063)561-1422 / 도솔암 063)564-2861 / 내소사 063)583-7281 / 문수사 063)562-0502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선운사